

濟州 河源洞 墳墓群

高昌錫
金東栓
康昌和

2000

濟州史定立事業推進協議會





（右）高野山（左）高野山



하원동 1·2호부 전경(항공촬영)











目次

머리말 / 17

I. 유적의 위치와 현상 / 19

II. 하원동 속칭 ‘王子墓’의 歴史的 背景 / 22

III. 조사 경위와 경과 / 28

IV. 조사 내용 / 30

V. 출토 유물 / 106

VI. 綜合考察 / 116

맺음말 / 127

그림 차례

- 그림 1 유적 위치도 /19
 그림 2 유적 지형도 /20
 그림 3 유적 주변의 지적도 /21
 그림 4 「탐라순력도」의 '고원방고'의 왕자구지 /23
 그림 5 하원동 고분 일대 지형 측량도
 (한칸의 크기는 10m×10m임) /31
 그림 6 하원동 분묘 배치도 /32
 그림 7 하원동 1호분 실측도 /34
 그림 8 하원동 1호분 석곽 /38
 그림 9 하원동 1호분 내부 층위 /39
 그림10 하원동 2호분 실측도 /66
 그림11 하원동 2호분 석곽 /70
 그림12 하원동 2호분 내부 토층 /71
 그림13 하원동 3호분 실측도 /86
 그림14 하원동 3호분 석곽 /90
 그림15 하원동 3호분 내부 층위도 /91
 그림16 도기 구연부 /106
 그림17 분청사기 구연부 /106
 그림18 1호분 동편 문인석(도립 박물관 소장) /110
 그림19 1호분 서편 문인석 /110
 그림20 비좌 /111
 그림21 옥개석 /111
 그림22 원추형 석물(1) /112
 그림23 원추형 석물(2) /112
 그림24 관정(1) /113
 그림25 관정(2) /113
 그림26 관정(3) /113
 그림27 관정(4) /113
 그림28 관정(5) /114
 그림29 관정(6) /114
 그림30 관정(7) /114
 그림31 관정(8) /114
 그림32 목관 파편 /114
 그림33 소옥 /115

사진 차례

- 사진 1 제주 하원동 분묘군 항공촬영(정면) /18
 사진 2 제주 하원동 분묘군 항공촬영(상면) /18
 사진 3 현재의 하원동 고분군 전경 /20

- 사진 4 1914년 하원동 고분군 전경(유리원판
 도록, 국립중앙박물관) /20
 사진 5 하원동 고분군 전경 /20
 사진 6 하원동 고분 주변 전경 항공촬영 /29
 사진 7 하원동 1·2호분 중복 상태 /35
 사진 8 하원동 1호분 /35
 사진 9 하원동 1호분 /36
 사진 10 하원동 1호분 세부 /36
 사진 11 하원동 1호분의 내부 토층 /40
 사진 12 하원동 1호분 석축과 석곽 /42
 사진 13 비좌·옥개석·등잔대 출토 모습 /43
 사진 14 문안석 /43
 사진 15 1호분 조사 광경 /44
 사진 16 1호분 전경 /44
 사진 17 1호분 측면 실측 광경 /44
 사진 18 1호분 발굴 전 상태 /45
 사진 19 1호분 발굴 전 상태 /45
 사진 20 1호분 석곽(남동에서) /46
 사진 21 1914년 도굴 당시 1호분 모습 /46
 사진 22 1호분 석곽 정면과 비좌, 옥개석 /47
 사진 23 1호분 석곽 동벽 /47
 사진 24 1호분 석곽 동벽 축조 상태 /48
 사진 25 1호분 석곽 동벽 석벽 접합 상태 /48
 사진 26 1호분 석곽 남벽 /49
 사진 27 남벽 접합 상태 /49
 사진 28 1호분 석곽 북벽 /49
 사진 29 1호분 석곽 석벽 /50
 사진 30 1호분 전경 /50
 사진 31 1호분 정면 발굴 모습 /51
 사진 32 1호분 석곽 남동벽 모서리 /51
 사진 33 1호분 북동벽 모서리 /52
 사진 34 1호분 석곽 서벽 내부 석곽 상태 /52
 사진 35 1호분 도굴 상태 /53
 사진 36 1호분 도굴갱 /53
 사진 37 1호분 내부 토층 상태 /54
 사진 38 1호분 도굴갱(남동에서) /54
 사진 39 1호분 석곽·옥개석·석재등잔대
 노출 상태 /55
 사진 40 1호분 석곽 정면 상태 /55
 사진 41 1호분 석곽 남쪽(정면) 유구노출
 상태(동에서) /56
 사진 42 1호분 석곽 남쪽(정면) 유구노출

상태(위에서) /56
 사진 43 제1단 석축과 2단 석렬 · 계단석 /57
 사진 44 제2·3단 석렬 /57
 사진 45 제3단 석렬과 석곽 /58
 사진 46 제2·3단 석렬 /58
 사진 47 제2단 석렬과 계단 시설 /59
 사진 48 계단 시설(서에서) /59
 사진 49 계단 시설(동에서) /60
 사진 50 /60
 ① 계단(1)
 ② 중앙계단(2)
 ③ 계단(3)
 ④ 석축시설 test pit
 사진 51 계단시설과 제2단 석렬 /61
 사진 52 control pit(북에서) /61
 사진 53 control pit(남에서) /61
 사진 54 control pit 세부 /61
 사진 55 control pit 내부 매립 상태 /62
 사진 56 /62
 ① 매립 상태
 ② 매립 상태
 ③ control pit 세부
 ④ 제1단 석축전경
 사진 57 동쪽 외부 돌담 /63
 사진 58 서쪽 외부 돌담 /63
 사진 59 /63
 ① 남쪽 돌담
 ② 동쪽 돌담
 ③ 동쪽 돌담 세부
 ④ 돌담 축조 상태
 사진 60 /64
 ① 1·2호분 중복
 ② 1·2호분 중복 상태
 ③ 제2단 내 문인석
 ④ 문인석
 사진 61 1호분 석곽 관련 석재 /64
 사진 62 하원동 2호분과 1호분 중복 상태 /67
 사진 63 하원동 2호분 세부 /67
 사진 64 하원동 2호분 전경 /68
 사진 65 하원동 2호분 전경 /68
 사진 66 하원동 2호분 내부 토층 /69
 사진 67 하원동 2호분 발굴 전 상태 /73

사진 68 발굴 전 상태(북에서) /73
 사진 69 도굴갱 /73
 사진 70 하원동 2호분 발굴 광경 /74
 사진 71 하원동 2호분 석곽(북에서) /74
 사진 72 하원동 2호분 석곽 /75
 사진 73 하원동 2호분 석곽(북서에서) /75
 사진 74 하원동 2호분 석곽(북동에서) /76
 사진 75 하원동 2호분 석곽과 주변 control pit /76
 사진 76 하원동 2호분 석곽과 후대묘 /77
 사진 77 하원동 2호분 석곽(서에서) /77
 사진 78 2호분 석곽 서벽 내부 상태 /78
 사진 79 2호분 석곽 동벽 축조 상태 /78
 사진 80 하원동 2호분 동벽 축조 상태 /79
 사진 81 2호분 석곽 동벽과 봉토 층위 /79
 사진 82 2호분 석곽 북벽 /80
 사진 83 /80
 ① 석벽 축조상태(1)
 ② 석벽 축조상태(2)
 ③ 석벽 축조상태(3)
 ④ 석벽 축조상태(4)
 사진 84 석벽 축조상태(5) /81
 사진 85 석벽 축조상태(6) /81
 사진 86 석벽 축조상태(7) /81
 사진 87 세부(1) /81
 사진 88 세부(2) /81
 사진 89 세부(3) /82
 사진 90 2호분 서벽 축조상태 /82
 사진 91 서북쪽 모서리석 /82
 사진 92 동북쪽 모서리석 /82
 사진 93 /82
 ① 후대묘역과 남동쪽 모서리석
 ② 후대묘역과 중복상태
 사진 94 테두리 돌담(북편) /83
 사진 95 /83
 ① 테두리 돌담(동편)
 ② 테두리 돌담(서편)
 ③ 축조상태 세부(1)
 ④ 축조상태 세부(2)
 사진 96 /84
 ① control pit
 ② pit 층위(1)
 ③ pit 층위(2)

사진 97 /84

① control pit

② control pit 전경

③ 하원동 2호분 내부 층위

사진 98 하원동 3호분 전경(항공촬영) /87

사진 99 하원동 3호분 전경(항공촬영) /88

사진100 하원동 3호분 전경 /88

사진101 3호분 내부 층위 /92

사진102 하원동 3호분 전경 /94

사진103 /94

① 3호분 봉분 상태

② 도굴갱

사진104 하원동 고분군의 전경 /95

사진105 3호분 발굴 광경 /95

사진106 하원동 3호분 전경 /95

사진107 /96

① 발굴광경(1)

② 발굴광경(2)

③ 발굴광경(3)

사진108 /96

① 3호분 전경(1)

② 3호분 전경(2)

③ 3호분 전경(3)

사진109 사각 테두리 돌담과 석곽 /97

사진110 3호분 석곽(위에서) /97

사진111 3호분 석곽(북서에서) /98

사진112 3호분 석곽과 내부 토광 /98

사진113 3호분 석곽과 상석 /99

사진114 3호분 석곽과 비석 /99

사진115 3호분 석곽(정면에서) /100

사진116 1914년 도굴 당시 3호분 /100

사진117 /101

① 토광

② 토광 북쪽면

③ 토광 바닥

사진118 내부 토광 /101

사진119 석곽과 상석 /102

사진120 /102

① 석곽 서벽

② 석곽 동벽

③ 상세

④ 석축 외벽 마감 상태

사진121 /103

① 석곽 북동편 모서리

② 석곽 북서편 모서리

③ 석곽 남동편 모서리

④ 석곽 북동편

사진122 /103

① 석곽북편 판석 위 비석

② 비석 측면

③ 석곽 동편 판석 위 비석

사진123 3호분 외곽 테두리 돌담 /104

사진124 제2단과 3단 시설 /104

사진125 제1단 시설과 상석 /105

사진126 /105

① 동편 테두리 돌담

② 서편 테두리 돌담

사진127 도기 구연부 /106

사진128 분청사기 구연부 /106

사진129 백자편 · 대접 · 접시 /108

사진130 청동 제품 /108

사진131 3호분 출토 청동 사발편 /108

사진132 1호분 동편 문인석(도립 박물관 소장) /109

사진133 1호분 서편 문인석 /109

사진134 비좌 /111

사진135 옥개석 /111

사진136 원추형 석물(1) /112

사진137 원추형 석물(2) /112

사진138 관정(1) /113

사진139 관정(2) /113

사진140 관정(3) /113

사진141 관정(4) /113

사진142 관정(5) /114

사진143 관정(6) /114

사진144 관정(7) /114

사진145 관정(8) /114

사진146 목관 파편 /114

사진147 소옥 /115

사진148 상평통보 앞면 /115

사진149 상평통보 뒷면 /115

머 리 말

하원동 분묘군은 일찍부터 ‘왕자묘(王子墓)’라는 이름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었다. 이 묘는 1914년(大正3)에 일본인들에 의해 묘가 도굴된 바 있어 더더욱 주목되어왔다. 이 묘는 탐라국의 왕자(王子)와 관련된 왕자묘라는 주장과 원나라 백백태자(伯伯太子)의 묘일 가능성이 있다는 두 설이 있다.

이원조 제주목사(1842~45)가 지은 『耽羅誌草本』大靜縣 ‘古蹟’에 따르면

“왕자묘는 대정현 동쪽 45리에 있다. 궁산 옆 두 하천 사이에 3기묘의 階嘴이 아직도 남아있다. 두 모퉁이에는 백작약들이 자라고 있다. 가래촌에는 또한 궁궐 유적으로 보이는 초석들이 남아 있는데 이곳이 탐라의 도읍처가 아닌가 의심된다. 전해 오는 바에 의하면 산방을 二都라고도 하였다.(王子墓在縣東四十五里弓山兩川之間 三墓階嘴尙存兩隅有白芍藥 加來村裏 又有宮闕遺礎 疑是旱羅都處 俗傳山房爲第二徒云)”

이 묘가 두 하천 사이에 자리하고 있고, 3기 묘의 묘역이 남아있다는 기록은 현재에 현황과 일치한다.

본조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설을 입증하고 일제시대 도굴된 묘의 성격을 재규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 목적은 문헌과 구전을 통해 알려진 동 묘제를 발굴하여 탐라말기 지배층 묘제양식과 그 성격을 규명하고, 나아가 밝혀 질 이들 묘제의 양식과 성격 파악을 통해 탐라국 말기의 사회상을 복원하여 인문·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이 조사보고서는 김동전·강창화가 맡아 집필하였다. 하원동 분묘의 역사적인 배경은 김동전이 집필하였고 발굴조사 대부분의 원고는 강창화가 작성하였다. 유물중 도자기는 현문필(호암미술연구원)이, 관정은 김종찬(목포대대학원·제주대박물관조교)이 담당하였다. 고찰부분의 원고는 김동전·강창화가 집필하였다. 유구도면은 이상미(영남대대학원·제주대박물관조교)·김진희·강미정이, 유물도면은 이상미·김종찬에 의해 이루어졌다. 보고서의 편집과 교정은 김동전·강창화·김경주가 하였으며, 보고서의 전체감수는 고창석(제주대사학과 교수)이 하였다.

이 보고서는 ‘웃간장’ 일대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사 대상지에 대한 발굴 조사 내용을 가지고 전체 성격을 거론할 수는 없다. 현재 웃간장 능선에 자리한 지형으로 보아 다른 관련 분묘가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전체를 전면 발굴할 경우 중요한 성격을 띠는 묘가 지하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곳의 지형이나 형상을 변경할 경우 이번 시굴조사 지점을 중심으로 고려·조선시대의 제주 분묘 연구를 위해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고창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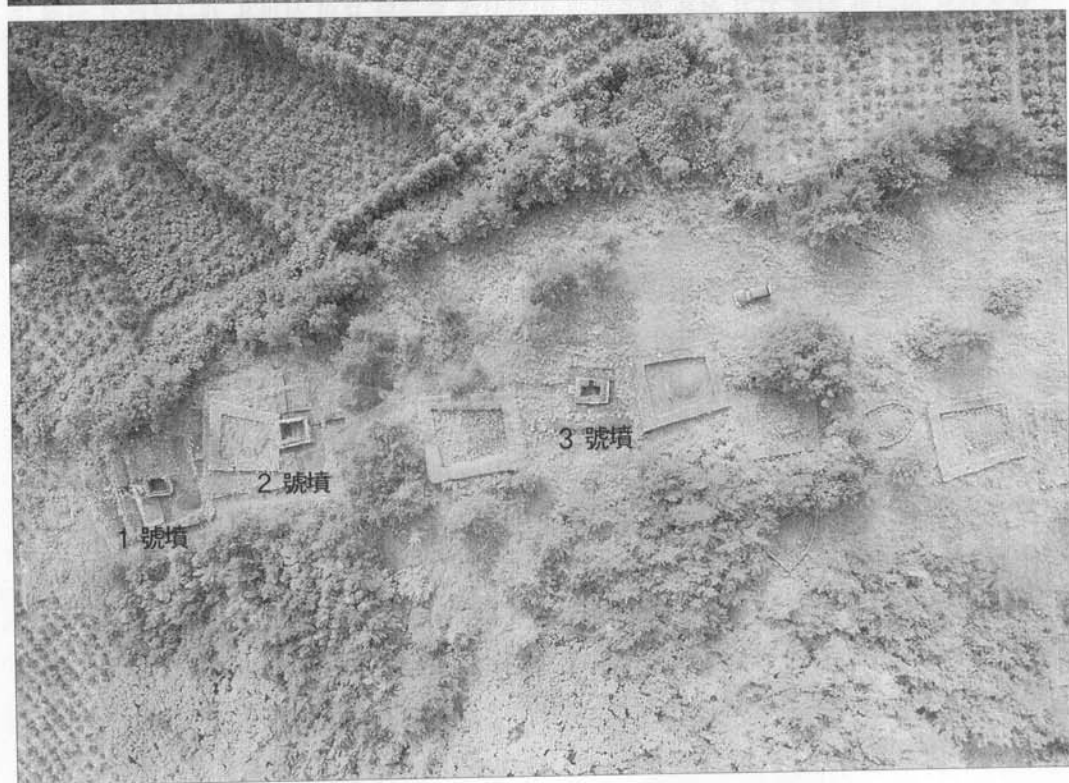


사진 1. 濟州 河源洞 墳墓群 航空撮影(正面)

사진 2. 濟州 河源洞 墳墓群 航空撮影(上面)

I. 유적의 위치와 현상

이 묘역은 서귀포시 하원동 산 21번지에 위치한다. 현재 묘역은 나지막한 능선상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소나무, 다근죽나무, 참나무 등과 잡목이 우거져 있다. 묘의 남쪽과 서쪽에는 감귤 과수원이 조성되어 있다. 이 묘역 안에는 4기의 일반 묘가 있다. 이 묘역 주변에는 방애(方伊) 오름이 있고 하원 마을 설촌 역사를 지닌 여가밭(呂哥田)이 있다.

묘가 위치한 곳을 이곳 지명으로는 ‘웃간장’이라 하며 마을 주민들에 의해 ‘왕자골’이라 불린다. ‘웃간장’의 ‘간장(間場)’은 대정현 관아의 八小場 간에 위치해 있음을 지칭하는 말이다. 분묘는 직경 100m 범위 내에 남북으로 나란히 3기가 배치되어 있다. 맨 위에 축조된 묘는 단독으로, 중간지점과 가장 아래의 묘는 2기가 겹쳐 있다. 맨 위 묘의 방향은 북동으로 20도 정도 틀어져 있고, 그 밑에 위치한 묘 2기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축조되어 있다.

맨 위묘와 맨 아래묘의 묘곽은 대형판석을 이용한 축조 방법이 서로 같으나 중간묘는 할석을 7-8단 평적하여 축조한 석곽묘이다. 모두가 3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2단에서부터 주곽(主槨)을 돌리는 곡장(曲牆) 형태의 여장이 만들어져 있다. 맨 위의 묘에는 대형상석이 놓여 있고 중간묘는 후대에 축조한 묘의 돌담으로 인해 알 수 없으며 맨 아래묘는 상석을 대신하여 碑座와 옥개석이 확인되었다. 또한 맨 아래묘의 2단 좌우 끝에는 문인석이 마주보며 서 있었으나 1967년까지는 2기가 마주보고 서 있었다. (강창화)



그림 1.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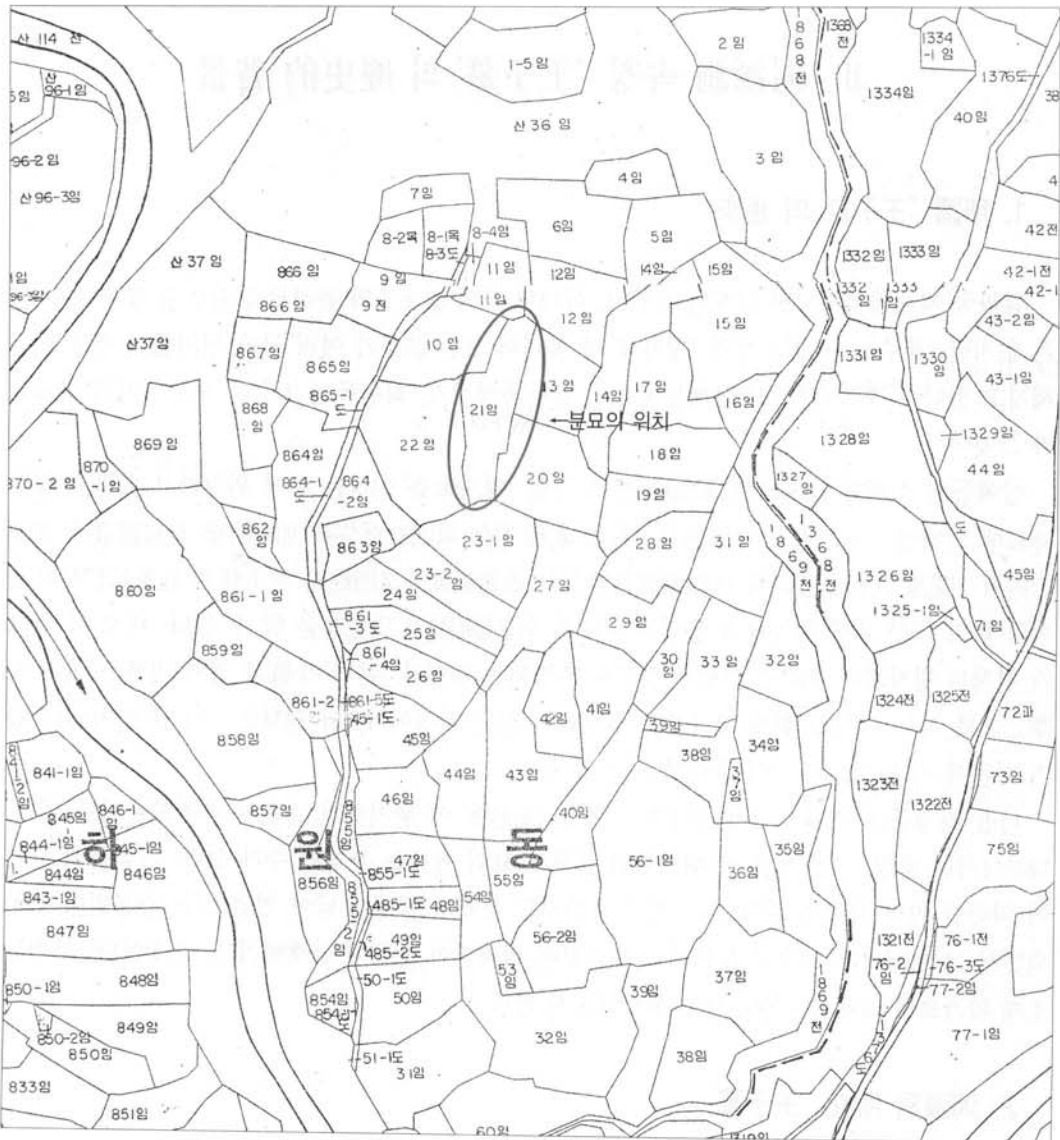


그림 3. 유적 주변의 지적도



사진 5. 하원동 고분군 전경

II. 河源洞 속칭 ‘王子墓’의 歷史的 背景

1. 所謂 ‘王子墓’의 由來

탐라국 지배세력이었던 왕자의 묘인지, 아니면 元의 梁王子와 관련된 분묘인지 정확히 알 길은 없지만, 제주도 내에는 소위 ‘왕자묘’라 불리어 오는 분묘가 여러 곳에 위치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¹⁾ 즉, 서귀포시 상예동에 1기, 강정동에 2기, 하원동에 3기 등 모두 6기의 왕자묘가 그것이다.

상예동에 소재한 왕자묘는 軍山峰 중턱 속칭 ‘왕자고을’이라는 田에 위치하고 있다.²⁾ 문헌 자료에 의하면, 「王子墓：弓山西有三方墓 階砌尙存 兩隅有白芍藥 加來村裡 有宮闕遺址 又軍山內有一圓墓 其石築甚固焉 按茲兩處荒墳久矣 蓋爲梁高夫文四姓而 居是邦者 宜不若惘然矣」³⁾이라 하여 군산 내에 왕자묘라 불리는 하나의 원묘(圓墓)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 원묘가 현재의 왕자묘라 불리는 무덤인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현재 이 圓墓 영역 내에는 「鄉大夫 李公之墓」라는 비석과 함께 묘 1기가 투장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 원묘는 그동안 방치되어 왔기 때문에 이 투장묘 주인이 관리해 오고 있다.⁴⁾

다음 강정동의 왕자묘 2기 중 1기는 속칭 ‘월산동’에 위치했던 方墓로 추정되는 분묘이며, 다른 1기는 속칭 ‘종백이왓’에 위치했던 분묘로 묘의 형태는 추정할 수가 없다. 古老들의 증언에 의하면 여러 차례 도굴된 채로 해방 후까지도 분묘의 형태가 남아 있었으나, 감굴원이 조성되면서 그 형태가 사라지고 분묘에 사용되었던 석축만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하원동 소재 왕자묘에 대해서는 別章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2. 河源洞 所在 ‘王子墓’

앞서 설명한 왕자묘 외에 서귀포시 하원동 ‘방애오름’ 북쪽에 ‘여가밭’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밭의 北端에 주민들에 의하여 소위 ‘왕자묘’라 불리는 분묘 3기가 위치해 있다.⁵⁾ 분묘가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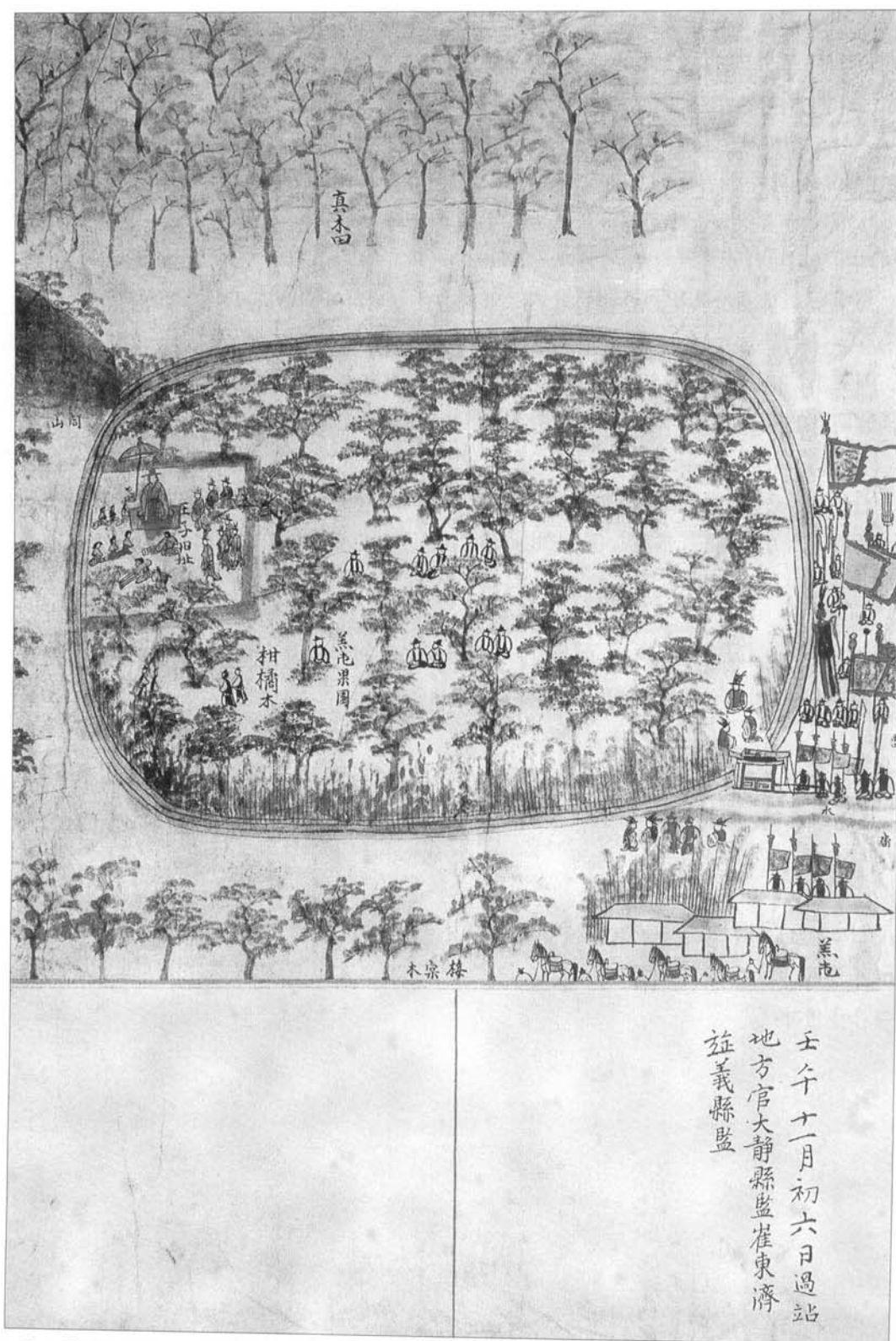
1) 이에 대해서는 일찍이 ‘南平文氏南濟公派宗門會’에서 여러 차례 현장답사를 실시해 확인한 바가 있다(南平文氏南濟公派宗門會, 『耽羅王子』, 제3호, 1997, pp. 15~19 참조). 필자도 同宗門會의 안내로 현장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외에 弓山 근처에 대왕묘와 軍山에 장군묘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소재를 확인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2) 현재 그 밭의 소유자는 오태전(현 안덕면 창천리)氏이며, 밭의 지번은 서귀포시 상예동 3539번지이다.

3) 李膺鎬, 『耽羅國書』

4) 투장묘의 주인은 서귀포시 하예동에 거주하는 李成好氏이다.

5) 이 묘를 ‘왕자묘’라 불리어 온 사실은 왕자묘 3기 중 맨 북쪽에 위치한 왕자묘 바로 북쪽에 있는 「處士吳公之墓」의 비문에서도 확인된다. 즉, 1967년에 건립된 비문이기는 하나, 묘소의 위치를 「河源境王子墳 北癸作之原」(단기 4300년 정미 정월 일 건립)이라 하여 앞에 언급한 3기의 묘가 ‘王子墳’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



치해 있는 곳은 주민들에 의해 ‘왕자골’이라고도 불린다.⁶⁾ 조선시대 이 곳은 牧馬場으로 8소장이 위치해 있었으며, 대정현에 소속되었었다. 따라서 당시에는 ‘間場’이라고도 하였다.⁷⁾ 현재 이 분묘가 위치한 임야는 정금선氏 소유로 되어 있다.⁸⁾

조사 이전까지만 해도 이 분묘는 여러 차례 도굴당하여 봉분이 완전히 해체된 상태로 있었으며, 분묘의 외벽에 위치하고 있는 석축만이 방묘였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분묘가 있는 묘역 내에는 곳곳에 투장묘들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왕자묘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문인석 1기가 머리가 잘려나간 상태로 놓여 있었다.

하원동 소재 왕자묘와 관련된 문헌 자료의 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사료 1) 「王子墓：在縣東四十五里 弓山兩川之間 三墓階砌尙存 兩隅有白芍藥 加來村裏 又有宮闕遺礎 疑是毛羅王所都處 俗傳山房爲第二徒云」(李源祚, 『耽羅誌草本』, 大靜縣, 古蹟).

사료 2) 「王子墓：在縣東四十里 弓山兩川之間 三墓階砌猶存 兩隅有白芍藥 加來村裡 又有宮闕遺礎 疑是毛羅王所都處也 俗云山房爲二徒」(『大靜郡邑誌』(內題：大靜郡古誌), 규 No 10799, 古蹟).

사료 3) 「王子墓：在縣東四十里 三墓階砌尙存 兩隅有白芍藥 又加來村裡 有宮闕遺址 疑耽羅王子所都處也 世傳山房爲二徒云」(金錫翼, 『心齋集』).

사료 4) 「王子墓：弓山西有三方墓 階砌尙存 兩隅有白芍藥 加來村裡 有宮闕遺址 又軍山內有一圓墓 其石築甚固焉 按茲兩處荒墳久矣 蓋爲梁高夫文四姓而 居是邦者 宜不若惘然 矣」(李膺鎬, 『毛羅國書』).

위 사료의 내용은 모두 사료 1)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다만 거리 상에 있어서 45리와 40리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모두 같은 곳 즉, 하원리 소재의 ‘왕자묘’를 지칭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6) 吳軍範(72歲), 서귀포시 하원동 거주.

7) 이러한 사실은 주위의 무덤 곳곳의 비문에서 확인된다.

8) 현재 서울 성북구 길음동 550-33번지 거주.

3. 耽羅 ‘星主·王子’의 王子墓 가능성

본래 성주·왕자란 칭호는 탐라국 군장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던 칭호를 宗主國(신라 혹은 고려)으로부터 승인 冊封받는 형식으로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⁹⁾ 그러나 문제는 왕자의 직을 계승한 성씨가 어느 성씨였는가 하는 점이다.

『星主高氏家傳』에 의하면 고려 태조대에 梁且美가 왕자를 역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로써 왕자직을 양씨가 계승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왕자직이 양씨에 의해 계승되었다는 사료를 『高麗史』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오히려 『高麗史』에 의하면 왕자직은 문씨에 의해 계승되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더구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문씨는 본래 복성현인이었는데 탐라에 들어와 고씨의 사위가 되었으며, 그 자손들은 고씨의 왕자직을 세습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문씨는 바로 남평문씨이며, 그 이후 제주에 세거한 문씨를 남평문씨 남제공파라 부르고 있다.

史書에서 확인되는 남평문씨 남제공파의 왕자직 역임자는 文昌祐,¹⁰⁾ 文昌裕,¹¹⁾ 文公濟,¹²⁾ 文臣輔,¹³⁾ 文忠輔,¹⁴⁾ 文忠甫,¹⁵⁾ 文忠世¹⁶⁾ 등이다. 이 외에 文承瑞가 왕자를 역임한 것으로 『南平文氏世譜』에 나타나 있으나 그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볼 때 탐라국 지배세력이었던 성주·왕자에서 왕자는 적어도 고려후기에서 조선초까지는 文氏 氏族이 계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속칭 ‘왕자묘’가 탐라국 지배세력을 의미하는 성주·왕자의 “왕자묘”를 의미한다면, 이는 文氏 氏族과 관련된 분묘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하원리의 속칭 ‘왕자묘’가 최근까지 고씨 집안에서 관리해 온 것으로 보면,¹⁷⁾ 이 분묘와 高氏 집안과 일정한 연관이 있지 않았나 싶다. 즉, 文忠傑의 사위가 高鳳禮¹⁸⁾임을 감안하면 이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왜 이 분묘가 外孫인 고씨 집안에서 관리되어져 왔을까?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1601년의 소덕유·길운절 역모사건인 소위 ‘文忠基亂’¹⁹⁾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으로 折衝將軍 文忠基(당시 42세) 등 총 23명이 서울로 압송되어 심문

9) 文暉鉉, 「耽羅國 星主·王子考」, 『龍巖車文燮教授 華甲紀念 史學論叢』, 신서원, 1989, p.261.

10) 金錫翼, 『心齋集』(影印, 도서출판제주문화, 1990).

11) 『高麗史』충렬왕 20년, 11월 경술.

12) 李元鎮, 『耽羅誌』, 건치연혁.

13) 李元鎮, 『耽羅誌』, 건치연혁.

14) 『東文選』, 「星主高氏家傳」.

15) 『太祖實錄』권8, 태조 4년 7월 갑진.

16) 金錫翼, 『耽羅紀年』, 권2, 태종 2년.

17) 高正弼 氏(제주시 용담 1동 159번지)의 증언. 그에 의하면 선친 때까지 하원리 소재 왕자묘에 대한 별초 등을 행해왔다고 한다.

18) 탐라의 마지막 성주로 그가 죽자 태종은 종이 150권과 燭 10자루, 쌀과 콩 40석, 棺槨을 하사하였다.

19) 제주도민에게는 소덕유·길운절 역모사건이라는 것 보다는 탐라국 왕자의 후예였던 文忠基 등이 깊이 개입되고 있어서 소위 ‘文忠基亂’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을 받고, 문충기를 비롯한 11명이 사형당하였다.²⁰⁾ 그리고 이항복이 제주의 특수성을 들어 그 부당성을 지적함으로써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조정에서는 濟州 降號를 논의하기도 하였다.²¹⁾ 소위 ‘文忠基亂’은 관련자 후손들에 대한 연좌제가 강하게 적용되는 등 제주 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가져왔다. 따라서 그후 제주사회에서 남평문씨들이 몰락됨으로 인하여 외손에 의해 이 분묘가 관리되어져 온 것은 아닐까?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면 이 분묘와 남평문씨와의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梁王의 王子 伯伯太子墓 가능성

일찍이 김태능은 하원리 소재 왕자묘에 대하여 원 순제의 피난궁전지를 언급하면서 원 황실의 후손, 즉 梁王의 왕자 백백태자의 墓일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즉,

“法華寺 東北方 2km 地點에 王子墓라는 獨特한 墓型의 古墳이 있는데 이 墓가 濟州土官職이었던 「星主 王子」의 王子墓가 아니고 太宗 4年에 濟州에서 謫死한 梁王의 王子 伯伯太子의 墓所를 地方人들이 오랫동안 내려오는 동안에 잘못 口傳된 것으로 생각한다.”²²⁾

라 한 바와 같이, 하원동 소재의 왕자묘는 백백태자의 墓로 지방민들에 의해 성주·왕자의 왕자묘로 불리워지고 있는 것은 구전되는 동안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당시 현장을 답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墓所의 外觀은 玄武岩을 잘 다듬어서 熟石板을 만들어 墓의 前後左右를 緻密하게 封하여 護石으로 하였고 墳上에는 塼가 덮혀 있었다. 墓의 東西側은 南北 거리가 約 11尺인데 各各 5枚式의 護石으로 封했고 前後面의 동서 길이 즉, 幅은 9尺가량인데 여기는 2枚 혹은 3枚의 넓은 石板을 護石으로 썼는데 護石의 높이는 모두 一定하여 地上에서 約 2尺 가량이며 五百年이 넘은 듯한 墓所이나 護石들은 그리 어긋나지는 아니했었다. 墓는 南向판이며 墓의 前面에는 東西의 幅이 40尺이나 되는 넓은 墓庭으로 되어 있고 墓에서 6尺거리 前面에는 東西四十尺 기장에 一列의 粗面岩熟石의 경치 돌들이 깔렸는데 粗雜한 玄武岩石이 間間 代置된 것이 있는 것은 쓸모 있는 돌이므로 盜取當한 것인 듯하다. 또 경치돌 앞에는 가로가 9尺 가량 되는 더 넓은 墓庭으로 되었는데 東西 兩側에 粗面岩으로 彫刻된 約 3尺 높이의 文官石像이 한 개씩 서 있다.

이 石像은 긴 笏을 잡고 너홀거리는 듯한 冠服에 冠帶까지 띠었으며 손가락과 冠服 소매 주름이 섬세하고 부드럽게 彫刻되었고 머리에는 감투와 같은 冠을 쓴 듯하나 破損되어 原形은

20) 『宣祖實錄』, 선조 34년, 8월 정묘, 무진.

21) 『宣祖實錄』, 선조 34년 8월 임오.

22) 金泰能, 「元順帝의 避難宮殿址와 伯伯太子의 墓」, 『제주도』 31, 제주도청, 1967, p.191.

분명치 않으나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文官石像의 冠과는 그 모양이 다른 듯이 보였다.

墳上은 유감스럽게도 盜掘을 當하여 많이 패여 있었고 壙中에서 꺼낸지 오래 되지 않은 듯한 1尺平方餘의 石板이 東側護石 밑에 내던져져 있는데 盜掘作業을 한 形跡으로 보아 壙中은 墳上에서 깊지 아니한 듯하며 墓所의 北쪽 兩隅에는 百日紅 나무 두 株가 서 있다.”²³⁾

당시의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 그리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문인석 2기 중 1기는 현재 제주도 민속자연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墓廷에 남아 있는 문인석 1기는 목이 찢려 나간 채 세워져 있다.

元을 멸망시킨 明이 제주도를 원 황실 가족의 거주지로 이용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²⁴⁾ 즉, 명의 태조는 1381년 원의 세력으로 끝까지 남아 항거하고 있던 雲南을 정벌하고, 1382년 4월에 운남왕 把匝剌瓦爾密의 威順王子 伯伯(일명 伯伯太子, 拍拍太子)과 백백의 아들 六十奴 등 그의 가족을 모두 탐라에 유배시켰다. 그리고 명은 1388년 北元을 정벌할 때 귀순해 온 達達親王 등 80여 호를 탐라에 유배시키기 위해 고려로 하여금 거처할 곳을 마련해 달라고 하니, 고려에서는 85棟의 집을 마련하였다. 또 명은 1389년에 梁王의 子孫 愛顔帖木兒 등 4명을 제주에 보내어 백백태자 등과 함께 거주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고려말에 원의 황실 가족이 많이 제주에 유배되었으며, 그보다 앞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원에서 탐라에 목수를 파견하여 원의 피난 궁전을 건축하려 했던 점들을 고려할 때 원의 황실 가족이 많이 거주했던 것은 분명하다.

六十奴는 1391년(공양왕 3)에 사망하였고, 백백태자는 1404년(태종 4)에 사망하였으며, 백백태자의 처는 1444년(세종 26)까지 생존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백백태자의 처는 그후 얼마 없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모두 탐라에서 사망하였음을 감안할 때, 이들 또는 제주에 유배되었던 元室家族의 무덤들이 제주에 남아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원리 3기의 무덤이 백백태자, 그의 아들 육십노, 백백태자의 처와 관련된 무덤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전)

23) 앞의 논문, p.192, 193.

24) 高昌錫, 「元室家屬의 流配」, 『濟州道誌』 1권 역사편(제주도청, 1993), p.791~794.

Ⅲ. 조사 경위와 경과

조사대상지는 서귀포시 하원동 21번지 일대로 시굴조사된 면적은 300평(920㎡)이다. 조사기관은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와 제주대학교박물관이 병행하였고 문헌조사는 고창석(제주대학교교수,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운영위원장)이 팀장을 맡고 김동전(제주대학교사학과교수)이 참여하였다. 발굴은 강창화(제주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원)가 팀장을 맡고 강동선, 이상미(제주대학교박물관 조교), 김진희, 강미정(제주대학교박물관 조사보조원)이 같이 조사에 임했다.

이 발굴 조사는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다. 제주도청 문화체육과의 문화예술과장, 문화재계장, 김명철 문화재 실무담당자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있었고, 南平文氏宗門會 회장 외 여러분이 찾아와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었다. 특히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운영위원인 홍순만(도문화재위원), 김봉옥(도문화재위원), 강만생(한라일보논설위원), 박찬식(제주대강사)등이 현장을 방문하여 도움 말씀이 계셨다. 또한 해당 봉분 바로 앞에 있는 후대 묘역을 다소 포함시켜 발굴 조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南平文氏宗門會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이 조사는 1998년 12월 4일부터 1999년 4월 25일까지 진행하였다. 원래는 2월 25일까지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묘역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수습조사 차원에서 본격적인 시굴조사로 전환하였다. 1999년 3월 15일에 발굴조사허가를 받아 조사에 임했다.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다음의 내용과 같다.

① 1998년 11월 중순, 현장을 답사하여 심하게 도굴된 현상을 보고 이에 대한 시급한 발굴 조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더불어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의 일환으로 제주지방의 묘제연구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예상하에 11월말경 재차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수습조사가 이루어졌는데, 12월 4일부터 진행하였다.

② 1998년 12월 5일에서 6일간은 봉토 주변과 '웃간장' 일대에 대한 지형측량을 실시하였고, 유적 중심부에 기준점과 해발고도를 225.00m로 설정하여 모든 조사 Level을 맞췄다. 분묘 3기는 모두 남북으로 길게 이어지는 능선상에 위치해 있었고 1호분에서 3호분까지의 길이는 84m였다. 1호분과 윗 단의 3호분과의 높이 차는 10.2m이다. 1호분 묘역내에는 일반묘가 1기 자리하여 있었고 도굴시 퍼놓은 흙더미가 석곽 북동편에 쌓여 있는 상태였다. 이 묘역의 아랫쪽(남쪽)에는 일설에 말무덤이라고 전하는 묘와 유연 분묘 1기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다. 판석형 1호분과 할석판축형 2호분의 관계는 2호분의 축대가 1호분의 북편축대를 덮고 있어 후축(後築)사실을 알게 한다. 2호분의 묘역 중간에는 김씨묘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 후대묘의 축조시 2호분의 전면 곁을 의지하여 산담을 만들었다. 2호분과 맨상단의 3호분은 17m가 이격되어 축조되어 있었다. 이 두 개의 묘역사이에는 또 하나의 후대묘역이 자리하고 있으며 3호분의 남쪽석렬과 맞닿아 있다. 3호분의 북쪽석렬은 1967년에 축조된 오씨묘역이 남쪽묘역을 파괴하였다.

③ 1998년 12월 12일부터 1999년 2월 20일까지 제1호분·2호분·3호분에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제1호분부터 3호분까지 모두 3단축대를 쌓아 축조되어 있었고 특히 1호분의 경우는 문인석과 상석을 두었으며 제1단계단축대와 제2단계단축대는 경사면을 매립하여 만들어졌음이 확인되었다.

④ 1999년 2월 25일 현장을 1차로 철수하였다. 현장을 수습조사한 결과 이 묘는 제주도의 유력 집단의 묘가 분명하여 현 단계의 조사로는 묘의 성격을 파악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결국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정식조사에 임한 것은 1999년 3월 20일부터이다.

⑤ 1999년 3월 20부터 4월 20일까지 전체 3기의 분묘에 대한 정식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3호분에서 청동제긋편과 화폐, 철제관정이 출토되었고, 2호분에서는 아주 미세한 인골편이 소량 수습되었다. 1호분에서는 비석좌대와 옥개석이 출토되었으나 비신(碑身)은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제사를 지냈던 분명한 증거인 석재 등잔대가 좌대를 경계로 앞면 좌우에 놓여 있었다.

⑦ 1999년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전체 유구에 대한 평면실측 작업과 레벨 작업을 실시하여 도면을 완성하였다. 4월 30일부터 1주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⑧ 1999년 5월 7일 장비를 점검하고 현장을 철수하였다. (강창화·이상미)



사진 6. 하원동 고분 주변 전경 항공촬영

IV. 조사 내용

1. 조사방법과 진행개요

1) 조사방법

조사대상지내의 소나무와 기타 잡목을 제거하고 난 후 발굴대상지 중심지점에 기준점(D.P.)을 설정하였다. 기준점의 해발은 225.00m로 정하였다.

시굴조사는 3기의 분묘를 대상으로 묘곽을 관통하는 길이 10m, 폭 1m의 트렌치를 길게 넣고 사전 탐색하였고 각 묘의 판축 상태를 파악하고 난 후 각 해당 묘에 구체적인 노출·윤곽작업을 실시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실측조사와 사진 촬영 작업을 수시로 하였다.

2) 진행 개요

‘웃간장’ 일대의 조사 대상 분묘는 모두 3기이다. 이 분묘 3기는 모두 남북으로 길게 이어지는 능선상에 위치해 있다. 1호분에서 3호분까지의 총 길이는 50m이다. 1호분의 축조된 등고높이와 3호분과의 높이 차는 10.2m이다.

1호분 묘역 내에는 일반묘가 1기 자리하여 있었고 도굴시 퍼놓은 흙더미가 석곽 북동편에 쌓여있는 상태였다. 이 묘역의 제1단 석축 밑에는 일설에 ‘말무덤’이라 전하는 묘와 유연 분묘 1기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다.

1호분과 능선 중앙에 위치한 2호분의 관계는 주변 석축에의 축조상태에서 관찰된다. 즉 2호분의 축대가 1호분의 북편축대를 덮고 있어 1호분이 후축(後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호분의 묘역 중간에는 김씨묘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 후대묘의 축조시 2호분의 앞쪽 석곽 벽을 의지하여 산담을 만들었다. 따라서 이번 발굴에서는 2호분의 전체 석곽 실측이 불가능했다.

2호분과 맨상단의 3호분은 17m가 이격되어 축조되어 있었다. 이 두 개의 묘역사이에는 또 하나의 후대묘역이 자리하고 있다. 이 후대 묘역은 3호분의 남쪽석렬과 맞 닿아 있다.

3호분은 대형 판석을 2~3장씩 사용하여 만든 대형 묘이다. 이번 발굴에서 가장 많은 유물이 출토된 분묘는 3호분이다. 이 묘역 역시 1967년에 축조된 오씨묘역이 북쪽 석축 묘역을 파괴하였다.

이 능선의 모든 묘역은 개별적으로 3단 구성되어 있었다. 지형에 맞게 1단 축대가 2단과 3단보다 낮게 조성되어 있었다. 묘역내의 석물배치는 1호분의 경우 문인석을 제2단에 두고 제3단 석곽전면에 상석을 두었다. 1호분의 제1단 석축은 축대를 쌓듯 경사면을 모두 매립하여 수평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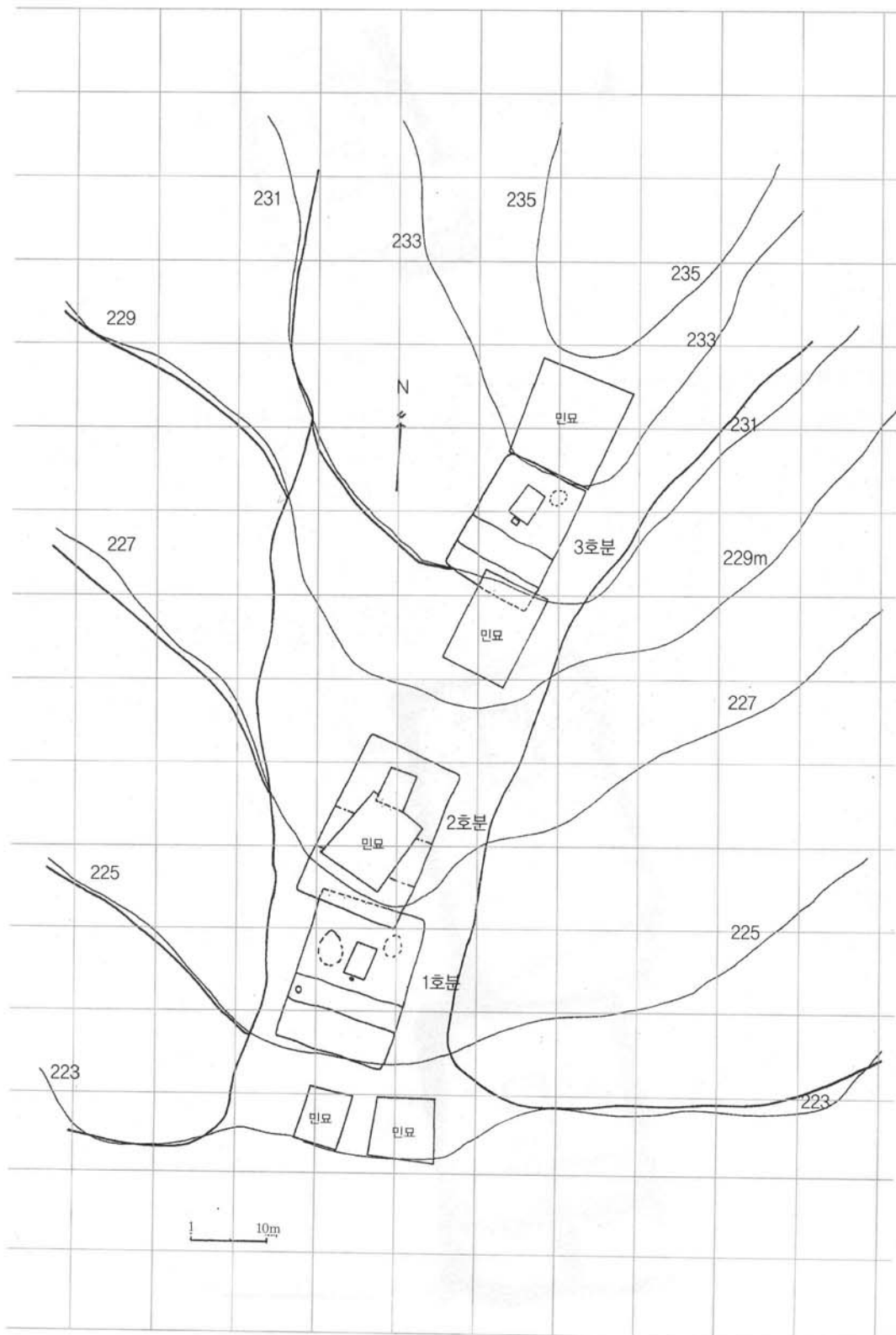


그림 5. 하원동 고분 일대 지형 측량도(한칸의 크기는 10m×10m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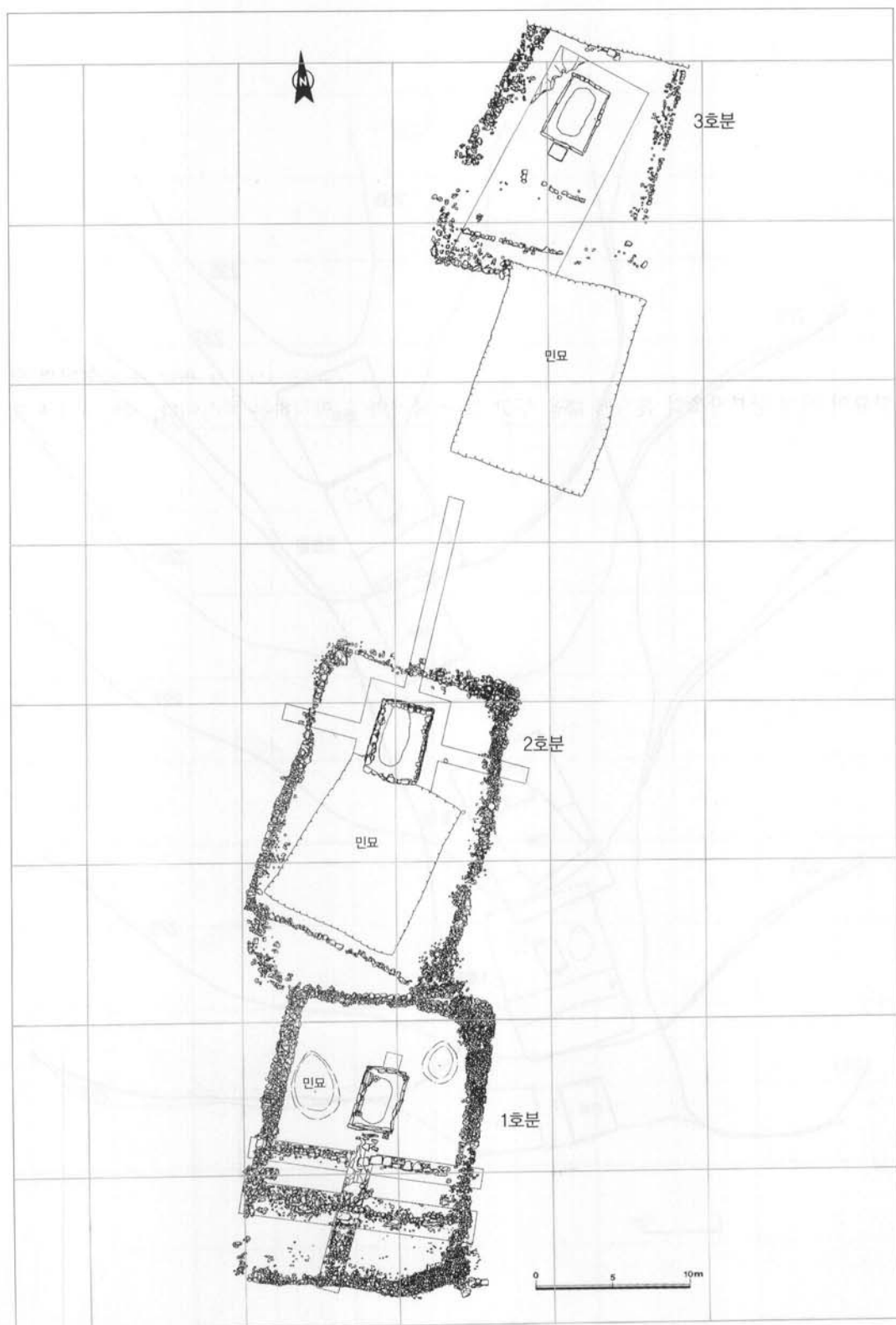


그림 6. 하원동 분묘 배치도

로 만들어졌음이 확인되었다.

2. 遺 構

前述한 바와 같이 가장 남쪽(아랫단)에 위치한 분묘부터 북으로 올라가면서 분묘의 해당 호수를 부여하였다. 가장 아랫쪽인 남쪽에 위치한 묘를 1호분, 가운데 위치한 묘를 2호분, 맨 윗쪽인 북쪽에 위치한 묘를 3호분이라 명명하였다.

가. 1호분

1호분은 앞으로 기술할 3기의 분묘 중에 가장 잘 만들어진 묘이다. 이 묘는 크게 장방형 돌담묘역 안에 남북장축의 長方形 槨을 두고 그 안에 木棺을 안치하는 형식이다. 장방형의 묘역 안에는 등간격으로 여러 가지 석물이 배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3단구성의 계단 시설안에 현재는 2단계 문인석 1기와 3단인 묘곽 앞에 소형의 碑座가 확인되었다.

1) 墓槨의 築造

(1) 외부석곽

이 석곽은 모두 전면(남)에 3枚, 후면(북)에 2枚, 양측면에 5枚, 총 15枚의 多孔質玄武巖製 板石으로 짜여진 남북 장축의 長方形石槨이다.

면을 깨끗이 다듬은 점판암 판석을 맨밑단에 받침돌로 깔고 나서 그 위로 잘 다듬은 현무암제 판석을 세로로 맞춰 세워 곱을 축조하였다. 석벽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받침돌과 석벽판석 사이에 잔 자갈을 끼워 넣었다. 세워진 중심 석곽 위로 다시 판석을 경사지게 봉토위에 얹었다. 현재는 대부분 유실되어 4매만이 남아 있다. 석곽면은 외벽이 수평과 마감이 잘 되어 있으나 내벽은 거친 자연면 그대로다.

먼저 남쪽의 석곽면은 3매가 나란히 짜 맞추어져 있으며 밑에 점판암제 받침석을 앞쪽 열이 맞도록 나란하게 석렬로 敷石되어 있다. 이 부석 석렬은 석곽렬보다 앞으로 20~30cm가량 나와 있다. 1914년 日人에 의해 도굴될 당시의 사진에 의하면 남쪽 오른쪽 1매 판석이 위아래가 바꾼채로 이탈되어 있었다. 그 당시 복원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중앙과 왼쪽에 세워진 석곽은 틈새없이 맞춰져 있으나 중앙과 오른쪽 석곽은 틈새가 벌어져 있다. 남쪽 석곽의 각 제원은 오른쪽이 64×84×16cm, 중앙석이 106×84×15cm, 왼쪽이 72×84×16~18cm이다. 전체 남벽의 길이는 310cm이다. 치석하여 정다듬질 할 당시부터 석재의 높이를 84cm로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석재의 가공기술이 뛰어난 장인에 의해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서쪽 석곽은 5매로 이루어져 있다. 동쪽으로 바라볼 때 맨 오른쪽 것이 75×80×20~24cm, 다음이 65×80×18~24cm, 중앙이 65×80×24~30cm, 그 다음이 68×80×18~25cm이고 맨 왼쪽의 1매는 2중으로 올린 석재이다. 그 중 석재는 아래가 85×42×24cm, 그 위가 8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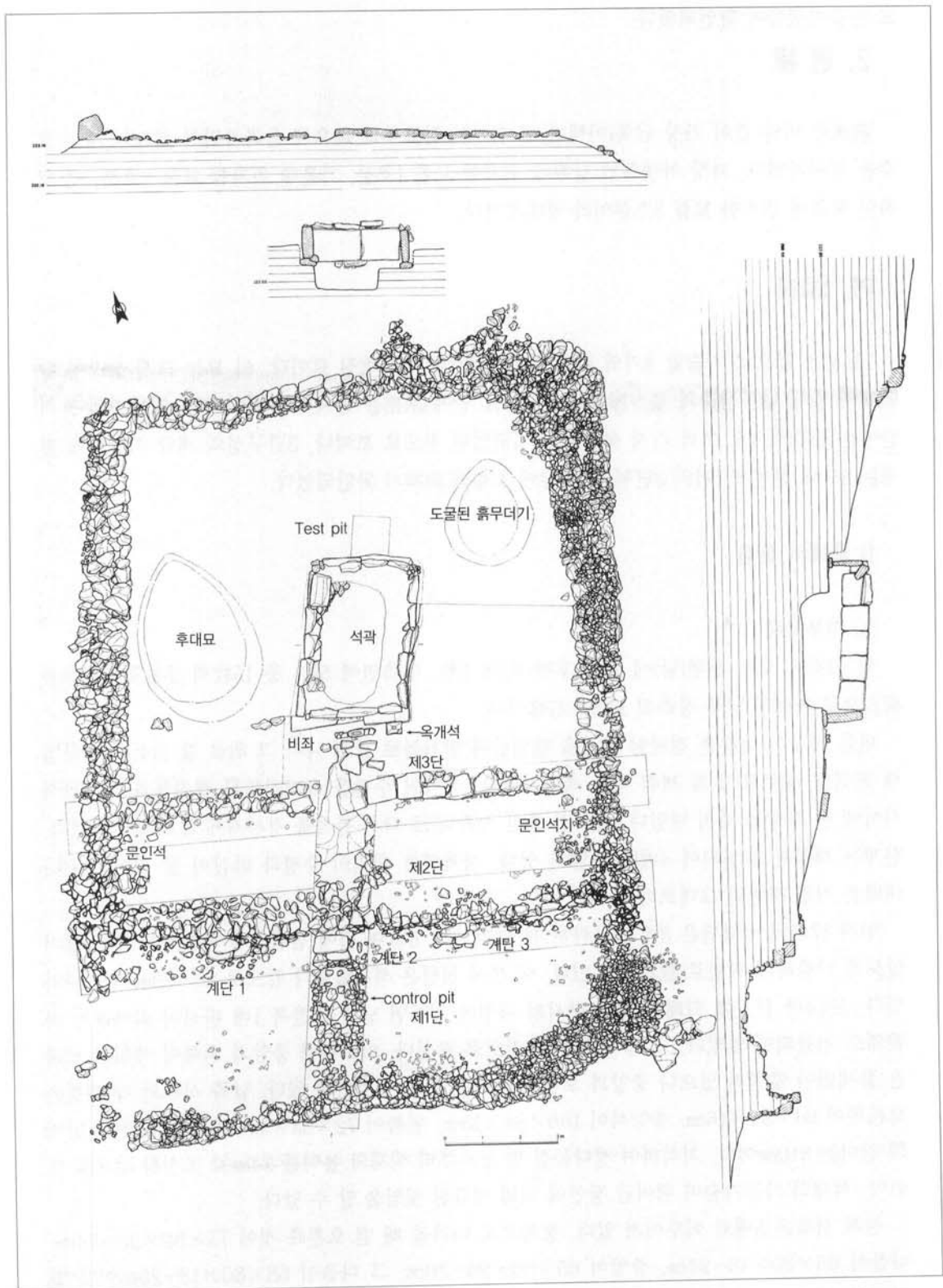


그림 7. 하원동 1호분 실측도



사진 7. 하원동 1·2호분 중복 상태



사진 8. 하원동 1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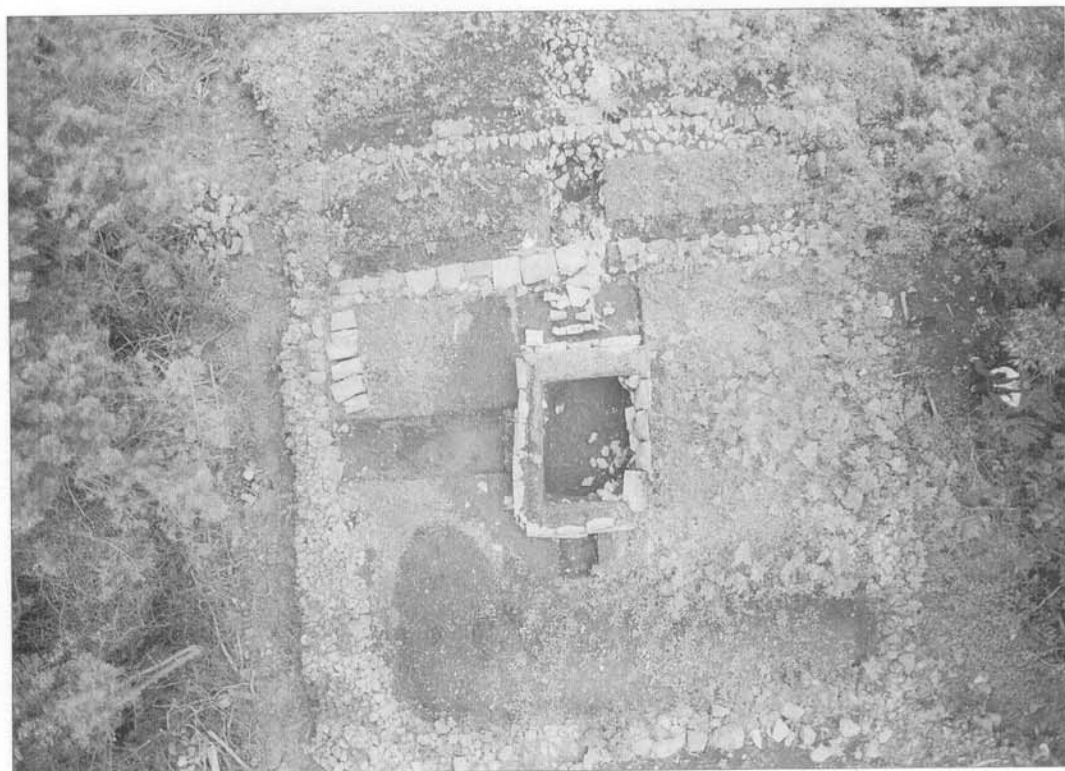


사진 9. 하원동 1호분



사진 10. 하원동 1호분 세부

18cm이다. 위의 석재는 원래자리가 아니라 도굴시 이동되었던 것이 새로 복원되는 과정에서 다른 석재가 옮겨진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서벽의 길이는 438cm이고 평균 높이 80cm이다. 남벽에서 서벽으로 꺾이는 모서리 부분은 작은 할석이 2매가 끼워져 있다.

북쪽 머리편 석곽은 정교하게 정다듬된 판석 2매로 이루어져 있다. 오른쪽 1매는 135×81×14~17cm이고 왼쪽 석재는 104×80×16cm이다. 오른쪽 판석이 대형이다. 석곽렬 하단으로 점판암제 할석형 부석이 놓여 있으며 그 축조방법은 남쪽 석곽렬과 같다. 석벽의 전체길이는 294cm이고 평균 높이는 80cm이다. 아랫쪽보다 5cm정도 높이 차가 난다. 그것은 경사면을 이용하여 전체 석곽의 상면을 맞추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치석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분묘를 축조할 지형을 알고 장인이 석재의 높이 차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벽과의 연결 모서리는 잡석이 3매가 엉성하게 끼워져 있다. 서벽 왼쪽벽석이 흔들리면서 파손된 흔적이 뚜렷하다.

동쪽 석곽은 5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부위는 전혀 흔들리지 않은 축조 당시 그대로 인 것으로 판단된다. 서쪽으로 바라다 볼 때 오른쪽이 71×82×16~26cm, 다음이 63×83×17~24cm, 중앙이 60×85×18cm, 그 다음이 72×84×15~24cm, 맨 왼쪽 석재가 67×83×23cm로 중앙 석재가 2cm정도 높다. 전체 길이가 408cm이고 높이가 83~85cm이다. 받침석렬이 석곽 석렬 밑으로 5~7cm가량 나와있으며 곧추세우기 위한 보강용 자갈돌이 사이에 끼워져 있다. 이 부분에서 전체 석곽을 파들어간 掘壕線이 확인되었다. 석벽에서 30cm정도 떨어져서 확인되었다. 이 부분은 완벽하게 석벽사이에 틈새없이 맞추어져있다.

이러한 석곽의 전체규모를 보면 남북 장축이 432cm이고 동서단축이 304cm이다. 석곽의 높이는 받침석을 포함하여 95~100cm, 석곽만은 80~85cm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약간의 토광을 파고 자연면을 다져 받침석렬을 축조하고 동시에 석곽석재를 맞추어 배치하는 방법으로 장방형 곽을 축조하였다.

(2) 봉토

봉토는 석곽 안으로 만들어져 있어 方臺形 봉토분으로 여겨진다. 도굴이 심하여 봉토정상부의 상태는 알 수 없으나 석곽의 레벨보다 30~50cm정도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높이 추정은 내부 단면토층에서 확인된다. 봉토에 사용된 흙은 주변에서 채취한 흑갈색부식토인 것으로 여겨진다.

(3) 내부층위

조사결과 내부 층위는 크게 위에서 ①표토층-②황갈색점질토층-③잡석층-④황색점질토층(1)-⑤황색점질토층(2)-⑥목탄층-⑦모래층-⑧암반풍화토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① 표토층: 이 층위두께는 8~14cm이다. 잔디가 이식되어 있고 일부는 도굴 당시 퍼올린 흙이다.

② 황갈색점질토층: 이 층위의 두께는 14~32cm이다. 목관을 안치하고 난후 점성이 있는 황갈색토를 채질하여 다져놓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층위는 상부에서 짓눌린 흔적이 확인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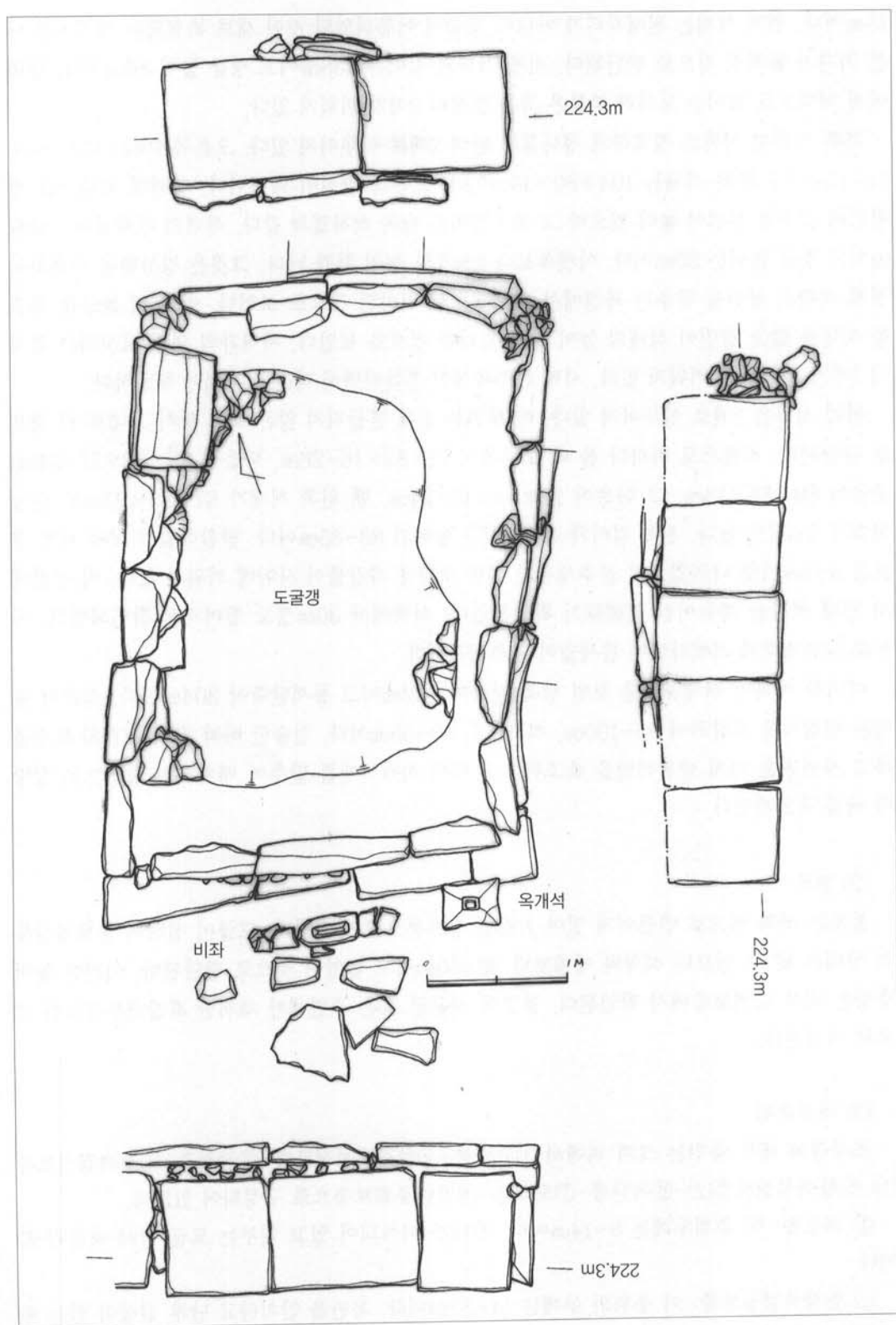


그림 8. 하원동 1호분 석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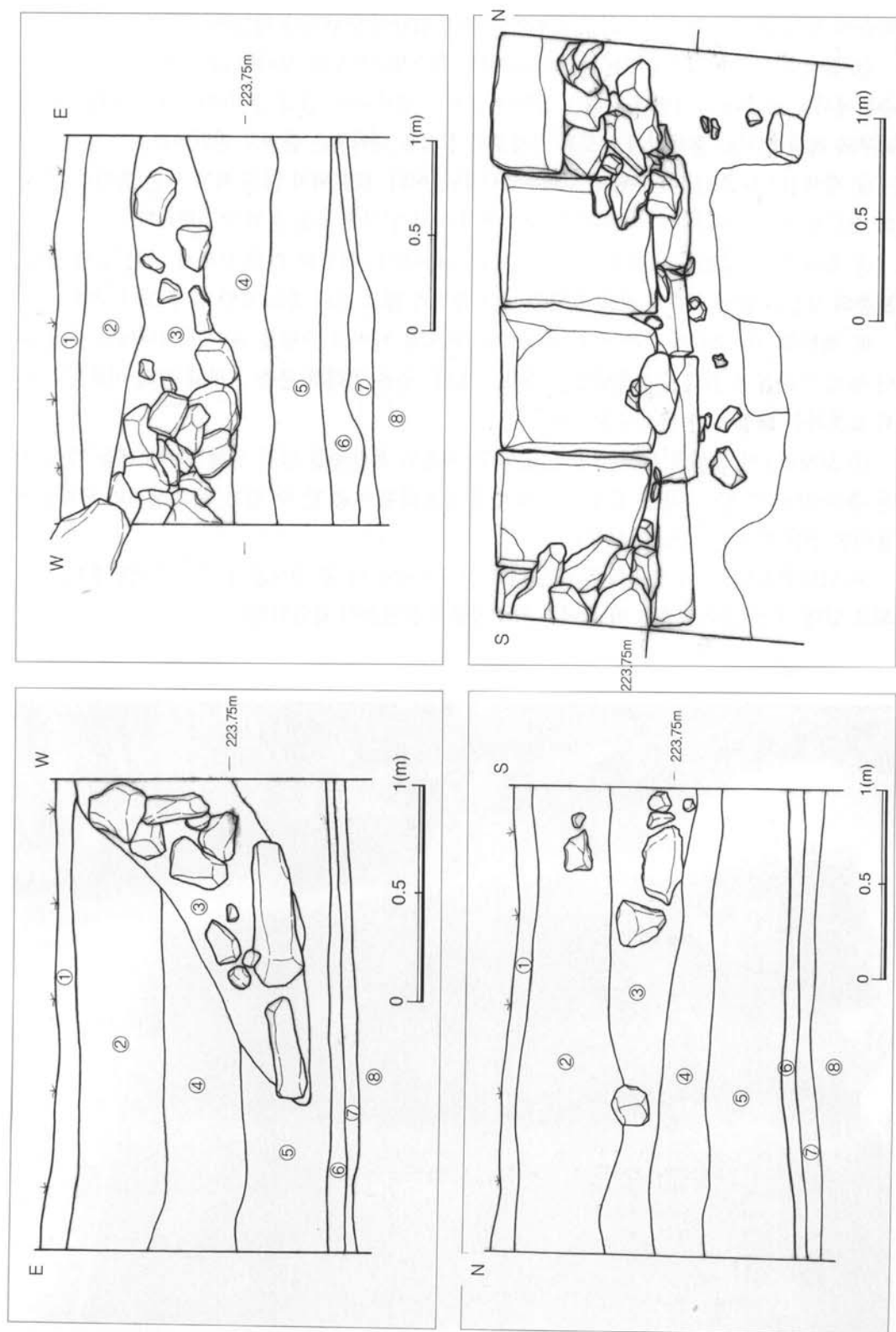


그림 9. 하원동 1호분 내부 총위

하층에 거의 모든 층위가 부드러운 층위이나 이 층위만이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다.

③ 잡석층: 이 층위의 두께는 26~67cm이다. 흑갈색부식토와 잡석이 混入된 무른층이다. 이 층위에서는 목관이 자리했던 부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남쪽 층위에서 보는 바와같이 석곽부와 목관이 서로 흔들리지 않도록 보강토와 잡석을 채워놓은 층위로 판단된다.

④ 황색점질토층(1): 이 층위의 두께는 19~48cm이다. 精製되지 않은 매우 무른 흙이다. 소량의 소토가 혼입되어 있으나 대부분 한 장소에서 파서 일시에 부은 흔적이 뚜렷하다.

⑤ 황색점질토층(2): 이 층위의 두께는 27~34cm이다. 목탄과 회색 모래가 약간 섞여 있다. 토층의 성질은 앞서 윗층과 같으나 윗층 보다 습기가 많고 흙의 정도 또한 윗층 보다 낮다.

⑥ 목탄층: 이 층위의 두께는 4~19cm이다. 바닥을 다지고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서 숯을 깔아 놓았기 때문에 거의 수평층위를 유지하고 있다. 숯은 벌레와 곤충 그리고 기타 이물질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⑦ 모래층: 이 층위의 두께는 3~14cm이다. 윗층인 목탄층을 깔기 위해 회색모래를 깔아 놓은 층위이다. 모래는 수평을 유지하는 데 매우 양호하게 이용 할 수 있고, 습기제거와 물빠짐에 용이한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⑧ 암반풍화토층: 이 층위의 두께는 매우 불규칙하며 이 층 밑으로 본격적인 암반층이 연결되고 있다. 무른 풍화토층을 파 들어가 관시설을 만들었음이 확인되었다.



사진 11. 하원동 1호분의 내부 토층

(4) 토광과 목관

토광은 목관 축조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먼저 토광선은 외곽인 석곽을 만들기 위한 큰 테두리 굴광선과 목관을 안치하기 위한 굴광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석곽을 안치하기 위한 굴광선은 현재의 석곽 범위보다 약 20~30cm가량 넓게 확인되고 있다. 이 토광선의 크기는 460×360cm 이고 깊이는 30cm 내외이다. 토광 바닥면을 다진후에 점판암제 할석을 부석하고 그 위로 현무암제 판석을 곧추 세워 열을 맞추었다. 석곽의 바깥면은 모두 정다짐질하여 매끈하나 안쪽면은 몇 군데를 치석하였을뿐 정제되지 않았다. 석곽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부석과 석곽 석재 사이에는 작은 돌을 끼워 곧바로 세우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외부토광 안쪽으로 목관을 안치하기 위해 깊이 1m, 크기 320×140cm 정도로 내부 토광을 만들었다. 도굴이 심하여 목관의 크기는 알 수가 없다. 현재 석곽 안쪽의 목관자리는 거의 대부분이 파괴된 상태이다. 분명한 것은 목관의 크기가 3m를 넘지않으며 목관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석곽과 목관 사이에 잡석을 끼워 넣은 것으로 판단된다.

(5) 유물출토상황

석곽 내부에서 확인되는 출토유물은 없다. 이미 도굴로 인해 유물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되며 도굴된 범위는 전술한 바의 목탄층과 모래층까지 파 들어갔다. 「국박 유리원판도록」 가래천변 장군층 출토유물(유물번호, 140099·140100)중 백자류가 이곳에서 출토된 것으로 판단된다. 석곽 동쪽 제3단 계단 시설 상부에서 도기병의 정부편 1점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석곽 내부에서 확인된 관정은 없다.

2) 墓域의 築造

주곽의 테두리를 돌린 묘역은 장방형꼴로 크기는 21×15m이다. 묘곽은 주곽 앞으로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단 석축은 1.8m 높이의 석축시설을 만들었고 경사진 자연면 전체를 막돌 쌓기로 쌓아 다졌다. 2단은 70cm의 높이로 1단 석축시설과 같은 방법으로 축조하였다. 제3단은 30cm 높이로 전자의 축조방법과 같다. 제3단 석축시설은 曲牆의 역할을 하며 이 석축의 끝부분은 하원동 2호분과 맞물려 있다. 2호분의 전면석축이 1호분의 후면석축을 덮고 있다.

(1) 석축매립시설

① 제1단 석축

제1단 석축의 규모는 동서 16m, 남북 5m이다. 동편 석축의 높이가 2.2m, 서편석축의 높이가 1.7m로 동쪽이 다소 올라와 있다. 석축의 축조상태를 알기 위한 테스트핏트 조사에서 직경 30cm 이상의 대형 잡석을 밑단에 깔고 직경 20cm 내외의 잡석을 윗단에 무질서하게 깔아놓았다. 따라서 레벨차가 나는 아래쪽에서 바라보면 거대한 계단식 봉분으로 보이도록 조성하였다.

② 제2단 석축

제2단 석축의 크기는 동서 15m, 남북 3.5m로 제1단 석축 보다 폭이 좁게 축조되어 있다. 2단석축의 축조방법은 1단석축과 동일하다. 제2단 석축의 도입부에는 3개의 계단시설이 놓여져 있다. 석축 도입부의 석렬이 크고 작은 할석으로 맞추어진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이 계단석축렬은 잡석을 이용하여 밑단을 정리한 후 이중으로 축조되어 있다. 2단석축부의 서편에 치우쳐 석축보다 한단 높은 曲牆이 시작되어 동편 석축부에서 끝을 맺는다. 서편에 치우쳐 문인석 1기가 놓여있고 동편에는 문인석 자리만이 남아있다. 원래는 2개의 문인석이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③ 제3단 석축시설

3단석축부는 전면이 동서 14.5m, 후면이 14m로 전면이 넓고 후면이 좁아드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3단석축부의 계단석렬은 대형판석을 사용하여 축조되어 있는데 판석의 평균크기는 1m이다. 계단시설의 높이는 50cm 정도이며 판석렬을 지탱하기 위한 받침석은 잡석을 사용하여 이중으로 축조되어 있다. 따라서 전체의 묘역상태가 정확히 말하면 장방형꼴에서 말각된 마름모꼴을 취하고 있다. 이 곳은 매립부가 아닌 원래 높은 후면을 平削하여 석곽을 중앙에 축조하였다. 경사도는 5도내외이다. 현재 3단석축부의 동편석렬이 후대의 묘역에 의해서 교란된 상태이며 중앙에 6개의 판석렬이 양호하게 남아있다. 중앙 계단석에서 2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전면석곽이 축조되어 있다. 그 사이에 碑座와 갓석이 놓여있고 비좌 앞으로 대칭되어 돌등잔이 놓혀진 상태로 확인되었다.

(2) 여장용 돌담

여장용돌담은 석곽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데 2단석축부의 서편에 치우쳐 석축보다 한단 높은 曲牆이 시작되어서 동편 석축부에서 끝을 맺는다. 여장은 할석과 잡석을 이용하여 80cm 정도의 높이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 12. 하원동 1호분 석축과 석곽

(3) 계단시설

제2단석축의 도입부에는 3개의 계단시설이 놓여져 있다. 맨 동편의 계단은 동쪽끝에서 4m가 이격되어져 있고, 동편의 계단시설은 동쪽석축부에서 4.5m가 안으로 들어와 있다. 이 두 개의 계단시설 정중앙에 3m의 간격을 두고 중앙계단시설이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제2단석축의 크기는 동서 15m, 남북 3.5m로 제1단석축 보다 폭이 좁게 축조되어 있다.

3) 石物의 配置

(1) 신위석

비좌는 석곽의 앞면 정중앙에서 40c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놓여 있다. 놓여 있는 상태는 매우 안정적이어서 흔들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좌의 앞쪽에 석제 술각등잔이 대칭적으로 놓여져서 출토되었다. 옥개석은 비좌의 동편으로 64cm 정도 이격되어 놓여 있다.

(2) 문인석

서편에 치우쳐 문인석 1기가 놓여있고 동편에는 문인석 자리만이 남아 있다.



사진 13. 비좌 · 옥개석 · 등잔대 출토 모습



사진 14. 문인석

濟州 河源洞 墳墓群



사진 15. 1호분 조사 광경



사진 16. 1호분 전경



사진 17. 1호분 측면 실측 광경



사진 18. 1호분 발굴 전 상태



사진 19. 1호분 발굴 전 상태

濟州 河源洞 墳墓群



사진 20. 1호분 석곽(남동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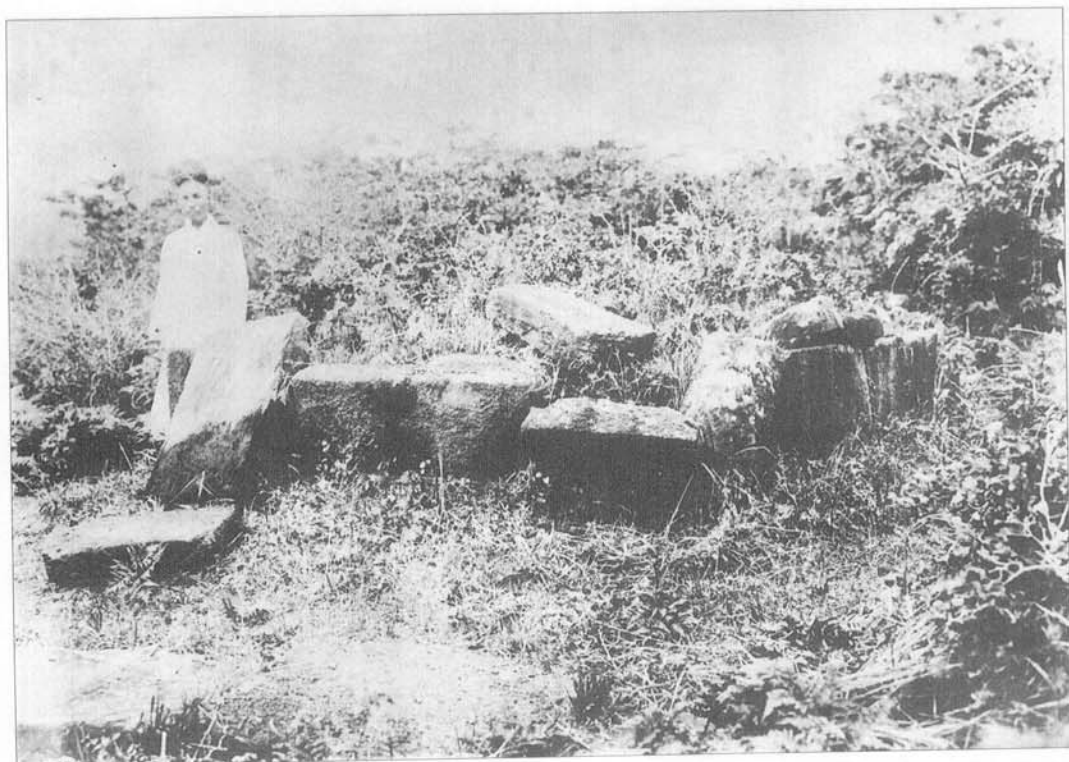


사진 21. 1914년 도굴 당시 1호분 모습



사진 22. 1호분 석곽 정면과 비좌, 옥개석



사진 23. 1호분 석곽 동벽



사진 24. 1호분 석곽 동벽 축조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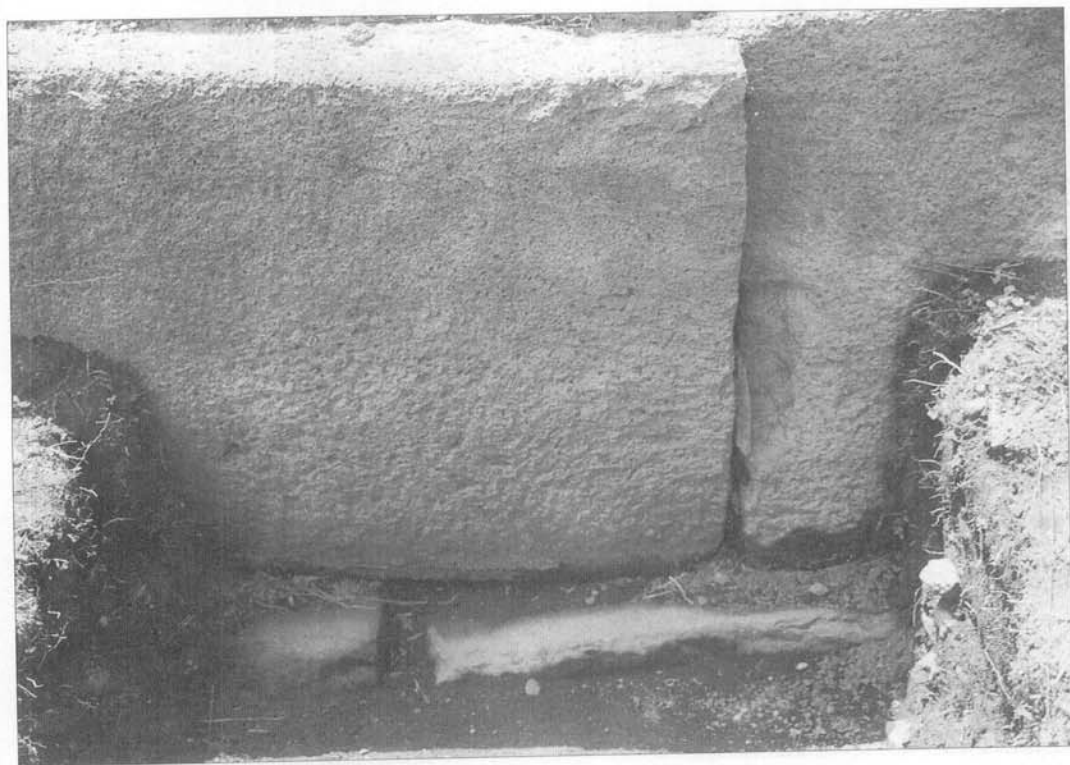


사진 25. 1호분 석곽 동벽 석벽 접합 상태



사진 26. 1호분 석곽 남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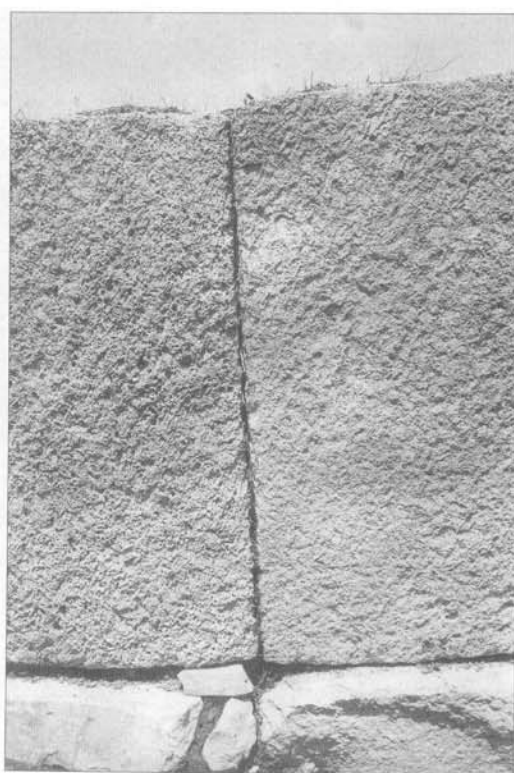


사진 27. 남벽 접합 상태



사진 28. 1호분 석곽 북벽



사진 29. 1호분 석곽 석벽



사진 30. 1호분 전경



사진 31. 1호분 정면 발굴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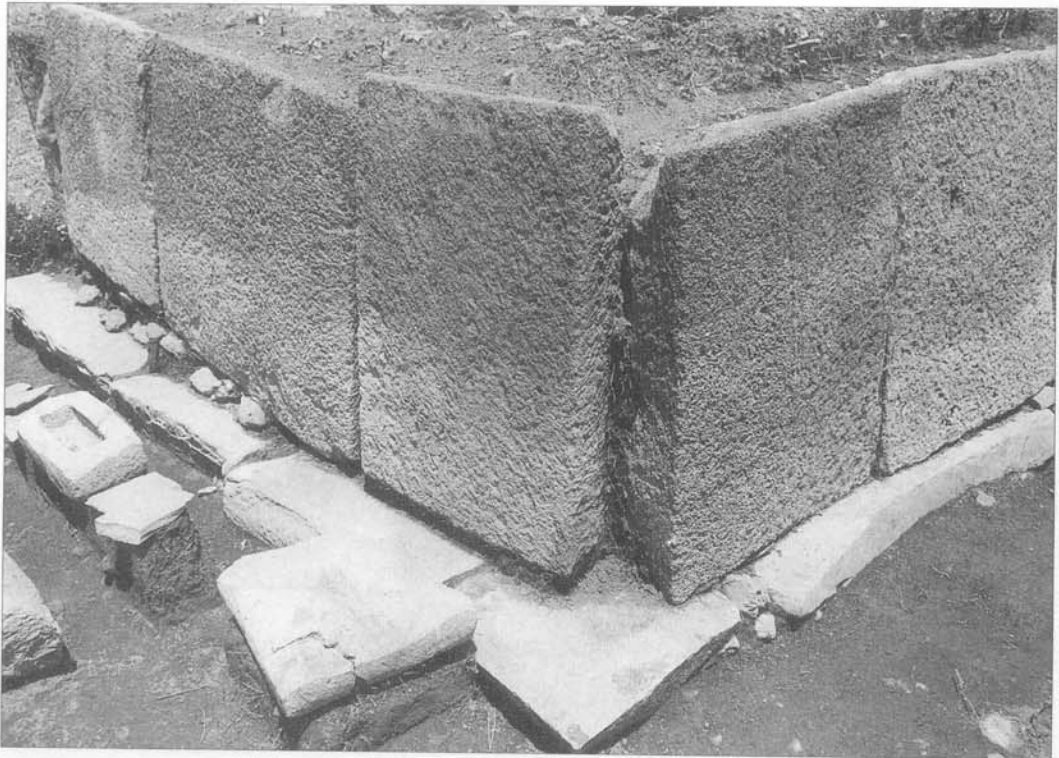


사진 32. 1호분 석곽 남동벽 모서리



사진 33. 1호분 북동벽 모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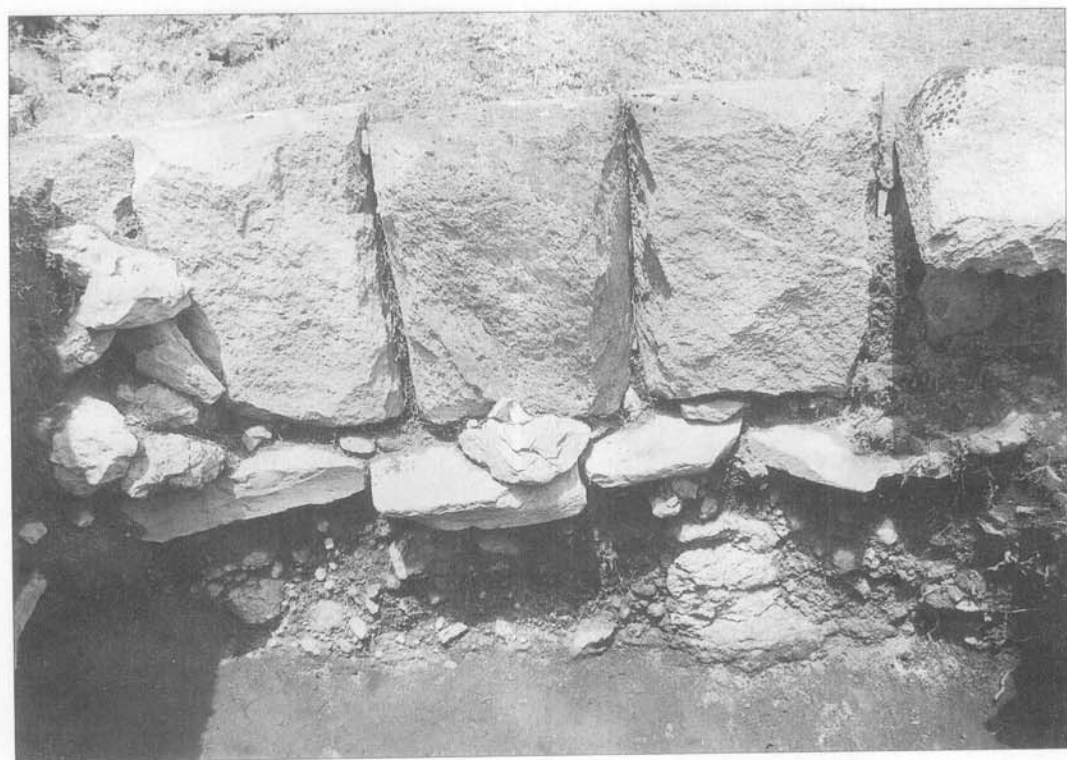


사진 34. 1호분 석곽 서벽 내부 석곽 상태



사진 35. 1호분 도굴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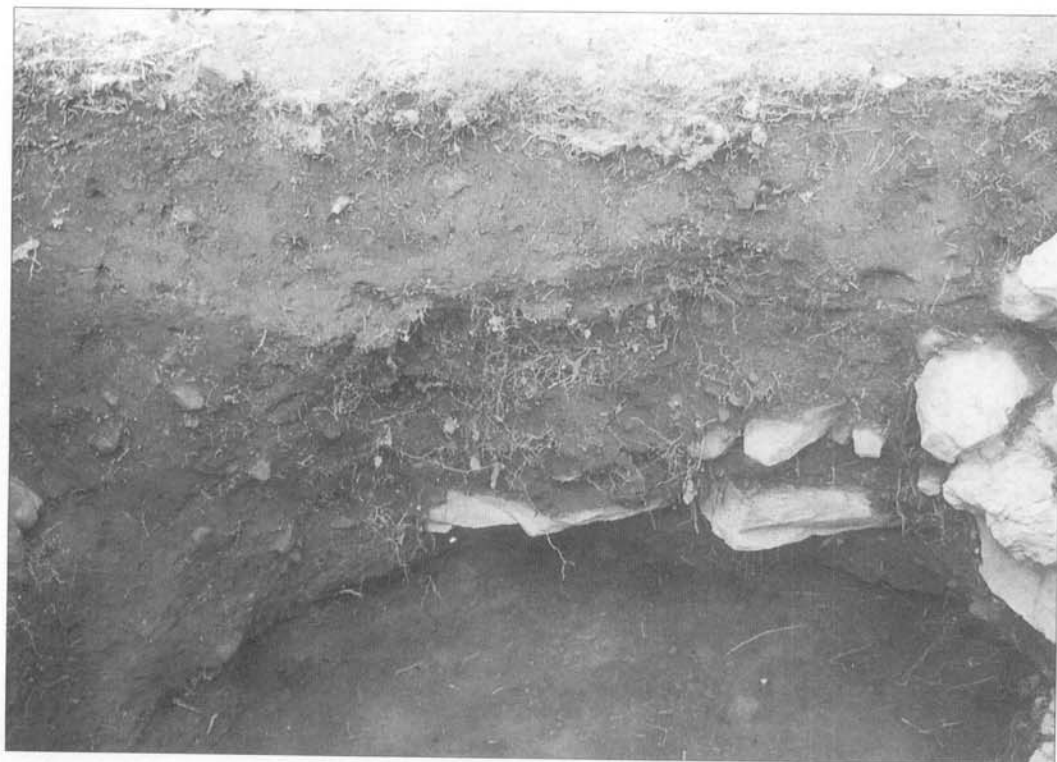


사진 36. 1호분 도굴갱



사진 37. 1호분 내부 토층 상태



사진 38. 1호분 도굴갱(남동에서)



사진 39. 1호분 석곽·비좌·옥개석·석재등잔대 노출 상태



사진 40. 1호분 석곽 정면 상태



사진 41. 1호분 석곽 남쪽(정면) 유구노출 상태(동에서)



사진 42. 1호분 석곽 남쪽(정면) 유구노출 상태(위에서)



사진 43. 제1단 석축과 2단 석렬·계단석



사진 44. 제2·3단 석렬



사진 45. 제3단 석렬과 석곽



사진 46. 제2·3단 석렬



사진 47. 제2단 석렬과 계단 시설



사진 48. 계단 시설(서에서)



사진 49. 계단 시설(동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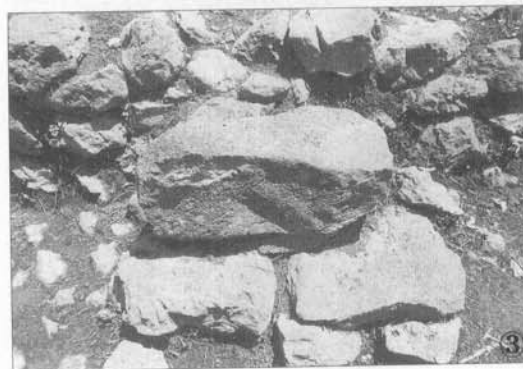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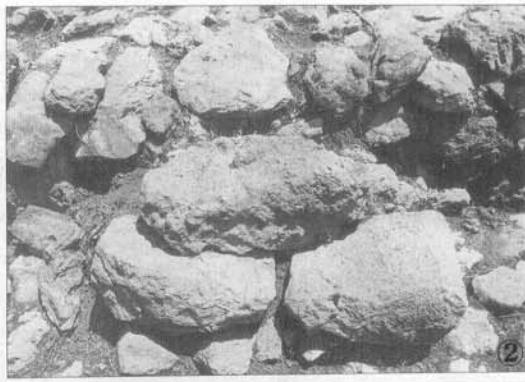


사진 50. ① 계단(1) ② 중양계단(2) ③ 계단(3) ④ 석축시설 test pit



사진 51. 계단시설과 제2단 석렬



사진 52. control pit(북에서)



사진 53. control pit(남에서)



사진 54. control pit 세부



사진 55. control pit 내부 매립 상태



사진 56. ① 매립 상태 ② 매립 상태 ③ control pit 세부 ④ 제1단 석축전경



사진 57. 동쪽 외부 돌담



사진 58. 서쪽 외부 돌담



사진 59. ① 남쪽 돌담 ② 동쪽 돌담 ③ 동쪽 돌담 세부 ④ 돌담 축조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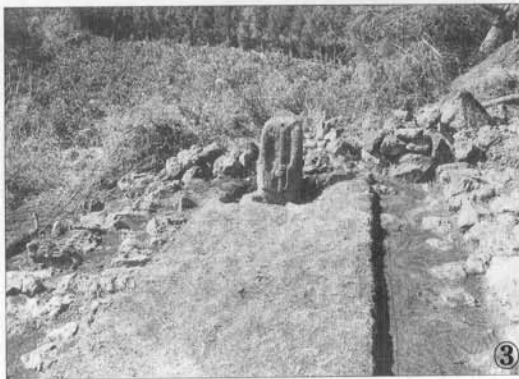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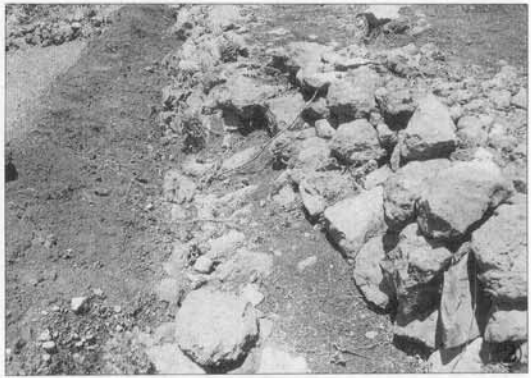


사진 60. ① 1·2호분 중복 ② 1·2호분 중복 상태 ③ 제2단 내 문인석 ④ 문인석



사진 61. 1호분 석곽 관련 석재

나. 2호분

2호분은 '웃간장' 일대의 3기의 분묘 중에 중앙에 위치해 있다. 이 묘는 크게 장방형 돌담묘역 안에 남북장축의 長方形 柳을 두고 그 안에 木棺을 안치하는 형식이다. 장방형의 묘역 안에는 여러 가지 석물이 배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묘역 중앙에 자리한 후대묘가 들어서면서 낮은 계단시설과 3단구성의 단시설이 완전 파괴되었다. 그리고 석곽의 남쪽 전면석도 후대묘의 묘역담 안으로 들어가 있어 후대묘를 이전하지 않고서는 조사가 불가능했다.

1) 墓柳의 築造

(1) 석곽

이 석곽은 점판암제 할석을 7~8단으로 겹쌓기 즉 수평쌓기로 만들어진 전형적인 석곽형무덤이다. 현재 석곽의 남쪽 석곽면은 후대묘의 묘역담 안으로 들어가 있어 후대묘를 이전하지 않고서는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 석곽은 맨 밑층인 풍화된 암반층을 깨끗하게 면을 고른 후에 직경 50cm이상의 점판암제 할석을 안정되게 수평으로 열을 맞추어 놓고 그 위로 크고 작은 할석을 이용하여 수평쌓기로 平積하였다. 현재 동쪽면은 7단이상, 북쪽면(후면)은 5단이상, 그리고 서쪽면은 6단 이상이 남아있다. 특이한 점은 각 모서리마다 사각기둥 형태의 현무암제 판석을 세워 마감하고 있다. 사각기둥 마감석이 석곽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는 2~3단으로 할석을 쌓아 석곽의 상면레벨을 맞추었다. 석곽의 축조순서는 대체로 동쪽 석곽부분 부터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의 축조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일부 하단에 80×50cm의 현무암제 대형 판석을 이어 축조된 흔적이 확인되며 하대석렬의 상태도 정연하다.

이 석곽에 사용된 할석의 평균적인 크기는 50×15cm이다. 현재 확인된 크고 작은 할석의 총 매수는 남쪽부분은 알 수 없으나, 동쪽이 66枚, 북쪽이 47枚, 서쪽면이 58枚이다. 석곽의 안쪽면은 1호분과 마찬가지로 매우 불규칙하게 축조되어 있는데 이것은 외면을 정연하게 안쪽을 자연면 그대로 두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봉토를 완성하게 되면 안쪽면은 자연스럽게 감춰지기 때문에 판단된다. 석곽의 축조는 수직으로 쌓아 올리지 않고 약 5도 정도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맨 밑단이 보일 정도이다.

(2) 봉토

봉토는 석곽안으로 만들어진 方臺形 봉토분으로 여겨진다. 도굴이 심하여 봉토정상부의 상태는 알 수 없으나 석곽의 레벨보다 50cm 정도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높이 추정은 내부 단면토층에서 확인된다. 이 석곽의 봉토는 前述한 바와 같이 밑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다소 좁아드는 형태로 축조되어 있다. 봉토는 주변에서 채취한 흙인 흑갈색부식토인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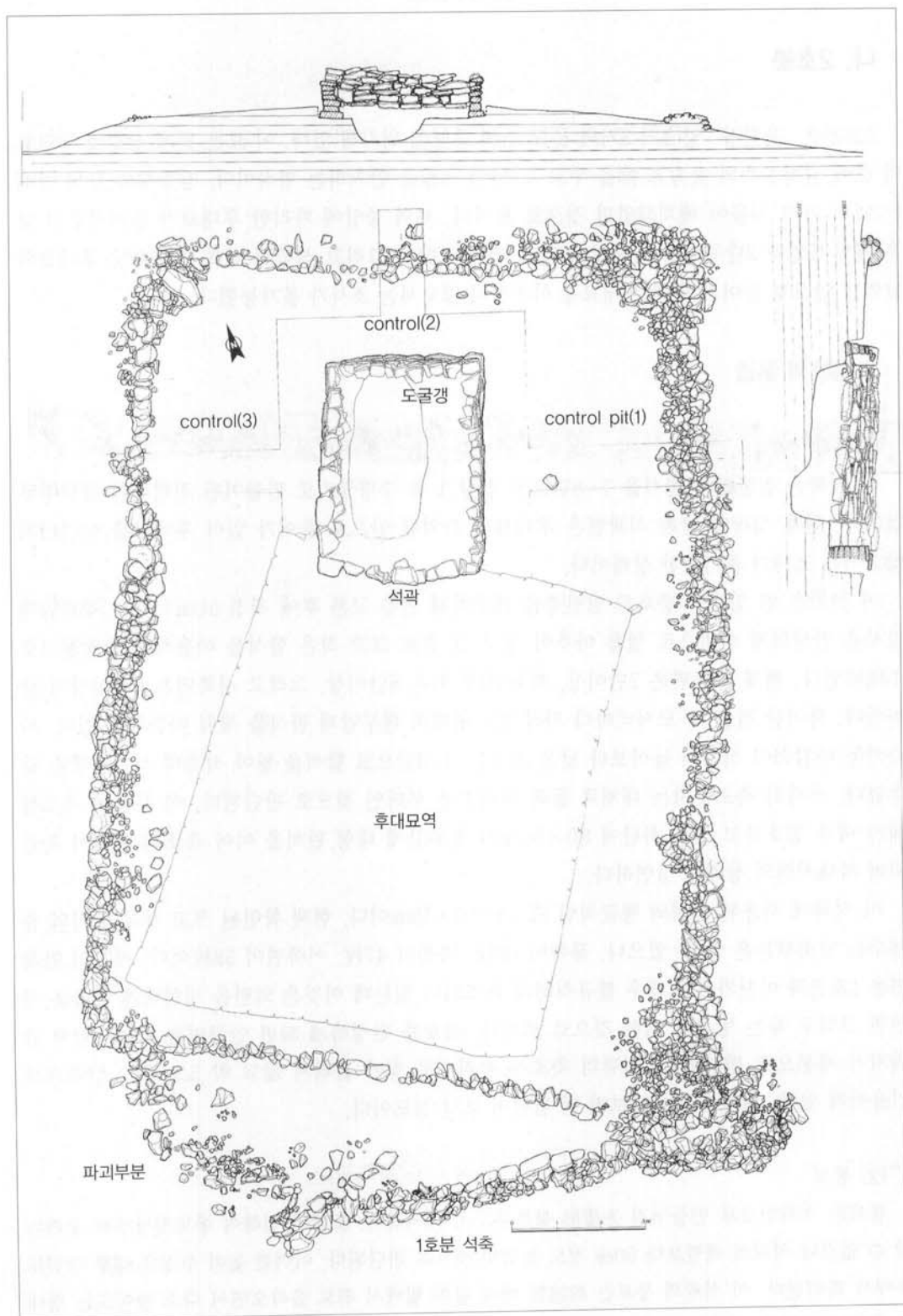


그림 10. 하원동 2호분 실측도



사진 62. 하원동 2호분과 1호분 중복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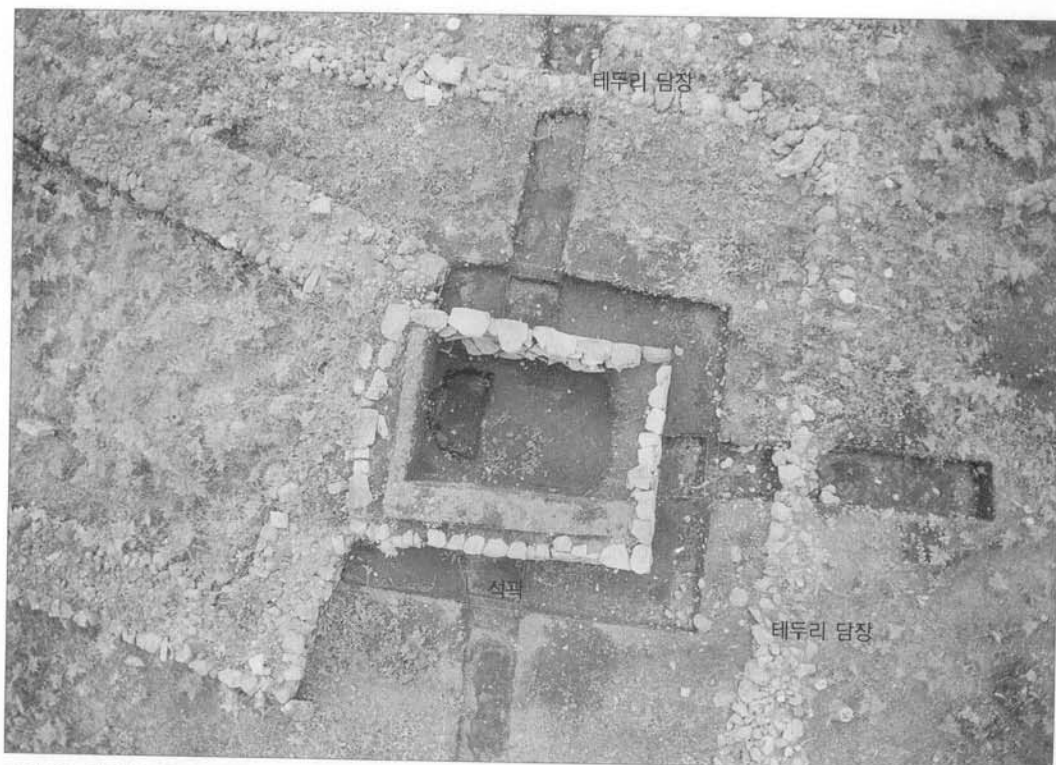


사진 63. 하원동 2호분 세부



사진 64. 하원동 2호분 전경



사진 65. 하원동 2호분 전경

(3) 내부층위

조사결과 내부 층위는 크게 위에서 ①표토층-②황갈색점질토층-③황색점질토층-④목탄층-⑤모래층-⑥암반풍화토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① 표토층: 이 층위두께는 8~12cm이다. 잔디가 이식되어 있고 일부는 도굴 당시 퍼올린 흙이다.

② 황갈색점질토층: 이 층위의 두께는 95~100cm이다. 목관을 안치하고 난후 점성이 있는 황갈색토를 채질하여 다져놓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층위는 상부에서 깃눌린 흔적이 확인되는데 하층에 거의 모든 층위가 부드러운 층위이나 이 층위만이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다.

③ 황색점질토층: 이 층위의 두께는 8~16cm이다. 精製되지 않은 매우 무른 흙이다. 소량의 소토가 혼입되어 있으나 대부분 한 장소에서 파서 일시에 부은 흔적이 뚜렷하다.

④ 목탄층: 이 층위의 두께는 12~34cm이다. 바닥을 다지고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서 숯을 깔아 놓았기 때문에 거의 수평층위를 유지하고 있다. 숯은 벌레와 곤충 그리고 기타 이물질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⑤ 모래층: 이 층위의 두께는 8~29cm이다. 윗층인 목탄층을 깔기 위해 회색모래를 깔아 놓은 층위이다. 모래는 수평을 유지하는데 매우 양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습기제거와 물빠짐에 용이한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⑥ 암반풍화토층: 이 층위의 두께는 매우 불규칙하며 이 층 밑으로 본격적인 암반층이 연결되고 있다. 무른 풍화토층을 파 들어가 관시설을 만들었음이 확인되었다.



사진 66. 하원동 2호분 내부 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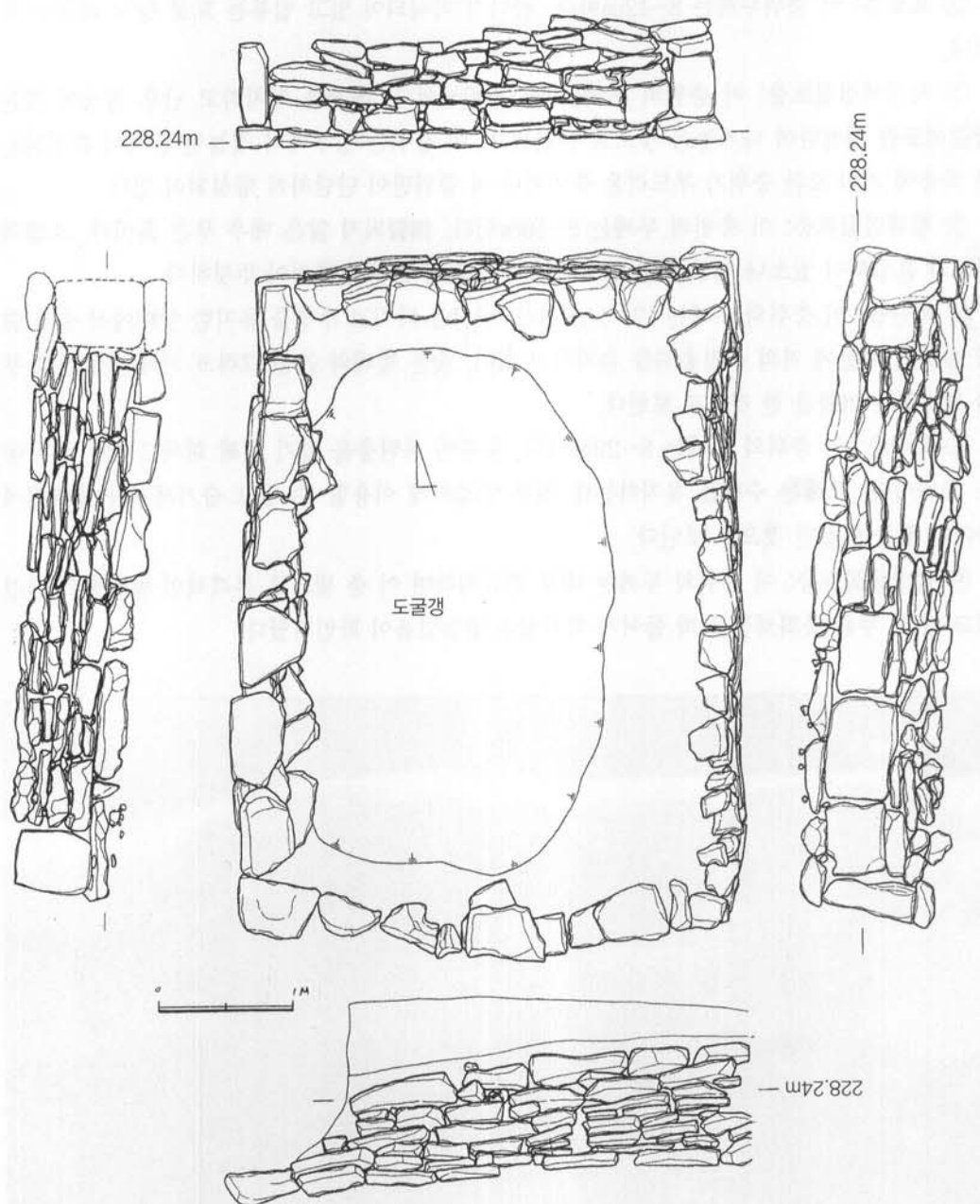


그림 11. 하원동 2호분 석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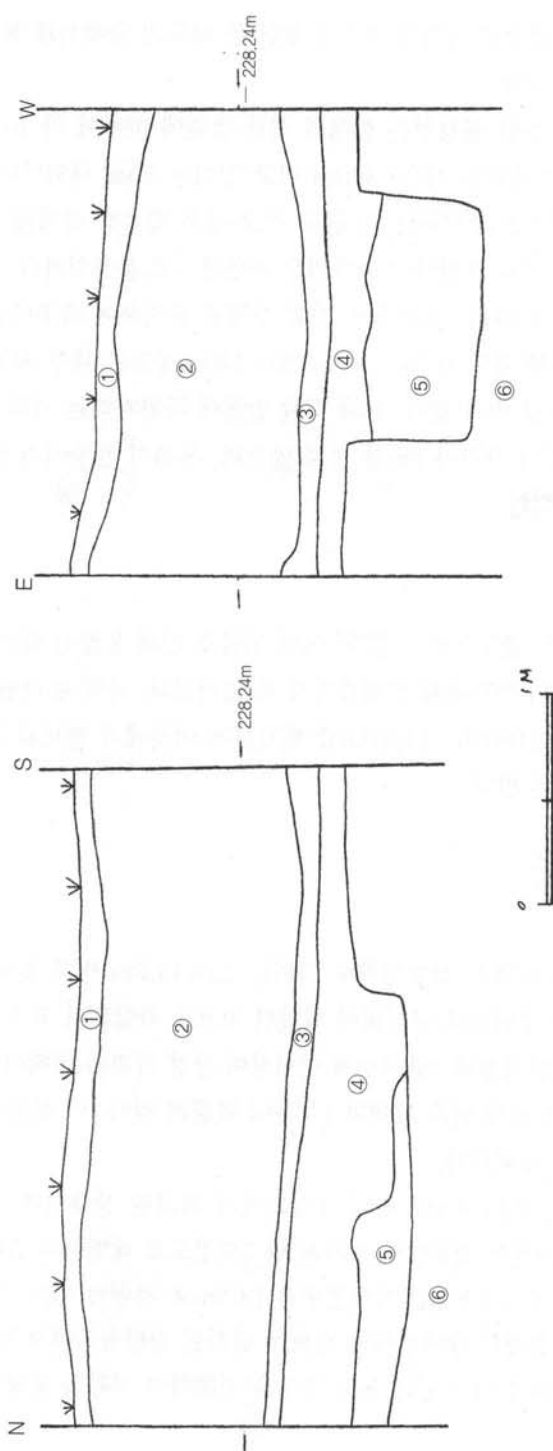


그림 12. 하원동 2호분 내부 토층

(4) 토광과 목관

이 석곽묘의 토광선은 외곽인 석곽을 만들기 위한 큰 테두리 굴광선과 목관을 안치하기 위한 굴광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석곽을 안치하기 위한 굴광선은 현재의 석곽 범위에 맞추어 약 10~20cm가량 넓게 확인되고 있다. 이 토광선의 크기는 460×360cm 이고 깊이는 20cm 내외이다. 토광 바닥면을 다진후에 대형 점판암제 할석을 부석하고 그 위로 크고 작은 할석형 석재를 평적하여 석열을 맞추었다. 석곽의 바깥면은 모두 정면하나 안쪽면은 자연면으로 불규칙하다. 석곽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부석과 할석석재 사이에는 작은돌을 끼워 수평을 유지하여 축조하였다. 외부토광 안쪽으로 목관을 안치하기 위해 깊이 0.7m, 크기 320×140cm정도로 내부 토광을 만들었다. 도굴이 심하여 목관의 크기는 알 수가 없다. 현재 석곽 안쪽에 목관자리는 거의 대부분이 파괴된 상태이다. 분명한 것은 목관의 크기가 3m를 넘지 않으며, 목관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보강토를 넣은 것으로 판단된다.

(5) 유물 출토상황

석곽 내부에서 확인되는 출토유물은 없다. 이미 도굴로 인해 유물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되며 도굴된 범위는 전술한 바의 목탄층과 모래층까지 파 들어갔다. 국박 유리원판도록 가래천변 장군층 출토유물(유물번호, 140099·140100)중 백자류가 이곳에서 출토된 것으로 판단된다. 석곽 내부에서 확인된 관정은 없다.

2) 墓域의 築造

주곽의 테두리를 돌린 묘역은 장방형꼴로 크기는 22×14.5m 이고 돌담의 폭은 0.8~1.1m 이다. 묘곽은 주곽 앞으로 3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묘역 중앙에 자리한 후대묘가 들어서면서 낮은 계단시설과 3단구성의 단시설이 완전 파괴된 상태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분묘의 남쪽 묘역과 1호분이 맞물려 있다. 이 분묘의 전면석축이 1호분의 후면석축을 덮고 있는 상태이다.

제1단 석축열의 서쪽부분은 후대묘역이 조성되면서 파괴된 상태이다. 전면 석열의 높이는 50cm 내외이다. 후면과 전면의 석축열의 경사는 약 5도정도로 레벨차는 70~100cm에 이른다.

제1단 석축의 전면은 15m이고 3단 석축후면은 13.5m로 전면이 넓고 후면이 좁아드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의 묘역상태가 정확히 말하면 장방형꼴에서 말각된 마름모꼴을 취하고 있다. 이 곳은 매립부가 아닌 원래 높은 후면을 평削하여 석곽을 중앙에 축조하였다.

(2) 여장용 돌담과 계단시설

여장용돌담은 석곽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데 1호분이 2단석축부의 서편에 치우쳐 석축보다 한단 높은 曲牆이 시작되어서 동편 석축부에서 끝을 맺는 것과는 달리 이 돌담은 평균 높이

30~50cm 정도로 균일하게 돌려져 있다.

원래는 계단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는 파괴가 심하여 알 수 없다.

3) 石物의 配置

상석 또는 신위석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상석이 있을 자리에 후대 묘역이 자리하고 있어 알 수 없다. 차후 후대묘역의 정비시 조사가 필요하다.



사진 67. 하원동 2호분 발굴 전 상태



사진 68. 발굴 전 상태(북에서)



사진 69. 도굴갱



사진 70. 하원동 2호분 발굴 광경



사진 71. 하원동 2호분 석곽(북에서)



사진 72. 하원동 2호분 석곽



사진 73. 하원동 2호분 석곽(북서에서)

濟州 河源洞 墳墓群



사진 74. 하원동 2호분 석곽(북동에서)



사진 75. 하원동 2호분 석곽과 주변 control pit



사진 76. 하원동 2호분 석곽과 후대묘



사진 77. 하원동 2호분 석곽(서에서)



사진 78. 2호분 석곽 서벽 내부 상태



사진 79. 2호분 석곽 동벽 축조 상태



사진 80. 하원동 2호분 동벽 축조 상태



사진 81. 2호분 석곽 동벽과 봉토 총위



사진 82. 2호분 석곽 북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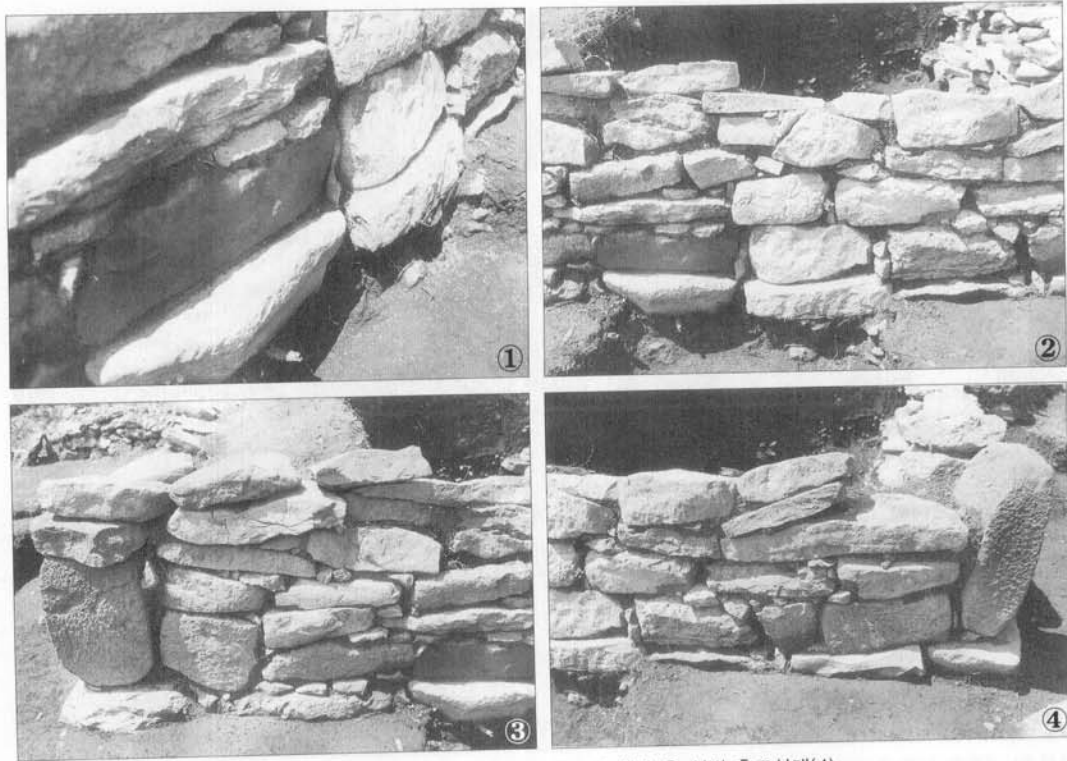


사진 83. ① 석벽 축조상태(1) ② 석벽 축조상태(2) ③ 석벽 축조상태(3) ④ 석벽 축조상태(4)



사진 84. 석벽 축조상태(5)



사진 85. 석벽 축조상태(6)



사진 86. 석벽 축조상태(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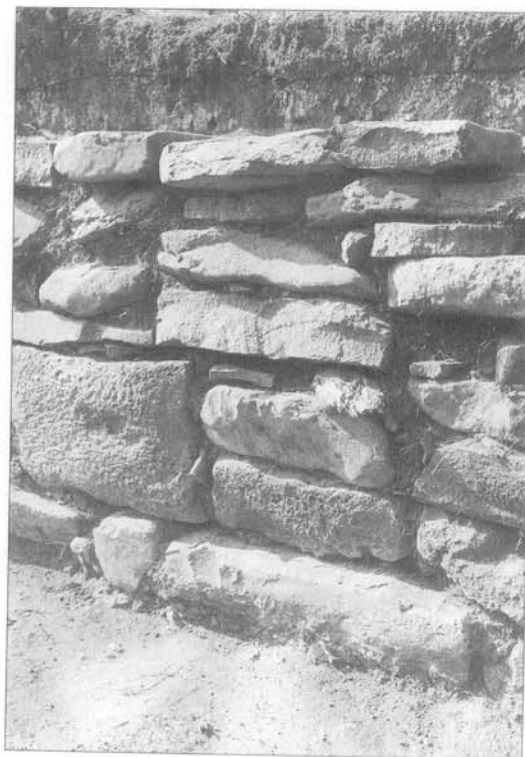


사진 87. 세부(1)



사진 88. 세부(2)

濟州 河源洞 墳墓群



사진 89. 세부(3)



사진 90. 2호분 서벽 축조상태



사진 91. 서북쪽 모서리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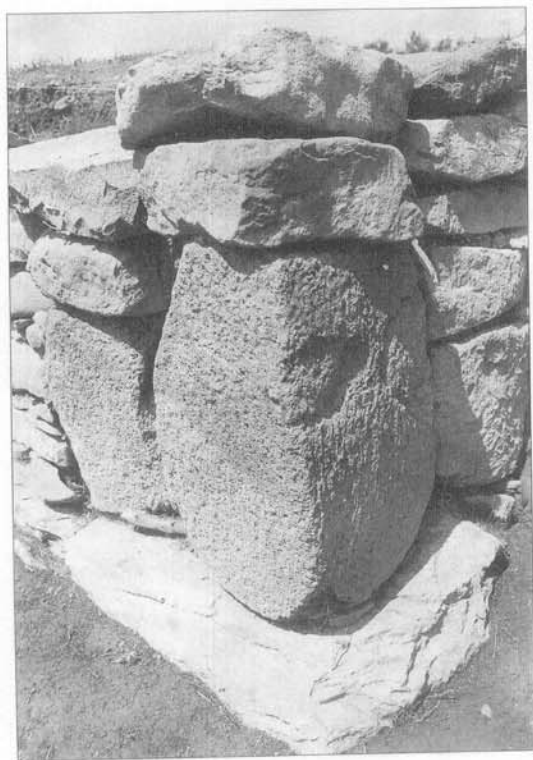


사진 92. 동북쪽 모서리석



사진 93. ① 후대묘역과 남동쪽 모서리석 ② 후대묘역과 중북상태



사진 94. 테두리 돌담(북편)



사진 95. ① 테두리 돌담(동편) ② 테두리 돌담(서편) ③ 축조상태 세부(1) ④ 축조상태 세부(2)

濟州 河源洞 墳墓群



사진 96. ① control pit ② pit 층위(1) ③ pit 층위(2)



사진 97. ① control pit ② control pit 전경 ③ 하원동 2호분 내부 층위

다. 3호분

이 분묘는 '웃간장' 일대의 능선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 묘제의 축조방법상 가장 이른시기의 묘제로 판단된다. 중간에 자리한 2호분에서 북향으로 25.3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이 묘의 구조나 축조방법은 제1호분의 성격과 같다. 크게 장방형 돌담묘역안에 남북장축의 長方形 槨을 두고 그안에 木棺을 안치하는 형식이다. 장방형의 묘역안에는 등간격으로 여러 가지 석물이 배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3단구성의 단시설안에 현재는 석곽 앞에 대형상석이 놓여있을 뿐이다.

1) 墓槨의 築造

(1) 외부석곽

이 석곽은 모두 전면(남)에 3枚, 후면(북)에 3枚, 동쪽면에 4枚, 서쪽면에 3枚, 총 13枚의 多孔質玄武巖製 板石으로 짜여진 남북 장축의 長方形石槨이다.

낮은 토광을 파서 바닥면을 다지고 잘 다듬은 현무암제 판석을 세로로 맞춰 세워 곱을 축조하였다. 바닥과 석벽판석사이, 판석과 판석사이에 잔 자갈을 끼움없이 질서정연하게 곱을 세우고 짜맞추었다. 세워진 중심 석곽위로 봉토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다시 납작한 楣石형 판석을 두고 그위로 봉토를 엮었다. 석곽은 완전하며 미석은 총 8枚만이 남아있다. 석곽면은 외벽이 수평과 마감이 잘 되어 있으나 내벽은 거친 자연면 그대로다.

먼저 남쪽의 석곽면은 3매가 나란히 맞추어져 있으며 1914년 日人에 의해 도굴될 당시의 사진상태 그대로 이다. 남쪽 석곽의 각 제원은 오른쪽이 $101 \times 60 \times 20\text{cm}$, 중앙석이 $115 \times 61 \times 16 \sim 22\text{cm}$, 왼쪽이 $100 \times 60 \times 12 \sim 17\text{cm}$ 이다. 전체 남벽의 길이는 316cm이다. 치석하여 정다듬질할 당시부터 석재의 높이는 60cm로 조절하였다. 석재의 가공기술이 뛰어난 장인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서쪽 석곽은 3매로 이루어져 있다. 동쪽으로 바라볼 때 맨 오른쪽 것이 $188 \times 60 \times 12\text{cm}$, 중앙이 $161 \times 57 \times 12 \sim 15\text{cm}$, 맨 왼쪽의 끼움석으로 $36 \times 58 \times 10\text{cm}$ 이다. 오른쪽 1매는 3기의 석곽 석재중 가장 잘 만들어져 있고 정다듬질이 뛰어나다. 전체 서벽의 길이는 400cm이고 평균 높이는 59cm이다. 남·북벽에 서벽이 합쳐 꺾이는 모서리 부분은 남과 북벽의 석곽열이 감싸고 있으나 북서모서리에서 다소 안쪽으로 서벽이 들어와 있다.

북쪽 머리편 석곽은 정교하게 정다듬질된 판석 3매로 이루어져 있다. 오른쪽 1매는 $100 \times 60 \times 17\text{cm}$ 이고 중앙석재가 $98 \times 65 \times 16\text{cm}$, 왼쪽 석재가 $82 \times 64 \times 15 \sim 17\text{cm}$ 이다. 석곽열 위로 현무암제 미석이 놓여 있다. 동·서벽의 전체길이는 284cm이고 평균 높이는 64cm이다. 아랫쪽보다 5cm정도 높이차가 난다. 그것은 경사면을 이용하여 전체 석곽의 상면을 맞추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치석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분묘를 축조할 지형을 알고 장인이 석재의 높이차를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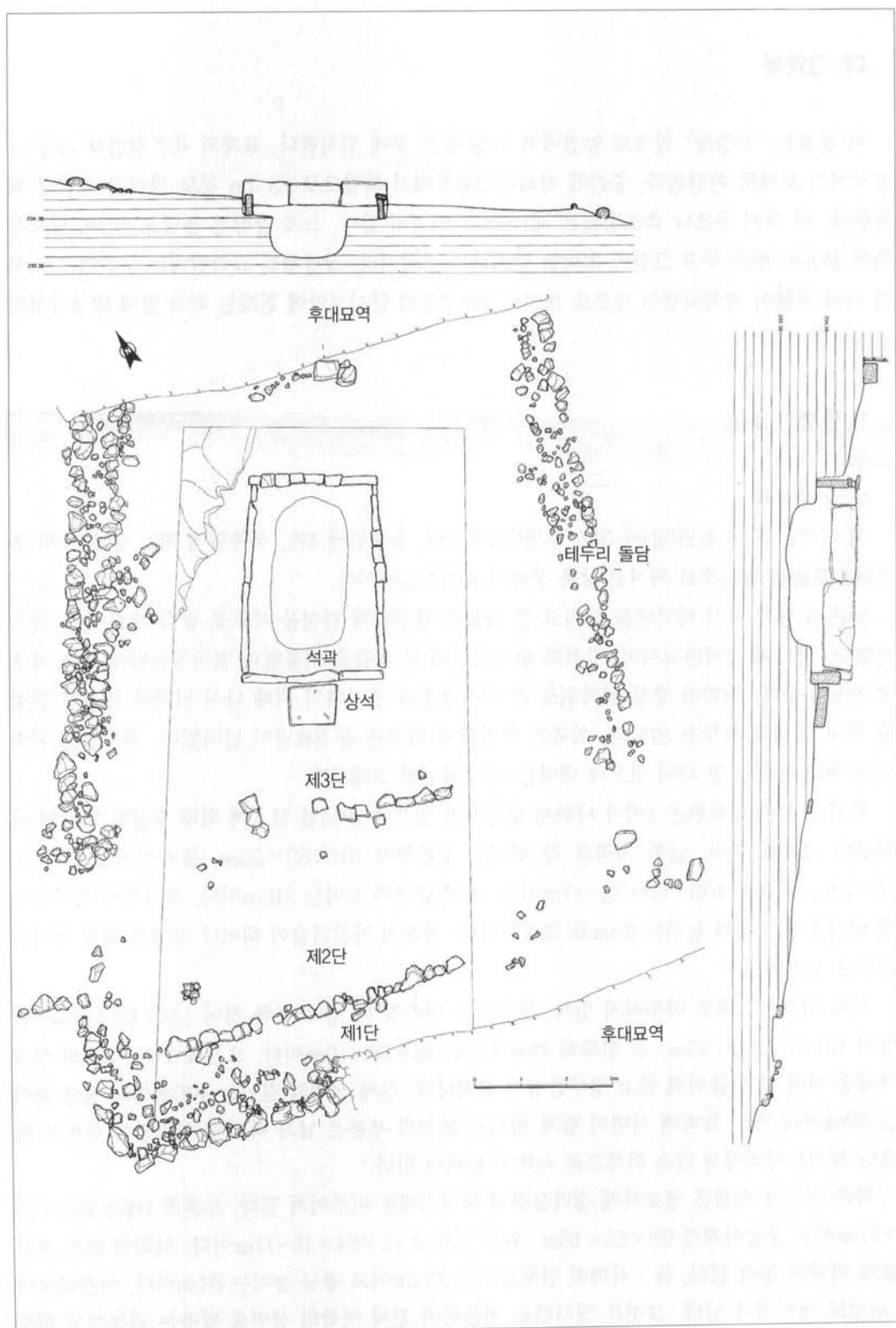


그림 13. 하원동 3호분 실측도



사진 98. 하원동 3호분 전경(항공촬영)



사진 99. 하원동 3호분 전경(항공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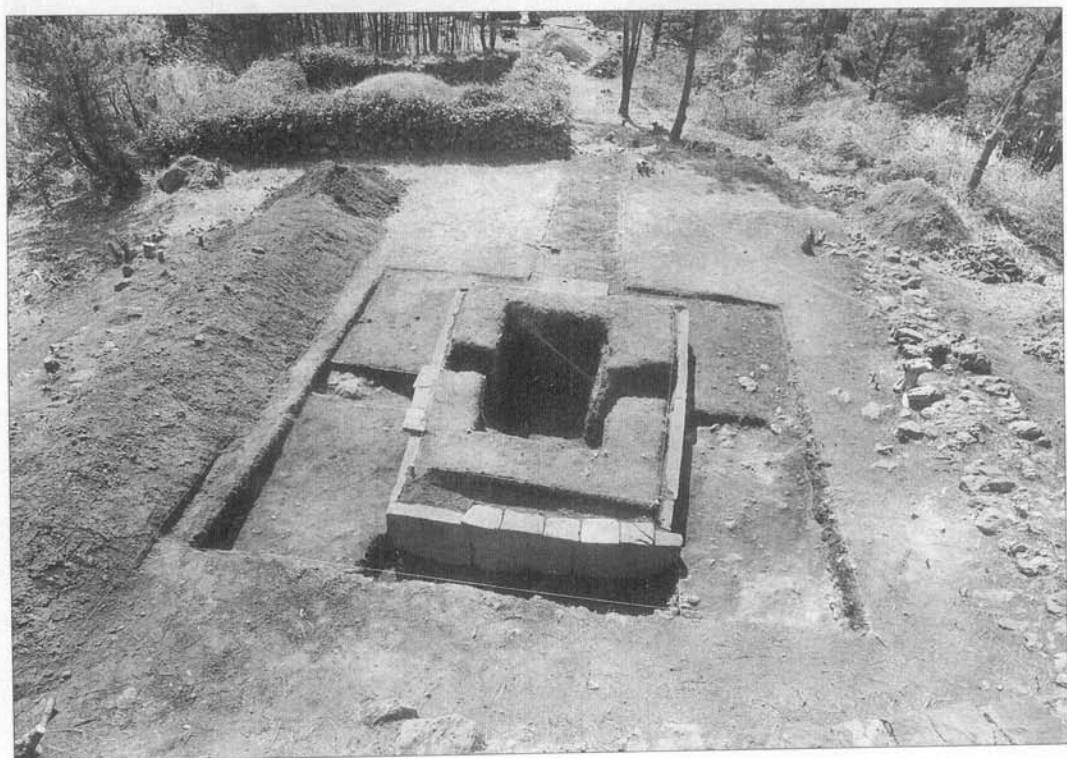


사진 100. 하원동 3호분 전경

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벽과의 연결 모서리는 동·서벽이 완전하게 직각으로 맞추어져 있다. 미석은 5cm가량 밖으로 나와있다. 현재 남아있는 미석의 길이를 합친 길이는 180cm이나 원래는 전체 석열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미석의 제원은 오른쪽부터 $30 \times 27 \times 5\text{cm}$, $35 \times 28 \times 5\text{cm}$, $34 \times 22 \times 5\text{cm}$, $40 \times 24 \times 5\text{cm}$, $37 \times 28 \times 5\text{cm}$ 로 거의 같은 직사각형을 이룬다.

동쪽 석곽은 4매로 이루어져 있다. 동쪽으로 바라다 볼 때 왼쪽이 $101 \times 60 \times 19 \sim 21\text{cm}$, 다음이 $101 \times 60 \times 12 \sim 14\text{cm}$, 그 다음이 $130 \times 62 \times 15 \sim 18\text{cm}$, 그 다음이 $72 \times 84 \times 15 \sim 24\text{cm}$, 맨 오른쪽 석재가 $15 \times 60 \times 10\text{cm}$ 이다. 맨 오른쪽 석재 1매는 소형으로 끼움석 역할을 하고 있다. 서벽과 길이를 맞추기 위해 조절한 석재로 판단된다. 동벽의 길이는 396cm이며 높이는 60cm 내외이다. 중앙벽에서 다소 오른쪽으로 치우쳐 미석 3매가 확인된다. 미석은 3~4cm가량 밖으로 나와있다. 현재 남아있는 미석길이를 합친 길이는 114cm이나 원래는 전체 석열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미석의 제원은 오른쪽부터 $34 \times 26 \times 6 \sim 8\text{cm}$, $34 \times 23 \times 5\text{cm}$, $40 \times 26 \times 5\text{cm}$ 로 미석되는 가로의 길이가 거의 같은 직사각형을 이룬다.

이러한 석곽의 전체규모를 보면 남북 장축이 450cm이고 중앙 동서단축이 310cm이다. 석곽의 높이는 60~650cm이다. 그러나 후면과 전면의 길이가 35cm 차이가 있어 후술한 묘역과 같이 사다리꼴 형태의 장방형(直四角形)을 이룬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약간의 토광을 파고 자연면을 다져 동시에 석곽석재를 맞추어 배치하는 방법으로 장방형 곽을 축조하였다.

(2) 봉토

1914년 일인들이 도굴 당시 사진으로 볼 때 봉토는 석곽 상면보다 50~60cm가량 높게 올라간 'U'자형 봉분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높이 추정 은 현재의 내부 단면토층에서도 확인된다. 도굴시 파놓은 흙은 1호분과 마찬가지로 봉토 북동면에 둥그렇게 쌓아 놓았음이 확인되었다. 봉토의 흙은 주변에서 채취한 흙으로 흑갈색부식토인 것으로 여겨진다.

(3) 내부층위

조사결과 내부 층위는 크게 위에서 ① 표토층-①-1흑갈색부식토층-②황갈색점토질층-③흑갈색부식토층-④황갈색점토질층-⑤목탄층-⑥흑갈색부식토층-⑦흑갈색부식토층-⑧황갈색점토질층-⑨흑갈색부식토층-⑩흑갈색부식토층-⑪황갈색점토질층-⑫목탄층-⑬흑갈색부식토층-⑭황갈색점토질층-⑮목탄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① 표토층: 이 층위두께는 8~12cm이다. 일부는 도굴 당시 퍼올린 흙이다.

①-1흑갈색부식토층: 표토층보다 밝은 색을 띤다.

② 황갈색점토질층: 이 층위의 두께는 6cm이다. 목관을 안치하고 난후 점성이 있는 황갈색토를 채질하여 다져놓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층위는 상부에서 짓눌린 흔적이 확인되는데, 하층에 거의 모든 층위가 부드러운 층위이나 이 층위만이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다.

③ 흑갈색부식토층: ①-1층과 같은 점성을 가지고 있으며 보다 밝은 색을 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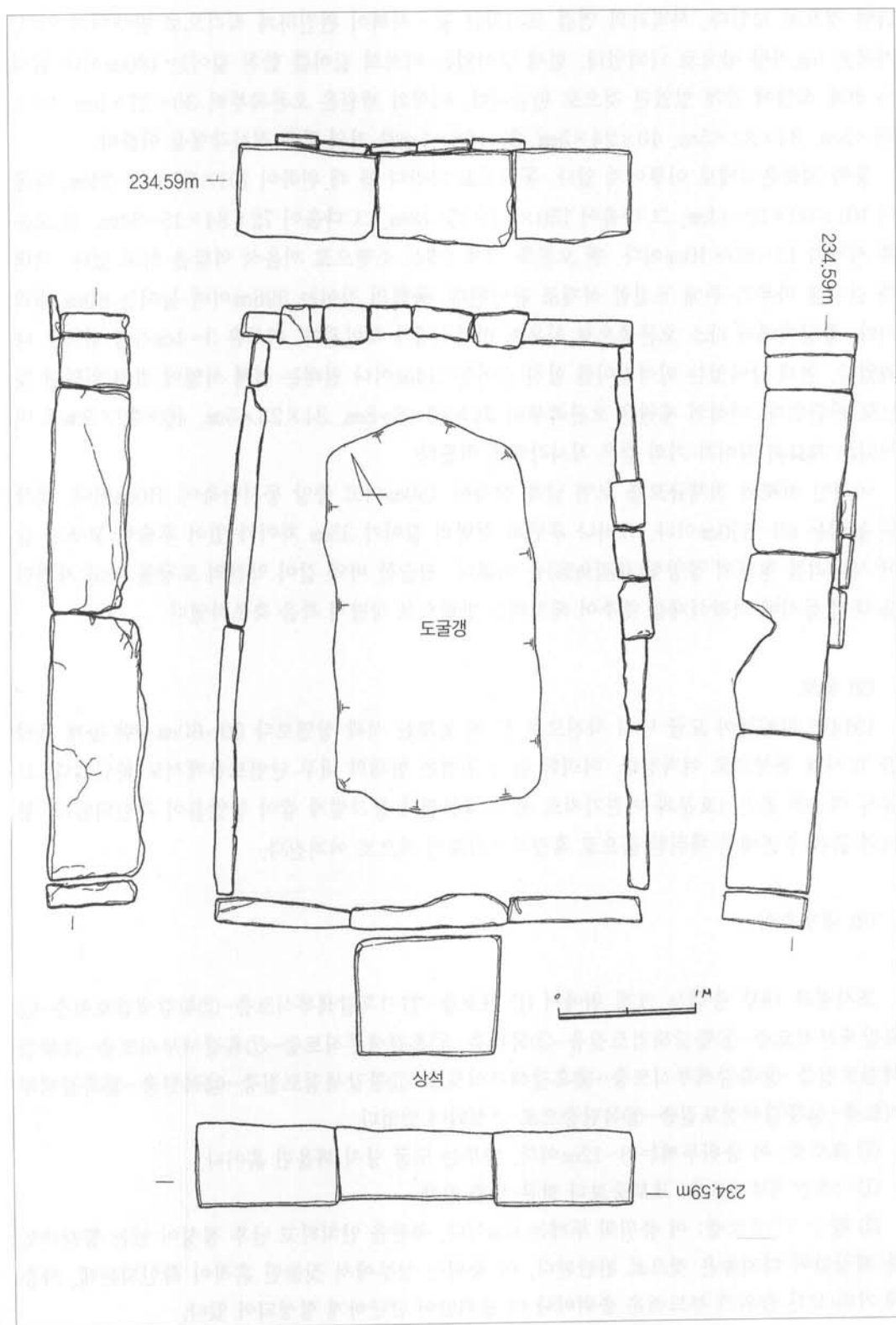


그림 14. 하원동 3호분 석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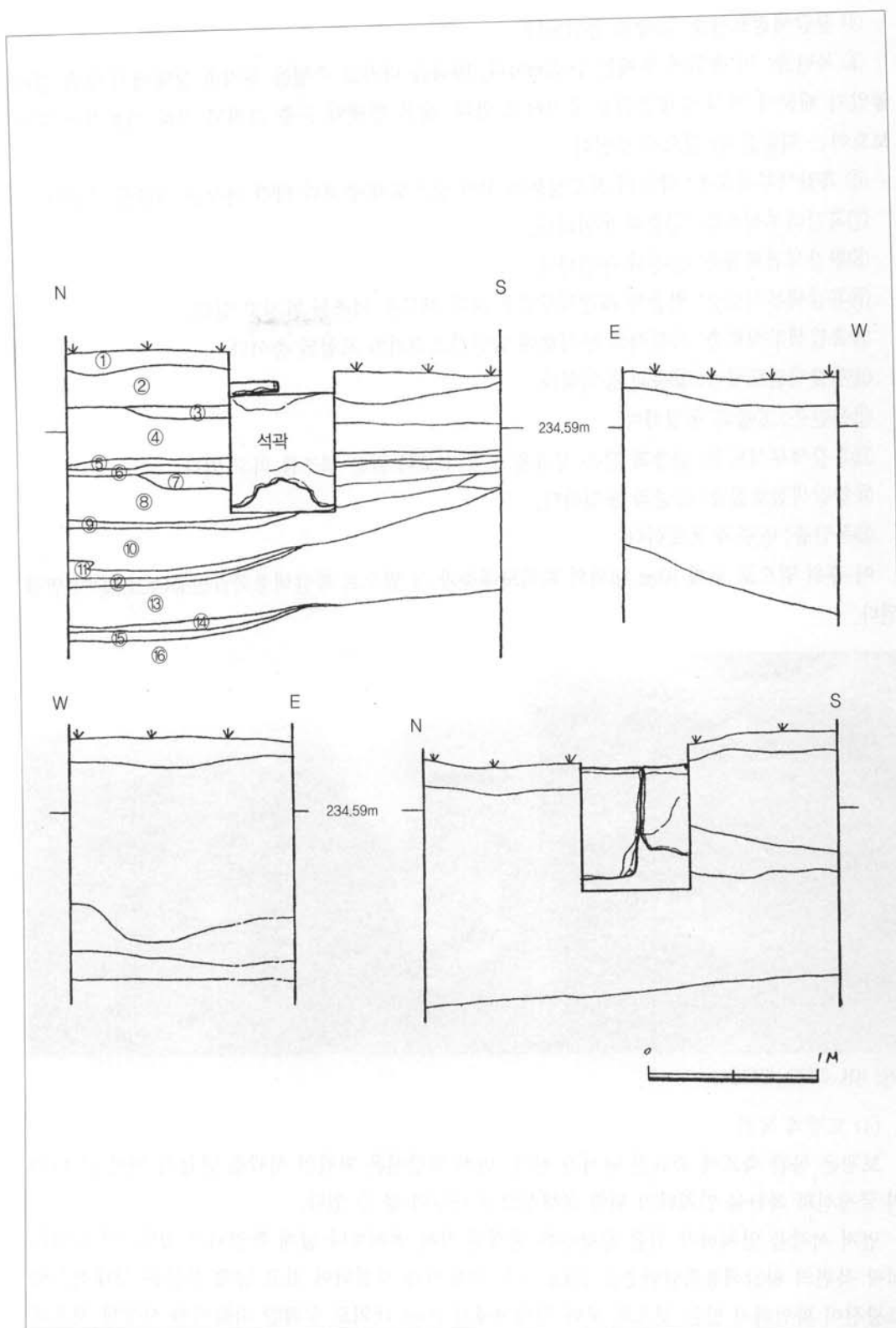


그림 15. 하원동 3호분 내부 층위도

④ 황갈색점토질층: ②층과 동일하다.

⑤ 목탄층: 이 층위의 두께는 4~5cm이다. 바닥을 다지고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서 숯을 깔아 놓았기 때문에 거의 수평층위를 유지하고 있다. 숯은 벌레와 곤충 그리고 기타 이물질로 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⑥ 흑갈색부식토층: 약간의 점토성분이 섞인 층으로 ③층보다 약간 어두운 색조를 보인다.

⑦흑갈색부식토층: ③층과 동일하다.

⑧황갈색점토질층: ②층과 동일하다.

⑨흑갈색부식토층: 윗층의 흑갈색토층들 보다 어두운 색조를 가지고 있다.

⑩흑갈색부식토층: 흑갈색의 부식토에 암반부스러기가 포함된 층이다.

⑪황갈색점토질층: ②층과 동일하다.

⑫목탄층: ⑤층과 동일하다.

⑬흑갈색부식토층: ⑩층과 같은 성격을 보이며 보다 밝은 색조를 띠고 있다.

⑭황갈색점토질층: ②층과 동일하다.

⑮목탄층: ⑤층과 동일하다.

이 층위 밑으로 두께 10cm 내외의 회색모래층과 그 밑으로 황갈색풍화암반층(生土層)이 연결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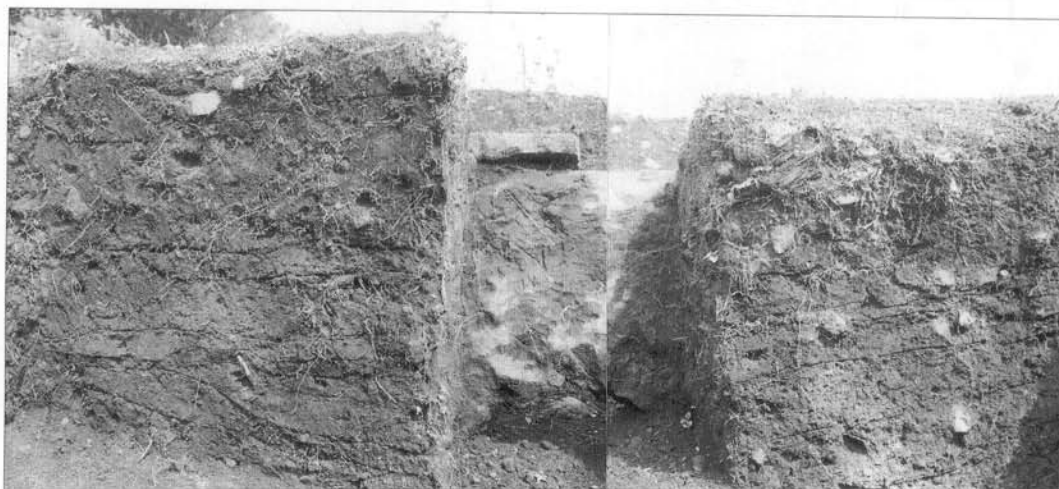


사진 101. 3호분 내부 층위

(4) 토광과 목관

토광은 목관 축조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먼저 토광선은 외곽인 석곽을 만들기 위한 큰 테두리 굴광선과 목관을 안치하기 위한 굴광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석곽을 안치하기 위한 굴광선은 현재의 석곽 범위보다 넓게 확인되고 있다. 이 토광은 석곽 북편의 황갈색풍화암반층을 70cm 이상 파들어가 시설되어 있고 남쪽 부분은 상대적으로 토광선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석곽벽에서 10cm 내외로 살짝만 파들어가 시설된 것으로 보인다. 토광선의 전체 직경은 500×370cm 내외인 것으로 판단된다. 깊이는 30cm 내외이다.

토광 바닥면을 다진후에 막바로 그 위에 현무암제 판석을 곧추 세워 열을 맞추었다. 석곽의 바깥면은 모두 정다듬질하여 매끈하나 안쪽면은 몇 군데를 치석하였을뿐 정제되지 않았다.

석곽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외부토광 안쪽으로 목관을 안치하기 위한 내부토광을 깊이 1m, 크기 280×140cm 정도로 만들었다. 도굴이 심하여 목관의 크기는 알 수가 없다. 현재 석곽 안쪽에 목관자리는 거의 대부분이 파괴된 상태이나 회색모래층과 목탄층 그리고 일부 인골이 바닥에 남아있어 목관의 바닥 높이를 짐작할 수 있었다. 목관바닥은 석곽의 사면에서 130cm 아래, 봉토추정 높이에서 180cm 아래, 토광이전의 구지표에서 68cm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深藏을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목관의 크기가 2.5m를 넘지않으며 목관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석곽과 목관 사이에 보충토를 넣은 것으로 판단된다.

(5) 유물 출토상황

석곽 내부에서 확인되는 출토유물은 청동제 사발편, 소형 구슬 1점, 관정 10점, 두개골로 추정되는 인골편이 소량 확인되었다. 이미 도굴로 인해 유물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되며 도굴된 범위는 목관범위를 완전하게 파 들어갔다. 국박 유리원판도록 가래천변 장군총 출토유물(유물 번호, 140099·140100)중 140099의 청동제품이 대부분 이곳에서 출토된 것으로 판단된다. 석곽 동쪽 제1단 계단 시설 상부에서 상평통보 1점이 수습되었다. 내부에서 발견된 관정에는 목질이 그대로 부착되어 분명히 목관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었다.

2) 墓域의 築造

주곽의 테두리를 돌린 묘역은 장방형꼴로 크기는 남북길이 18m이상, 중앙 동서길이 12~13m이다. 현재 이 묘역의 앞부분과 뒷 부분에 후대묘가 자리하고 있어 남북 장축의 묘역 길이는 알 수 없으나 1호분이 석곽후면에서 4m가량 밖으로 나와 후면 돌담이 설치되어 있어 적어도 18m 이상 되는 것으로 보인다. 돌담의 폭은 1.2~1.5m이다. 묘곽은 주곽 앞으로 3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제1단은 길이 14m, 높이 50cm 내외이고, 2단은 1단 도입열에서 2m 간격을 안으로 들어와 있다. 2단의 길이는 13.5m이고 높이는 15cm 내외이다. 3단은 2단 석열에서 4m 안으로 들어와 시설되어 있고 그 길이는 13m이다. 높이는 10cm 내외이고 중앙부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유실되어져 있다. 이 3단 중앙에 석곽이 배치되어 있다. 3단의 후면은 전술한 바와 같이 후대묘에 의해 파괴되어 알 수 없으나 진행 각도로 보아 11m 이내이다. 따라서 1단 전면 석열과 3단 후면석열의 길이차가 3m 이상 차이가 난다. 부채꼴 모양으로 전면이 넓게 만들어져 있다. 사면의 석곽과 함께 남쪽부분(前面)이 넓게 되어 있어 전체가 조화를 이루게 조영되어 있다. 다만 동쪽 묘역담이 약간 비뚤어져 있다.

따라서 전체의 묘역상태가 정확히 말하면 장방형꼴에서 말각된 마름모꼴을 취하고 있다. 이

곳은 매립부가 아닌 원래 높은 후면을 平削하여 석곽을 중앙에 축조하였다.

(2) 여장용 돌담과 계단시설

여장용돌담은 석곽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데 2단 석축부의 서편에 치우쳐 석축보다 한단 높은 曲牆이 시작되어서 동편 석축부에서 끝을 맺는 1호분과는 달리 이 묘역은 제3단 석열에서 평균 높이 30cm 정도로 균일하게 둘러져 있다. 계단시설은 각 담마다 높이가 낮아 원래부터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石物의 配置

석곽 전면석열에서 7cm 간격을 두고 100×81×15cm 크기의 상석이 놓여 있다. 다른 석물도 배치되어 있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으며 1914년 도굴자료에도 기록이 없다. (강창화)



사진 102. 하원동 3호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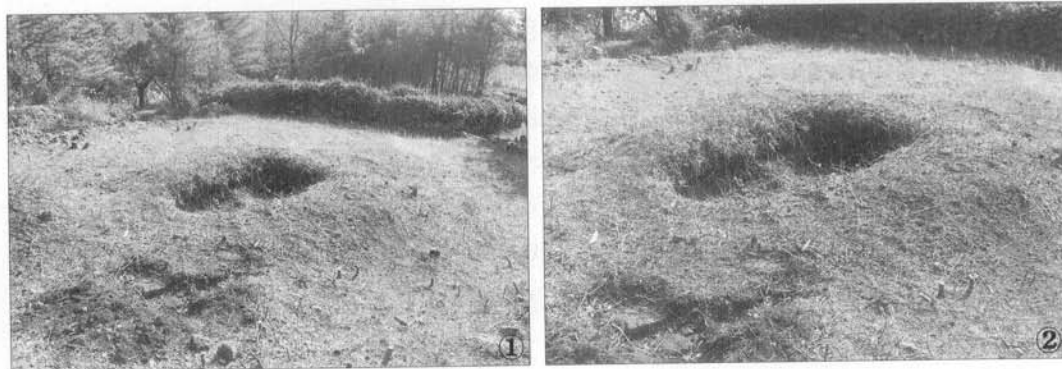


사진 103. ① 3호분 봉분 상태 ② 도굴경



사진 104. 하원동 고분군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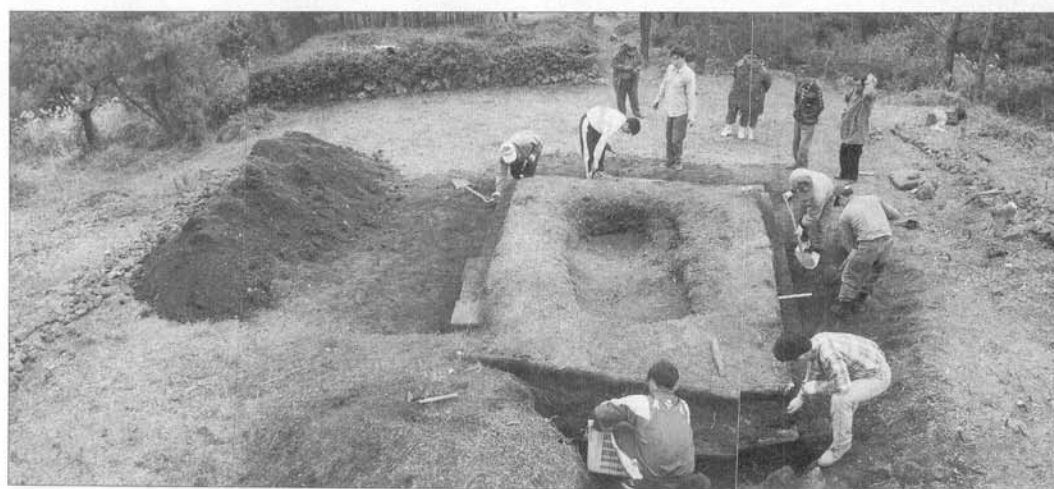


사진 105. 3호분 발굴 광경



사진 106. 하원동 3호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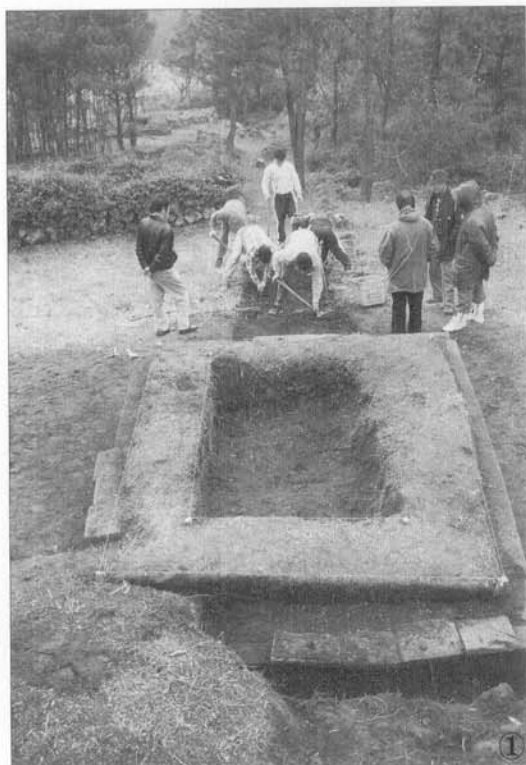


사진 107. ① 발굴광경(1) ② 발굴광경(2) ③ 발굴광경(3)



사진 108. ① 3호분 전경(1) ② 3호분 전경(2) ③ 3호분 전경(3)



사진 109. 사각 테두리 돌담과 석곽



사진 110. 3호분 석곽(위에서)



사진 111. 3호분 석곽(북서에서)



사진 112. 3호분 석곽과 내부 토광



사진 113. 3호분 석곽과 상석



사진 114. 3호분 석곽과 비석



사진 115. 3호분 석곽(정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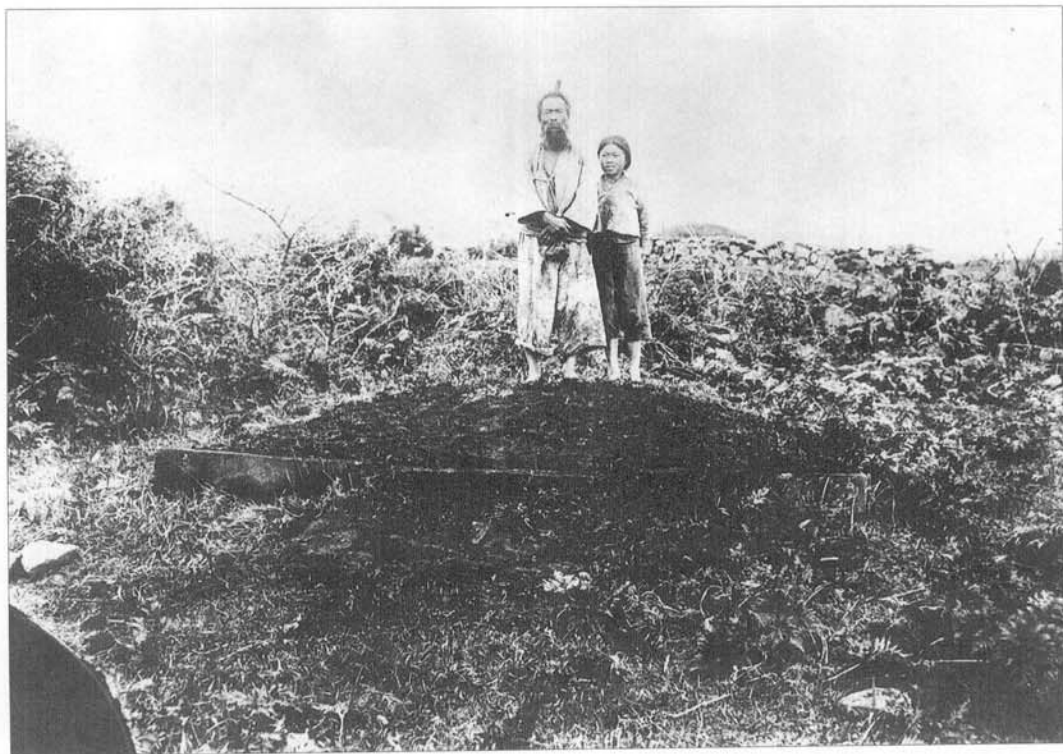


사진 116. 1914년 도굴 당시 3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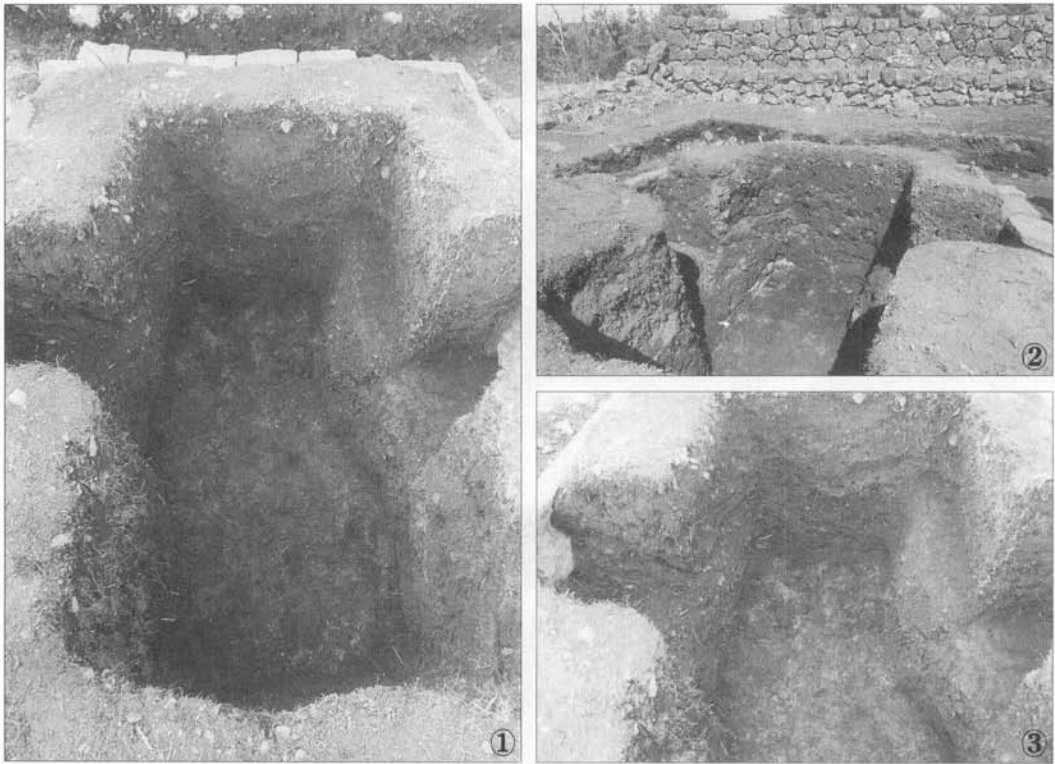


사진 117. ① 토광 ② 토광 북쪽면 ③ 토광 바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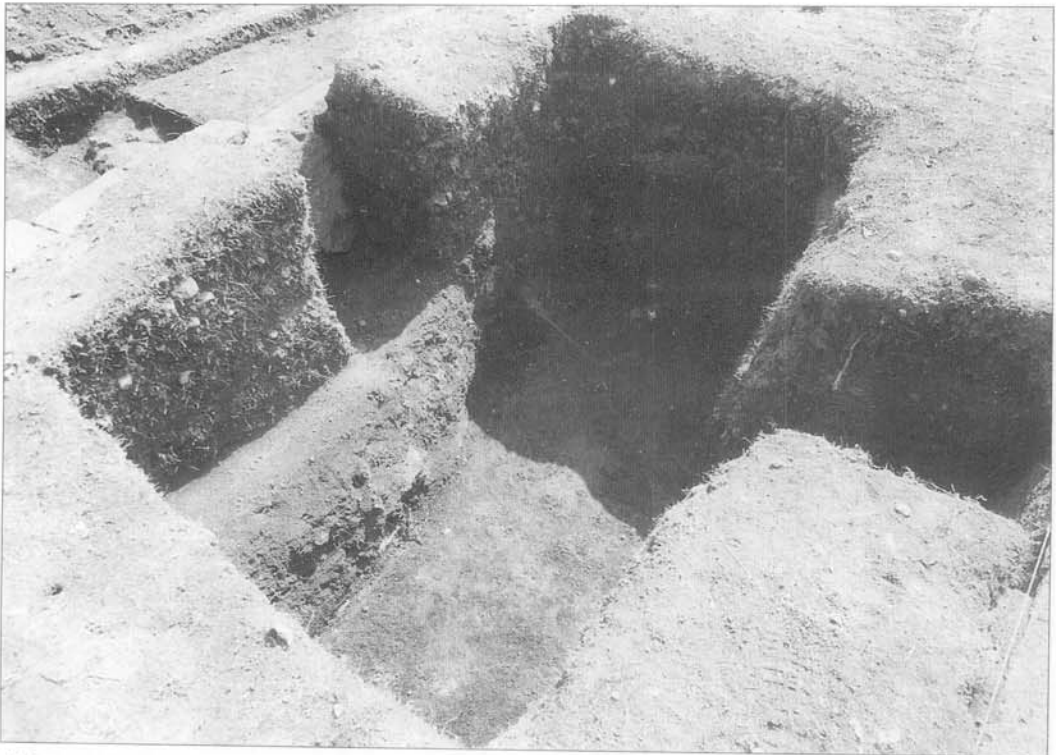


사진 118. 내부 토광



사진 119. 석곽과 상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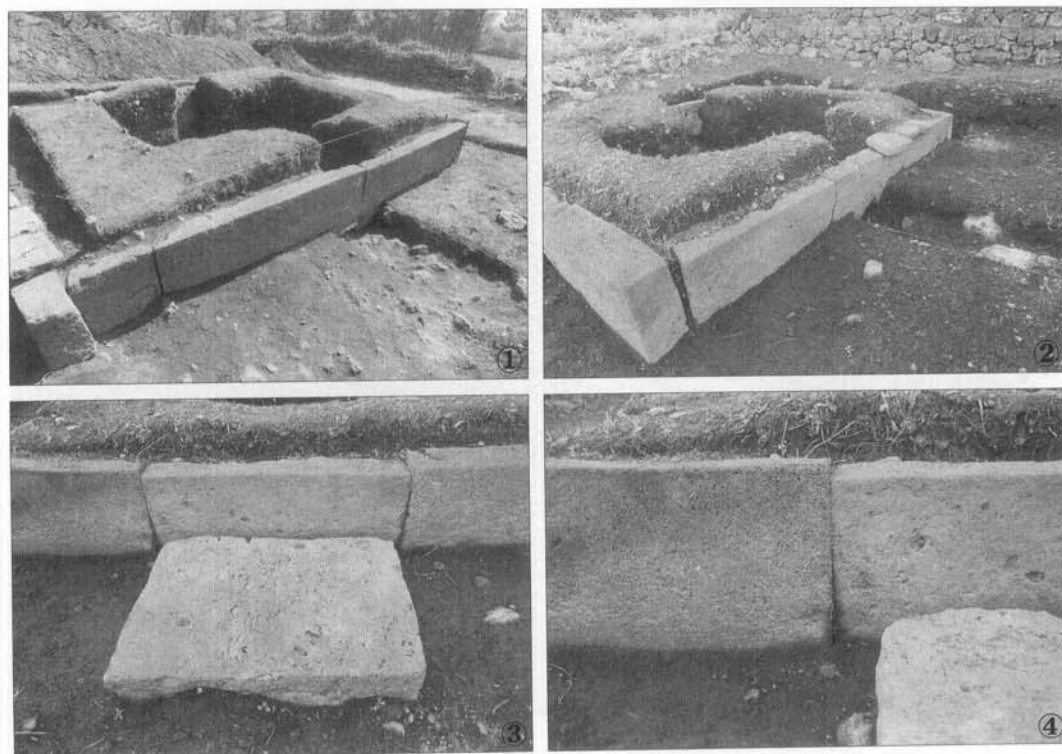


사진 120. ① 석곽 서벽 ② 석곽 동벽 ③ 상세 ④ 석축 외벽 마감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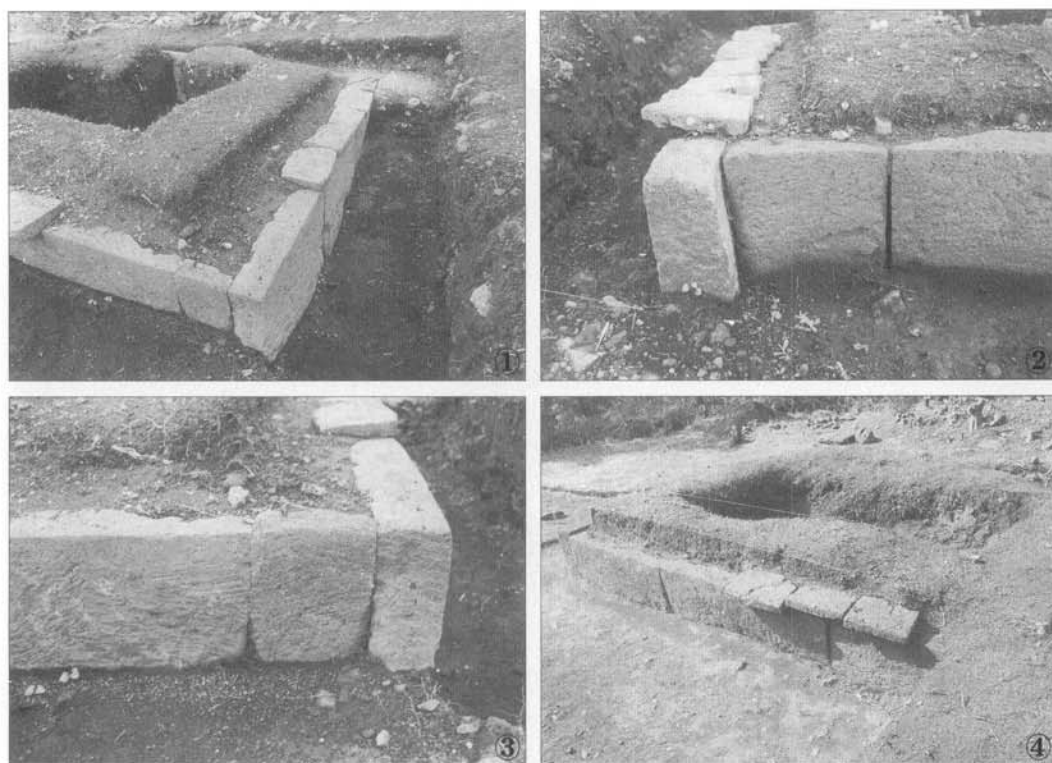


사진 121. ① 석곽 북동편 모서리 ② 석곽 북서편 모서리 ③ 석곽 남동편 모서리 ④ 석곽 북동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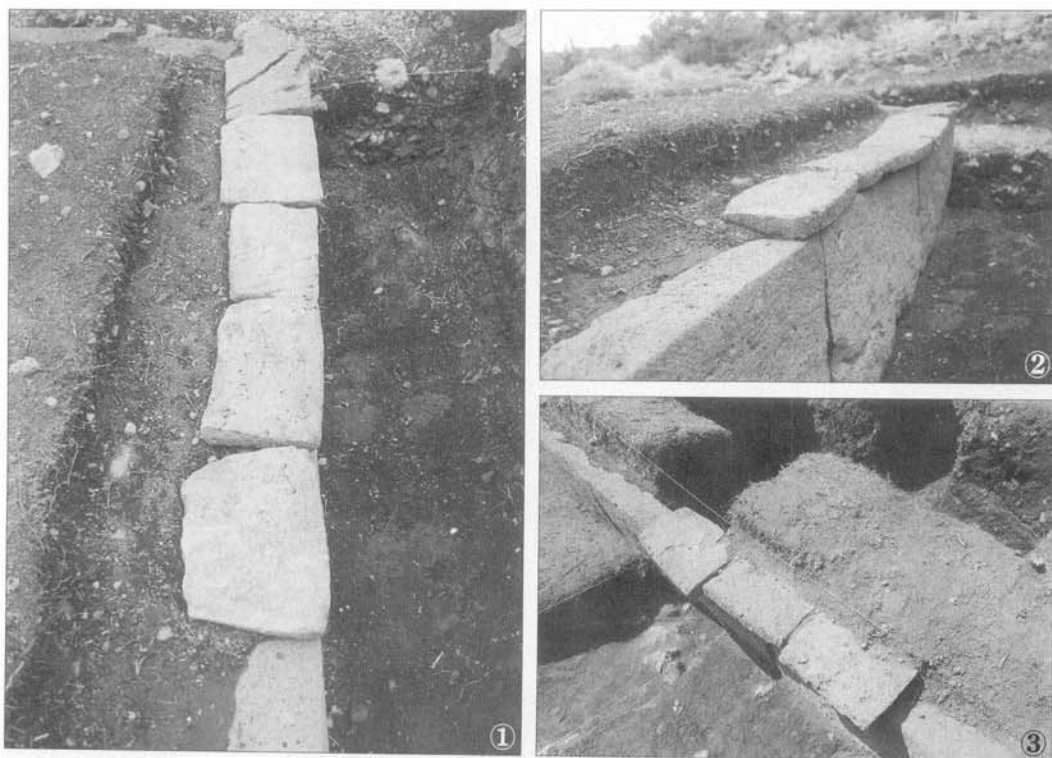


사진 122. ① 석곽 북편 판석 위 비석 ② 비석 측면 ③ 석곽 동편 판석 위 비석



사진 123. 3호분 외곽 테두리 돌담



사진 124. 제2단과 3단 시설



사진 125. 제1단 시설과 상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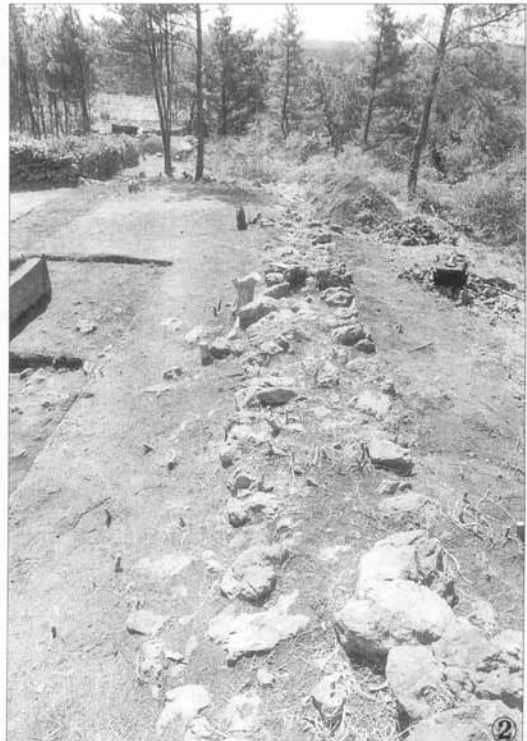


사진 126 ① 동편 테두리 돌담 ② 서편 테두리 돌담

V. 출토 유물

1. 도기 구연부

1호분 제3단 석축열 상단에서 출토되었다. 갈색조를 띠고 있으며 도기 구연부편으로 대접의 구연부로 추정된다. 속심은 암갈색을 띠고 있고 외면은 유가 일부 흐르고 있다. 파편으로 출토되어 정확한 형태는 알 수가 없다. 현고 : 3.6cm 두께 : 0.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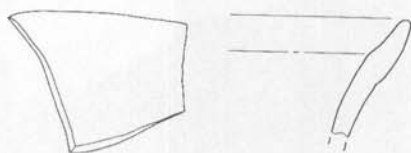


그림 16. 도기 구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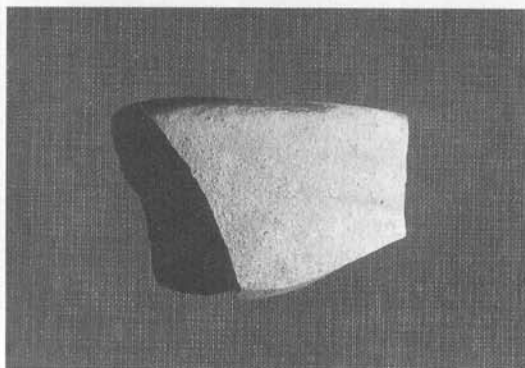


사진 127. 도기 구연부

2. 분청사기 구연부편

3호분 제1단 석축 상부 부식토에서 출토되었다. 분청사기 접시편으로 추정되나 잔존상태가 불량하고 매우 소편이어서 정확한 형태는 알 수가 없다. 구연부편으로 구연에서 서서히 축약되어져 내려오다가 갑자기 급격히 축약되어져 내려오는 기형을 이루고 있다.

현고 : 2.4cm 두께 : 0.3cm



그림 17. 분청사기 구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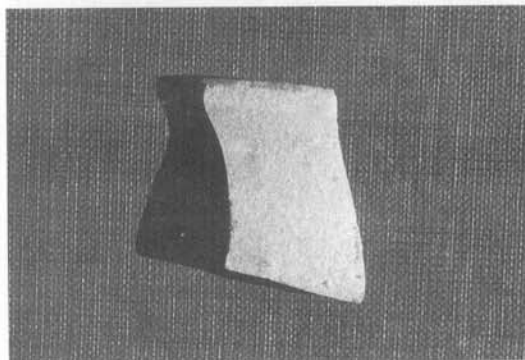


사진 128. 분청사기 구연부

3. 1914년 출토 유물 일괄²⁵⁾

① 백자병(사진 129-①)

1914년 출토품이다. 병은 2점으로 동일한 형식이다. 모두 구연이 파손된 상태이며, 한 점은 몸체가 파손되었으나 복원이 가능하다. 목이 잘록하고 몸체 중앙이 평퍼짐하게 벌어지다가 굽으로 가면서 좁아지는 형태이다. 문양은 없으며, 유약은 회백색의 백자유가 시유되었다. 태토는 회백색이며 소량의 사립이 섞여있는 조질이다. 굽은 직립외경하며 접지면의 언저리를 살짝 깎았다.

② 백자대접(사진 129-③~⑥)

1914년 출토품이다. 대접 ①은 3점으로, 외반된 부드러운 사선을 그리다가 몸체 하부에서 한번 꺾여 굽으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기벽에 물레흔적이 남아있으며 회백색백자유가 시유되었다. 태토는 회백색이며 소량의 사립이 섞여 있다. 굽은 대마디굽이다.

대접 ②는 크기만 작을 뿐 기형, 유색, 태토, 굽 등에서는 대접 ①과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③ 접시(사진 129-⑦~⑧)

1914년 출토품이다. 2점이 모두 동일한 형식이며, 외반된 구연부부터 굽까지 기벽선은 부드러운 호(弧)를 그리고 있으며, 내저에 저정보다 큰 내각원저가 있다. 기벽에는 물레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고 유약은 회백색의 백자유가 시유되었으나 용융상태가 불량하다. 태토는 사립이 섞여 있는 조질이다. 굽은 대마디굽으로 모래를 받쳐 번조한 흔적이 남아있으며 내저에도 태토 비집으로 포개구이한 흔적이 네 곳에 남아있다.

③ 청동제품(사진 130)

1914년에 확인된 유물이다. 이 청동 유물 세트는 청동제 사발과 대접 그리고 가위가 확인된다. 이번 발굴에서 이 청동제 사발편은 3호분 내부 도굴갱에서 확인되었다(사진 131). 파편이어서 실측이 불가능하나 구연부 밑 부분으로 보인다. 現長 2.4cm

25) 국립중앙박물관, 1997, 『유리원판도록』.

이 유리원판도록에는 대정 3년(1914)에 일인에 의해 도굴된 가래천변의 장군총 5매의 사진과 잘못 색인되었는지 알지 못하나 출토품에 대한 유물사진(번호 140099, 140100) 2장이 전한다. 다만 본 발굴에서 3호분 광내부에서 청동편이 다수 수습되었고 전체 분묘 내부에 유물이 1점도 없는 점으로 미루어 당시 도굴 수습된 것이 분명하다.

한 가지 의문이 되는 사실은 대정 3년 12월 5일 발행 ‘朝鮮保閑里의 將軍塚’이라는 題下의 『考古學雜誌』 報告文이다. 1914년에 조사된 지금의 태흥리지경의 고분에서 청동그릇 2점, 도자기용기 6점, 德利 1점, 부식된 기타유물, 경골편이 수습된 바 있어 유리원판 도록 편집시 혹은 일제시대 자료정리시 기재착오로 인해 양자 분묘간의 출토품이 잘못 기재될 가능성이 있음을 밝힌다.

현재 가래천변 출토 유물 일괄은 국립광주박물관에 소장중인 것으로 전해 들었다. 보고서를 제출하기전 실물과 자료를 확인하여야 했으나 국립중앙박물관 유리원판 도록의 내용을 일단 믿고 이 보고서에 기재한다. 따라서 차후 수정의 여지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도움을 준 김재홍학예사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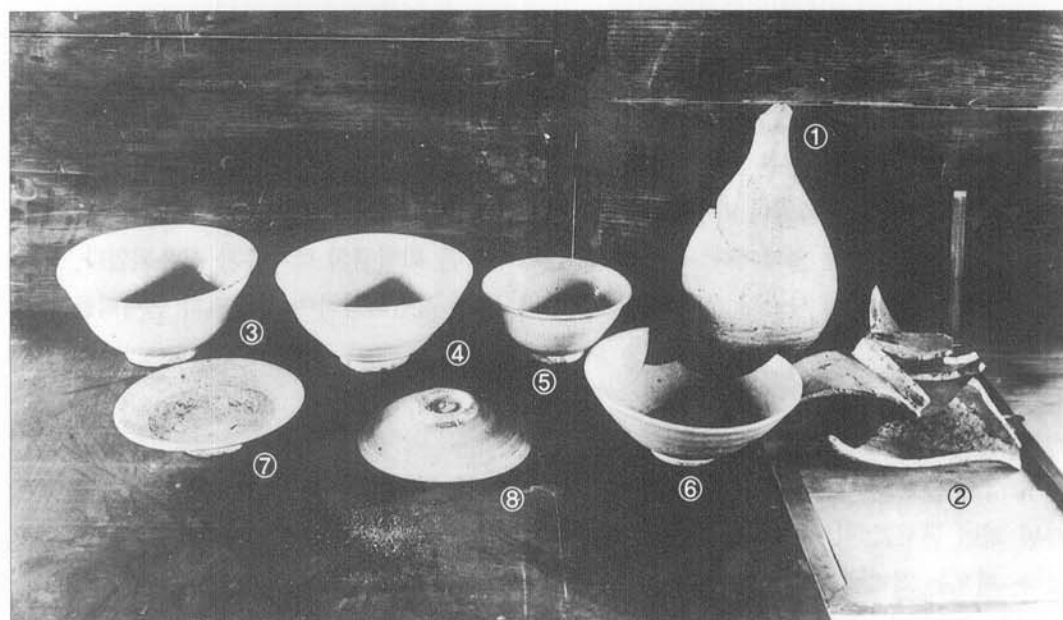


사진 129. 백자편 · 대접 · 접시



사진 130. 청동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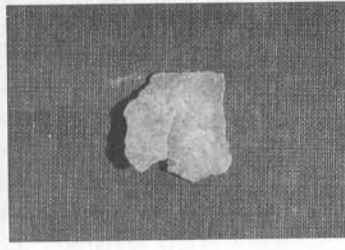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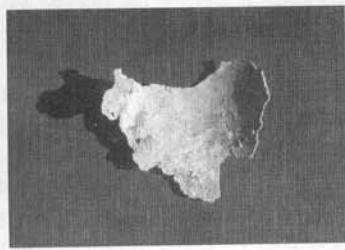


사진 131. 3호분 출토 청동 사발편

4. 文人石

이 석상은 능묘 앞에 세우는 사람형상의 석조물로 능묘를 수호하는 능묘조각의 하나이다. 文石人像, 文官石, 文石人 등으로 불리운다. 고려시대에 정점을 이루었고 조선 시대에는 퇴화형으로 형식화되어 배치된다.

제1호분 묘역내 2단 석축 양 끝에 마주 서있었다. 1914년 사진에는 분명 대칭 배치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목이 없는 문인석 1기가 서편에 위치하고 있다. 나머지 1기는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 이전되어 있다.²⁶⁾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 소장중인 문인석은 높이가 105cm이고, 여러 각선과 관복, 소매자락, 복부중앙에 올린 손의 조각, 홀대를 왼손은 아래에 오른손이 위로 파지된 홀대가 있다. 胸背에 玉帶를 둘렀다. 몸통의 넓이는 37cm이며 홀대의 길이는 50cm이다. 머리는 冠帽를 두었는데 정연하지 않고 형식적이다. 눈과 코는 매우 माम되어 있다. 얼굴의 형상은 원래부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복의 소매자락부위는 뚜렷하나 발꿈치부분과 등 부분은 माम가 매우 심하다.

1호분에 남아있는 문인석은 서편을 향해 서있고 목이 없는 상태이다. 다만 전자의 문인석보다 胸背 혹은 관복의 각선이 매우 뚜렷하게 남아있으며 玉帶의 마디선도 뚜렷하다. 특징적인 것은 笏의 길이가 60cm로 10cm가 길며 손의 파지 순서도 오른손과 왼손이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마주보는 경우 무덤쪽에서는 홀을 든 손이 손 자락으로 감추어져 정상적인 예가 된다. 조각 할 때부터 이점을 고려하여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진 132. 1호분 동편 문인석(도립 박물관 소장)



사진 133. 1호분 서편 문인석

26) 김인호, 1991, 「제주에 고분이 왜 없나?(5)」 돌통시문화(53), 『월간관광제주』 pp. 33-34.

그는 이 문인석상이 비한국적인 요소가 물씬 풍긴다고 하였다. 그 근거로 笏의 길이를 들었다. 한국인이 소지한 홀들은 양팔을 가슴까지 쑥 올려 잡았고, 잡은 홀의 꼬트머리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밑부분을 잡고 있다는 것. 윗부분이 대체로 아래턱 밑에 살짝대고 있으나 王子墓域에 세웠던 석상을 보면 첫눈에 보이는 것이 笏의 길이가 한국의 것에 비하여 엄청나게 길다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홀의 윗 부분을 아랫턱에 갖다 대지 않았다. 곧 把持(파지)양식이 판이하다는 사실이다. 또한 한국의 것에는 수염이 있는데 이것에는 수염이 달렸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가장 특징적인 것은 한국식 관을 썼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석인상을 만든 돌이 제주도 돌이 아니라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제작수법이 제주에서 제주인 石物工이 만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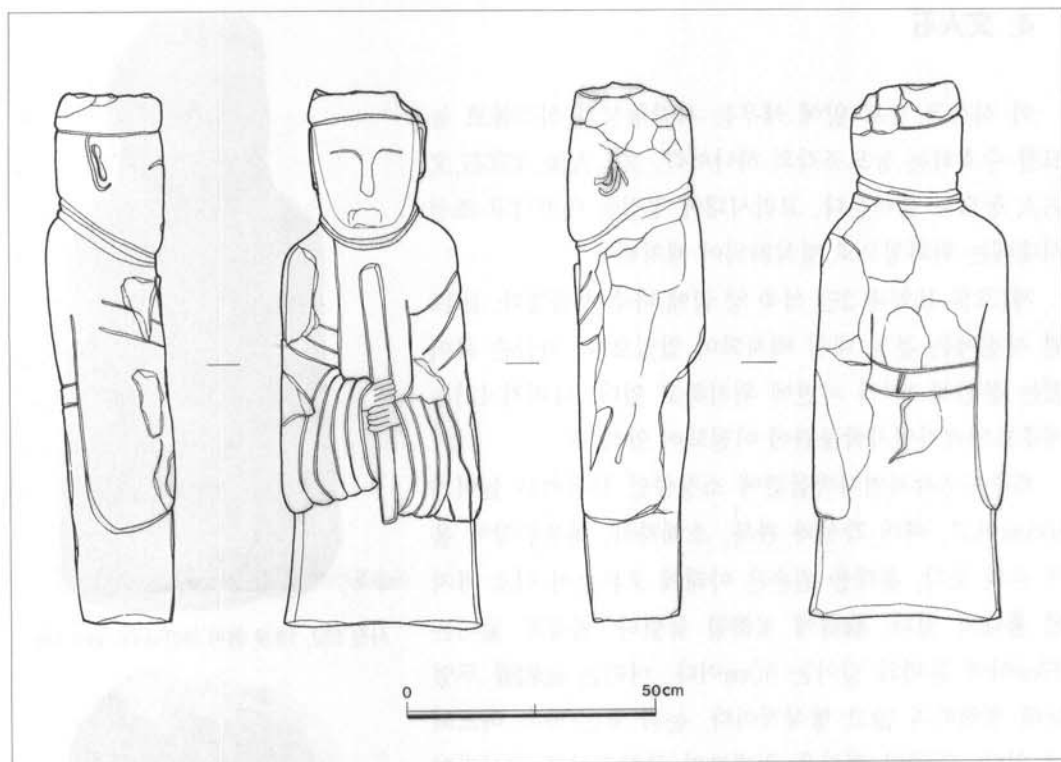


그림 18. 1호분 동편 문인석(도립 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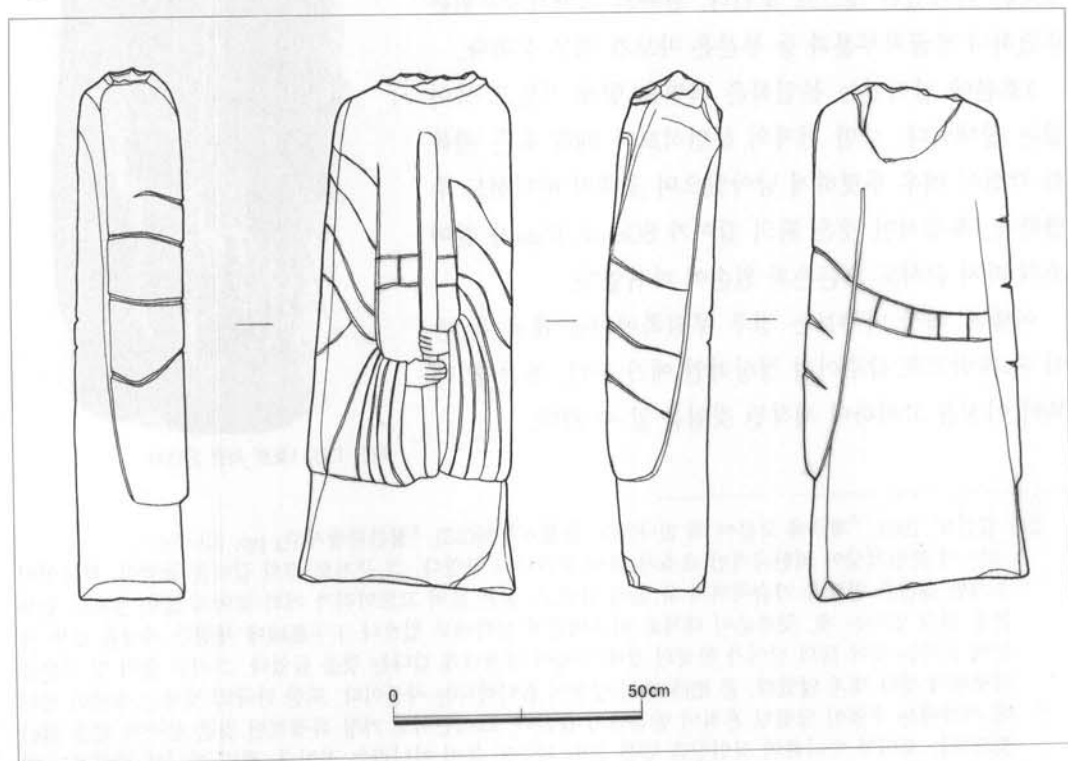


그림 19. 1호분 서편 문인석

5 비좌와 옥개석

제1호분의 정면 석곽 앞에 일종의 신위를 모시는 작은 비석(神位石)²⁷⁾의 비좌와 지붕으로 얹었던 옥개석이 보인다. 비좌는 전체적인 모양이 직사각형이나 한쪽면이 둥글게 돌아간다. 그리고 비석을 세우기 위한 사각홈이 패여있다. 옥개석은 팔작지붕의 형태로 아무런 장식이 없고 단순하며, 처마면석은 ‘—’자로 밋밋하다. 모양은 정사각형에 가까우며 아래쪽 비석에 세웠던 작은 홈이 있다. 위에도 지붕선이 합일되는 곳에 정사각형의 작은 홈이 있다. 비좌석의 홈으로 보아 비석의 폭은 25cm정도이다. 비석의 높이도 50cm이상을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대석은 길이40cm, 폭 18cm, 두께 10cm이다. 옥개석은 장 37cm, 단 3.5cm이고 두께는 0.9~1.2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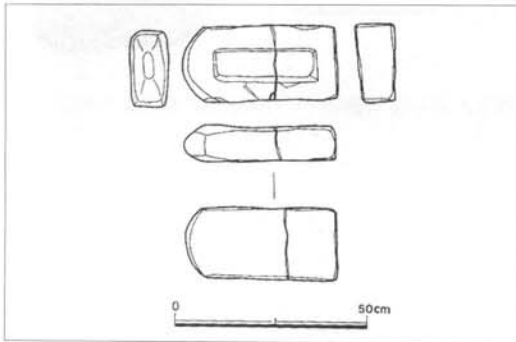


그림 20. 비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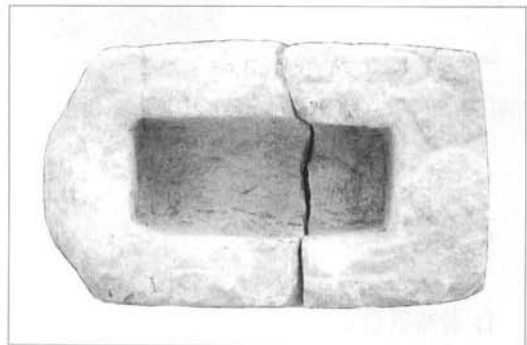


사진 134. 비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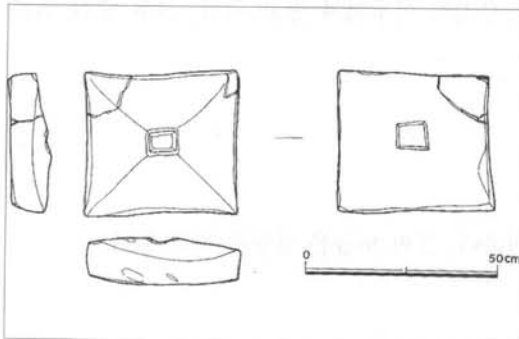


그림 21. 옥개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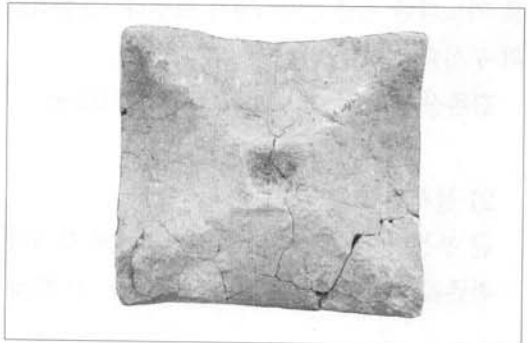


사진 135. 옥개석

6. 원추형 석물

일명 광술등잔대와 비슷하나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다. 신위석의 비좌 앞에 대칭되어 놓여

27) 註 26의 同書, pp.35-36.

그는 이곳 하원동 분묘가 백백태자의 묘일 가능성을 제시한 또하나의 근거로 북방유복민이 갖는 ‘深藏無標’를 들었다. 즉, 외몽고 알타이산맥의 흉노족의 묘제는 모두 지하 깊이 매장되어 있고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의 설에 반하여 1호 앞에 놓인 神位石의 물적 증거는 매우 중요하다.

있던 것으로 발견 당시 대칭된채 놓혀 있었다. 상석의 다리 받침이나 혹은 향을 피우기 위한 돌 향로의 받침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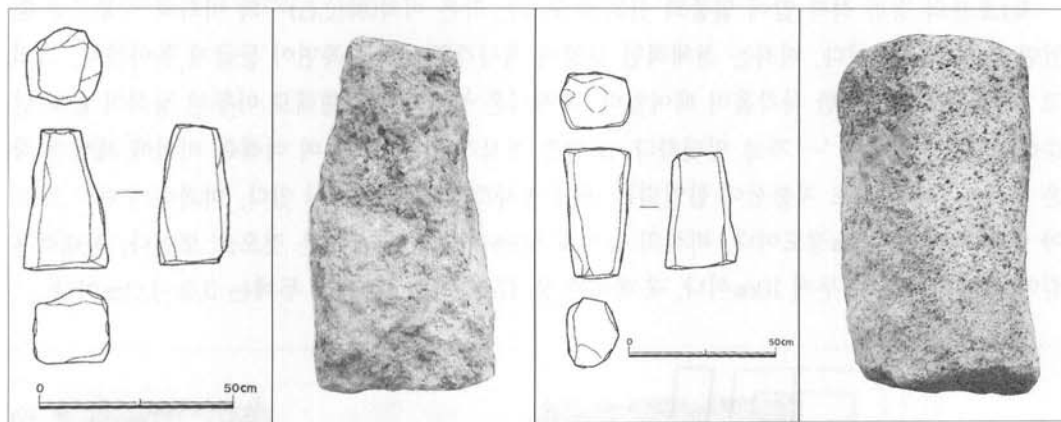


그림 22. 원추형 석물(1)

사진 136. 원추형 석물(1)

그림 23. 원추형 석물(2)

사진 137. 원추형 석물(2)

7. 관정

1) 철제관정①

頭部가 두툼고 뾰족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단면 모습은 직사각형을 하고 있다. 두부에 가로로 가느다란 돌출선이 5개가 보인다. 전반적으로 부식이 이루어져 있고 특히, 신부 중간 부분의 부식이 심하다.

잔존장 : 7cm 두께 : 0.25cm 신폭 : 0.5cm

2) 철제관정②

끝 부분이 결실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부식이 심하다. 단면 모습은 방형을 하고 있다.

잔존長 : 5.4cm 두께 : 0.25cm 신폭 : 0.35cm

3) 철제관정③

전반적으로 부식이 심하고 신부 끝부분이 약간 구부러져 있다. 신부 중간부에 약간의 목질이 붙어있다.

잔존장 : 7.1cm 두께 : 0.3cm 幅 : 0.5cm

4) 철제관정④

단면 직사각형으로 두부가 두껍고 신부 하단으로 갈수록 가늘어 지는 모습을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목질흔이 보이고 신부 하단에 약간의 목질이 붙어 있다.

잔존장 : 4.8cm 두께 : 0.35cm 신폭 : 0.4cm



그림 24. 관정(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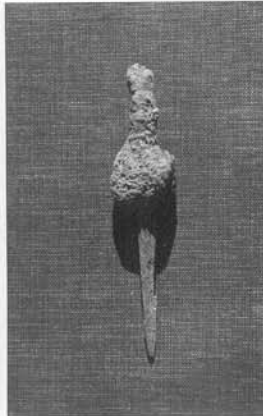


사진 138. 관정(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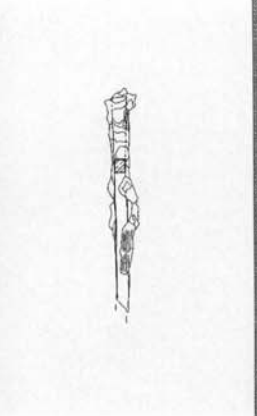


그림 25. 관정(2)



사진 139. 관정(2)



그림 26. 관정(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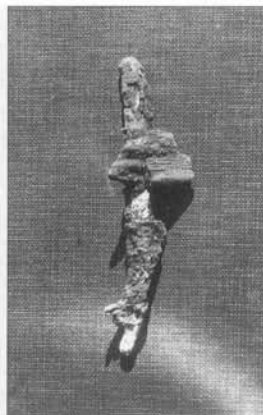


사진 140. 관정(3)



그림 27. 관정(4)



사진 141. 관정(4)

5) 철제관정⑤

신부 하단이 결실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부식이 심하다. 단면은 장방형으로 두부와 신부의 두께가 일정하다.

잔존장 : 5.25cm 신부 : 3.5cm 두께 : 3.5cm

6) 철제관정⑥

끝부분이 결실되어 확실치는 않으나 단면 방형에 두께가 일정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부식이 심하고 약간의 목질흔이 부착되어 있다. 두부와 폭이 두텁고 밑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고 있다.

잔존장 : 4.55cm 신폭 : 0.4cm 두께 : 0.45cm 두부폭 : 0.5cm

7) 철제관정⑦

두부가 두텁고 끝으로 갈수록 폭이 매우 좁아지고 있다. 끝부분이 일부 결실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부식이 심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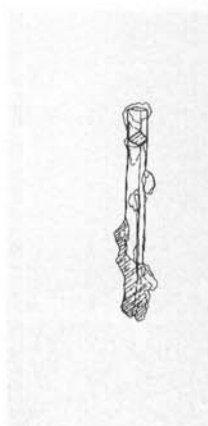


그림 28. 관정(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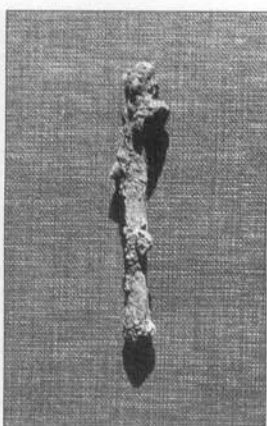


사진 142. 관정(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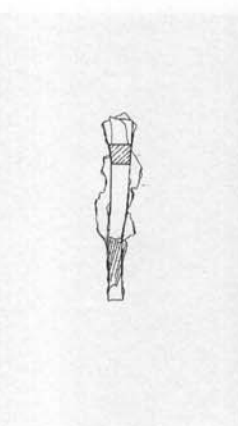


그림 29. 관정(6)



사진 143. 관정(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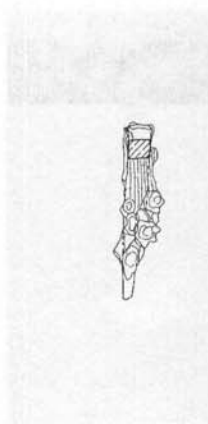


그림 30. 관정(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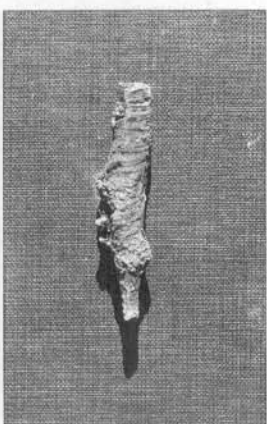


사진 144. 관정(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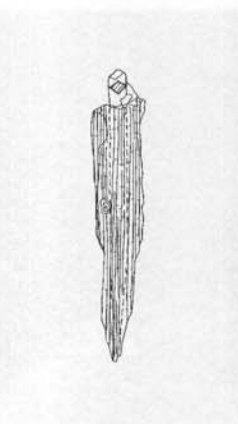


그림 31. 관정(8)



사진 145. 관정(8)

잔존장 : 4.45cm 신폭 : 4cm 두께 : 4cm 두부폭 : 3.5cm

8) 철제관정⑧

두부에서 일정한 두께로 남아있고 두부를 제외한 부분은 대부분 목관편이 그대로 부착되어 있다. 끝부분이 뾰족하고 두부의 단면은 마름모꼴을 취하고 있다.

잔존장 : 7.25cm 신폭 : 0.36cm

두께 : 0.36cm

9) 목관파편

목관의 관정이 박혔던 부분의 목관편으로 보이며 목질의 결이 그대로 남아 있다. 관정에 연결되는 목질로 부식이 심하다.

잔존장 : 4.3cm 두께 : 0.9cm



그림 32. 목관 파편



사진 146. 목관 파편

8. 소옥

청록색의 소옥으로 완형이다. 전체적으로 심하게 부식되고 박리가 심하다. 단면은 육면각체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옥의 중심부에는 꿰맬수 있는 구멍이 뚫려져 있다.

직경 : 0.7cm 두께 : 0.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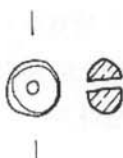


그림 33. 소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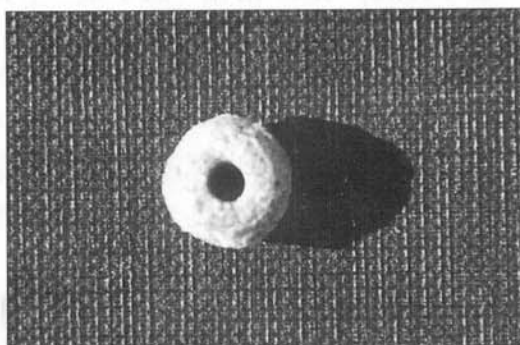


사진 147. 소옥

9. 상평통보

숙종4년 (1678) 이후에 발행된 화폐인 常平通寶다. 이 화폐의 출토지는 제3호분 제1단 석축 서편 부토에서 수습되었다. 완형이며 사용흔이 뚜렷하다. 앞면에는 상하로 '常平', 좌우로 '通寶' 자가 배치되어 있다. 뒷면은 상하로 '平日', 공곽 우측에 '八'字가 확인된다. 뒷면이 마모상태는 매우 심하다. 지름 : 2.2cm, 孔廓 : 0.7cm, 두께 : 0.1~0.2cm.



사진 148. 상평통보 앞면



사진 149. 상평통보 뒷면

10. 기타 무덤관련 석재

1호분 봉토의 상면과 주변에서, 그리고 도굴갱 내부에서 직경 60cm 내외의 현무암제 판석이 9매가 확인되었다. 석곽의 부속석재로 판단된다. 인근 중문동에서 1992년 이러한 석재를 이용한 소형석관묘가 확인된 바 있다. (강창화 · 현문필 · 김종찬)

VII. 綜合考察

1. 河源洞 墳墓 俗稱 ‘王子墓’의 位置

西歸浦市 河源洞 ‘방애(方伊)오름’ 북쪽에 ‘여가밭’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밭의 北端에 주민들에 의하여 소위 ‘王子墓’라 불리는 분묘 3기가 위치해 있다.¹⁾ 墳墓가 位置해 있는 곳은 주민들에 의해 ‘왕자골’이라고도 불린다.²⁾ 朝鮮時代 이 곳은 牧馬場으로 8所場이 위치해 있었으며, 大靜縣에 所屬되어 있었다. 8소장을 당시 ‘間場’이라고도 하였다.³⁾

이 墳墓群 俗稱 ‘王子墓’와 관련되어 전해지는 文獻은 다음과 같다.

①史料 1) 「王子墓：在縣東四十五里 弓山兩川之間 三墓階砌尙存 兩隅有白芍藥 加來村裏 又有宮闕遺砌 疑是毛羅王所都處 俗傳山房爲第二徒云」(李源祚, 『耽羅誌草本』, 大靜縣, 古蹟).

②史料 2) 「王子墓：在縣東四十里 弓山兩川之間 三墓階砌猶存 兩隅有白芍藥 加來村裏 又有宮闕遺礎 疑是毛羅王所都處也 俗云山房爲二徒」(『大靜郡邑誌』〔內題：大靜郡古誌〕, 규 No 10799, 古蹟).

③史料 3) 「王子墓：在縣東四十里 三墓階砌尙存 兩隅有白芍藥 又加來村裏 有宮闕遺址 疑耽羅王子所都處也 世傳山房爲二徒云」(金錫翼, 『心齋集』).

④史料 4) 「王子墓：弓山西有三方墓 階砌尙存 兩隅有白芍藥 加來村裏 有宮闕遺址 又軍山內有一圓墓 其石築甚固焉 按茲兩處荒墳久矣 蓋爲梁高夫文四姓而 居是邦者 宜不若然矣」(李膺鎬, 『毛羅國書』).

위 史料의 內容들은 모두 史料 1)의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다만 거리 상에 있어서 四十五里와 四十里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내용으로 보아 모두 같은 곳 즉, 河源洞 소재의 ‘왕자묘’를 지칭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現在의 地形 즉, 두 개의 河川과 地勢 그리고 芍藥, 3基墓가 분명 현재의 위치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현재 이곳의 地番은 西歸浦市 河源洞 山 21番地이다.

1) 이 묘를 ‘왕자묘’라 불리어 온 사실은 왕자묘 3기 중 맨 북쪽에 위치한 왕자묘 바로 북쪽에 위치한 「處士吳公之墓」의 비문에서도 확인된다. 즉, 1967년에 건립된 비문이기는 하나, 묘소의 위치를 「河源境王子墳北癸作之原」(단기 4300년 정미 정월 일 건립)이라 하여 앞에 언급한 3기의 묘가 ‘王子墳’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

2) 吳軍範(72歲), 서귀포시 하원동 거주.

3) 이러한 사실은 주위의 무덤 곳곳의 비문에서 확인된다.

2. 墳墓群의 築造方法과 性格

1) 墳墓의 築造地形과 墓槨配置

웃간장 일대의 조사 분묘는 모두 3기이다. 이 분묘 3기는 모두 남북으로 길게 이어지는 능선 상에 위치해 있다. 1호분에서 3호분까지의 총 길이는 84m이다. 1호분의 축조된 등고 높이와 3호분과의 높이 차는 1.70m이다. 1호분 묘역 내에는 일반묘가 1기 자리하여 있었고 도굴시 퍼놓은 흙더미가 석곽 북동편에 쌓여있는 상태였다. 이 묘역의 제1단 석축 밑에는 일설에 ‘말무덤’이라 전하는 묘와 유연 분묘 1기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1호분과 능선 중앙에 위치한 2호분의 관계는 주변 석축에의 축조상태에서 관찰된다. 즉 2호분의 축대가 1호분의 북편축대를 덮고 있어 2호분이 후축(後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호분의 묘역 중간에는 김씨묘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 후대묘의 축조시 2호분의 앞쪽 석곽벽을 의지하여 산담을 만들었다. 따라서 이번 발굴에서는 2호분의 전체 석곽 실측이 불가능했다.

2호분과 맨상단의 3호분은 17m가 이격되어 축조되어 있었다. 이 두 개의 묘역사이에는 또 하나의 후대묘역이 자리하고 있다. 이 후대묘역은 3호분의 남쪽석렬과 맞 닿아 있다.

3호분은 대형 판석을 2~3장씩 사용하여 만든 대형 묘이다. 이번 발굴에서 가장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 묘역 역시 1900년대에 축조된 오씨묘역이 북쪽 석축 묘역을 파괴하였다.

이 능선의 모든 묘역은 3단으로 되어 있었다. 지형에 맞게 1단의 축대는 2단과 3단보다 낮게 되어 있었다. 묘역내의 석물배치는 1호분의 경우 문인석을 제2단에 두고 제3단 석곽전면에 상석을 두었다. 1호분의 제1단 석축은 축대를 쌓듯 경사면을 모두 매립하여 수평으로 만들어졌음이 확인되었다.

2) 墳墓의 築造方法

(1) 1호분

① 1호분은 앞으로 기술할 3기의 분묘 중에 가장 잘 만들어진 묘이다. 이 묘는 크게 장방형 돌담묘역 안에 남북장축의 長方形 槨을 두고 그 안에 木棺을 안치하는 형식이다. 장방형의 묘역 안에는 등간격으로 여러 가지 석물이 배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3단구성의 단시설안에 현재는 2단내 문인석 1기와 3단인 묘곽 앞에 소형의 碑座가 확인되었다.

② 墓槨의 築造에 있어, 석곽은 모두 전면(남)에 3枚, 후면(북)에 2枚, 양측면에 5枚, 총 15枚의 多孔質玄武巖製 板石으로 짜여진 남북 장축의 長方形石槨이다. 면을 깨끗이 다듬은 점판암 판석을 맨밑단에 받침돌로 깔고 나서 그 위로 잘 다듬은 현무암제 판석을 세로로 맞춰 세워 곱을 축조하였다. 석벽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받침돌과 석벽판석사이에 잔 자갈을 끼워 넣었다. 세워진 중심 석곽 위로 다시 판석을 경사지게 봉토위에 얹었다. 현재는 대부분의 판석이 유실되어 4매만이 남아 있다. 석곽면은 외벽이 수평과 마감이 잘 되어 있으나 내벽은 거친 자연면

그대로이다.

③ 먼저 남쪽의 석곽면은 3매가 나란히 짜 맞추어져 있으며 길이는 310cm이다. 치석하여 정다듬질 할 당시부터 석재의 높이는 84cm로 조절하였다. 서쪽 석곽은 5매로 이루어져 길이는 438cm이고 평균 높이는 80cm이다. 북쪽편 석곽은 정교하게 정다듬된 판석 2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길이는 294cm이고 평균 높이는 80cm이다. 아랫쪽보다 5cm정도 높이 차가 난다. 동쪽 석곽은 5매로 이루어져 있다. 길이가 408cm이고 높이가 83~85cm이다. 이 부분에서 전체 석곽을 파들어간 掘壕線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석곽의 전체규모를 보면 남북 장축길이가 432cm이고 동서단축 304cm이다.

장축방향은 N26° E이다. 석곽의 높이는 받침석을 포함하여 95~100cm, 석곽만은 80~85cm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약간의 토광을 파고 자연면을 다져 받침석렬을 축조하고 동시에 석곽 석재를 맞추어 배치하는 방법으로 장방형 곽을 축조하였다.

④ 봉토는 석곽 안으로 만들어진 方臺形 봉토분으로 여겨진다. 도굴이 심하여 봉토정상부의 상태는 알 수 없으나 석곽의 레벨보다 30~50cm정도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높이 추정은 내부 단면토층에서 확인된다. 봉토는 주변에서 채취한 흙인 흑갈색부식토인 것으로 여겨진다.

⑤ 내부층위는 표토층-황갈색점질토층-잡석층-황색점질토층(1)-황색점질토층(2)-목탄층-모래층-암반풍화토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토광의 경우 먼저 석곽을 안치하기 위한 굴광선은 현재의 석곽 범위보다 약 20~30cm가량 넓게 확인되고 있다. 이 토광선의 크기는 460×360cm 이고 깊이는 30cm 내외이다. 토광 바닥면을 다진후에 점판암제 할석을 부석하고 그 위로 현무암제 판석을 곧추 세워 열을 맞추었다. 외부토광 안쪽으로 목관을 안치하기 위한 내부토광을 깊이 1m, 크기 320×140cm정도로 만들었다. 현재 석곽 안쪽의 목관자리는 도굴에 의해 거의 대부분이 파괴된 상태이다. 분명한 것은 목관의 크기가 3m를 넘지 않으며 목관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석곽과 목관 사이에 잡석을 끼워 넣은 것으로 판단된다.

⑥ 석곽 내부에서 확인되는 출토유물은 없다. 이미 도굴로 인해 유물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되며 도굴된 범위는 전술한 바의 목탄층과 모래층까지 파 들어갔다. 「국박 유리원판도록」 가래천변 장군총 출토유물(유물번호, 140099·140100)중 백자류가 이곳에서 출토된 것으로 판단된다. 석곽 동쪽 제3단 계단 시설 상부에서 도기병의 경부편 1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석곽 내부에서 확인된 관정은 없다.

⑦ 墓域의 築造에 있어, 주곽의 테두리를 돌린 묘역은 장방형꼴로 크기는 21×15m이다. 묘곽은 주곽 앞으로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단 석축은 1.8m 높이의 석축시설을 만들었고 경사진 자연면 전체를 막돌쌓기로 쌓아 다졌다. 2단은 70cm의 높이로 1단 석축시설과 같은 방법으로 축조하였다. 제3단은 30cm 높이로 전자의 축조방법과 같다. 제3단 석축시설은 曲牆의 역할을 하며 이 석축의 끝부분은 하원동 2호분과 맞물려 있다. 2호분의 전면석축이 1호분의 후면석축을 덮고 있다.

⑧ 曲牆(여장용돌담)은 석곽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데 2단석축부의 서편에 치우쳐 석축보다

한단 높은 曲牆이 시작되어서 동편 석축부에서 끝을 맺는다. 여장은 할석과 잡석을 이용하여 80cm 정도의 높이로 돌아가고 있다.

⑨ 계단시설은 제2단 석축의 도입부에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다. 맨 동편의 계단은 동쪽 끝에서 4m가 이격되어져 있고, 동편의 계단시설은 동쪽석축부에서 4.5m가 안으로 들어와 있다. 이 두 개의 계단시설 정중앙에 3m의 간격을 두고 중앙계단시설이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제2단석축의 크기는 동서 15m, 남북 3.5m로 제1단석축 보다 폭이 좁게 축조되어 있다.

⑩ 비좌는 석곽의 앞면 정중앙에서 40c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놓여 있다. 놓여있는 상태는 매우 안정적이어서 흔들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좌의 앞쪽에 석제 광술등잔대가 대칭적으로 놓여져서 출토되었다. 비석은 없고 비석의 상부의 옥개석이 비좌 동편으로 64cm 정도 떨어져 있다.

⑪ 2단 축대내에 서편에 치우쳐 문인석 1기가 놓여있고 동편에는 문인석 자리만이 남아있다.

(2) 2호분

① 2호분은 ‘옷간장’ 일대의 3기의 분묘 중에 중앙에 위치해 있다. 이 묘는 크게 장방형 돌담 묘역 안에 남북장축의 長方形 槨을 두고 그 안에 木棺을 안치하는 형식이다. 장방형의 묘역 안에는 여러 가지 석물이 배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묘역 중앙에 자리한 후대묘가 들어서면서 낮은 계단시설과 3단구성의 단시설이 완전 파괴되었다. 그리고 석곽의 남쪽 전면석도 후대묘의 묘역담 안으로 들어가 있어 후대묘를 이전하지 않고서는 조사가 불가능했다.

② 먼저 墓槨의 築造에 있어 석곽은 점판암제 할석을 7~8단으로 겹쌓기 즉 수평쌓기로 만들어진 전형적인 석곽형무덤이다. 이 석곽은 맨 밑층인 풍화된 암반층을 깨끗하게 면을 고른 후에 직경 50cm이상의 점판암제 할석을 안정되게 수평으로 열을 맞추어 놓고 그 위로 크고 작은 할석을 이용하여 수평쌓기로 平積하였다. 현재 동쪽면은 7단이상, 북쪽면(후면)은 5단이상, 그리고 서쪽면은 6단 이상이 남아 있다. 특이한 점은 각 모서리마다 사각기둥 형태의 현무암제 판석을 세워 마감하고 있다. 사각기둥 마감석이 석곽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는 2~3단으로 할석을 쌓아 석곽의 상면레벨을 맞추었다. 석곽의 축조순서는 대체로 동쪽 석곽부분부터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의 축조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일부 하단에 80×50cm의 현무암제 대형 판석을 이어 축조했던 흔적이 확인되며 하대석렬의 상태도 정연하다. 이 석곽에 사용된 평균적인 할석의 크기는 50×15cm이다. 석곽의 축조경사는 약 5도정도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맨 밑단이 보일 정도이다. 이러한 석곽의 전체규모를 보면 남북 장축이 510cm이고 동서 단축이 370 cm이다. 장축방향은 N18°E 이다. 석곽의 높이는 90~110cm이다. 이 석곽은 약간의 토광을 파고 자연면을 다져 받침석렬을 축조하고 동시에 석곽석재를 맞추어 배치하는 방법으로 장방형 곽을 축조하였다.

③ 봉토는 석곽 안으로 만들어진 方臺形 봉토분으로 여겨진다. 도굴이 심하여 봉토정상부의 상태는 알 수 없으나 석곽의 레벨보다 50cm정도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높이 추정은 내부 단면토층에서 확인된다. 이 석곽의 봉토는 前述한 바와 같이 밑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다

소 좁아드는 형태로 축조되어 있다. 봉토는 주변에서 채취한 흙인 흑갈색부식토인 것으로 여겨진다. 내부 층위는 크게 위에서 표토층-황갈색점질토층-황색점질토층-목탄층-모래층-암반 풍화토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④ 이 석곽묘의 토광선은 먼저 석곽을 안치하기 위한 굴광선이 현재의 석곽 범위에 맞추어 약 10~20cm가량 넓게 확인되었다. 이 토광선의 크기는 460×360cm이고 깊이는 20cm 내외이다. 토광 바닥면을 다진후에 대형 점판암제 할석을 부석하고 그 위로 크고 작은 할석형 석재를 평적하여 석렬을 맞추었다. 석곽의 바깥면은 모두 정연하나 안쪽면은 자연면으로 불규칙하다. 석곽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부석과 할석석재 사이에는 작은 돌을 끼워 수평을 유지하여 축조하였다. 외부토광 안쪽으로 목관을 안치하기 위한 내부토광을 깊이 0.7m, 크기 320×140cm정도로 만들었다. 도굴이 심하여 목관의 크기는 알 수가 없다. 현재 석곽 안쪽에 목관자리는 거의 대부분이 파괴된 상태이다. 분명한 것은 목관의 크기가 3m를 넘지 않으며 목관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보강토를 넣은 것으로 판단된다. 석곽 내부에서 확인되는 출토유물은 없다.

⑤ 주곽의 테두리를 돌린 묘역은 장방형꼴로 크기는 22×14.5m이고, 돌담의 폭은 0.8~1.1m이다. 묘곽은 주곽 앞으로 3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묘역 중앙에 자리한 후대묘가 들어서면서 낮은 계단시설과 3단구성의 단시설이 완전 파괴된 상태이다.

⑥ 여장용돌담은 석곽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데 1호분이 2단석축부의 서편에 치우쳐 석축보다 한단 높은 曲牆이 시작되어서 동편 석축부에서 끝을 맺는 것과는 달리 이 돌담은 평균 높이 50cm 정도로 균일하게 돌려져 있다. 원래는 계단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는 파괴가 심하여 알 수 없다. 또한 상석 등의 석물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상석이 있을 자리에 후대 묘역이 자리하고 있어 알 수 없다.

(3) 3호분

① 이 분묘는 '웃간장' 일대의 능선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 묘제의 축조방법상 가장 이른 시기의 묘제로 판단된다. 중간에 자리한 2호분에서 북향으로 25.3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② 외부석곽은 모두 전면(남)에 3枚, 후면(북)에 3枚, 동쪽면에 4枚, 서쪽면에 3枚, 총 13枚의 多孔質玄武巖製 板石으로 짜여진 남북 장축의 長方形石槨이다.

낮은 토광을 파서 바닥면을 다지고 잘 다듬은 현무암제 판석을 세로로 맞춰 세워 곱을 축조하였다. 바닥과 석벽 판석사이, 판석과 판석사이에 잔 자갈을 끼움없이 질서정연하게 곱을 세우고 짜맞췄다. 세워진 중심 석곽 위로 봉토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다시 납작한 橢石형 판석을 두고 그 위로 봉토를 엮었다.

먼저 남쪽의 석곽면은 3매가 나란히 짜 맞추어져 있으며 1914년 日人에 의해 도굴될 당시에 사진상태 그대로다. 전체 길이는 316cm이고 높이는 60cm이다. 서쪽 석곽은 3매로 이루어져 있으며 길이는 400cm이고 평균 높이는 59cm이다. 북쪽 석곽은 정교하게 정다듬질된 판석 3매로 이루어져 있으며 석곽렬 위로 현무암제 미석이 놓여 있다. 전체길이는 284cm이고 평균 높이는

길이는 알 수 없으나 1호분이 석곽후면에서 4m가량 밖으로 나와 후면 돌담이 설치되어 있어 적어도 18m 이상 되는 것으로 보인다. 돌담의 폭은 1.2~1.5m이다. 묘곽은 주곽 앞으로 3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제1단 전면 석축 가로렬과 3단 후면석렬 길이가 3m 이상 차이가 난다. 부채꼴 모양으로 전면이 넓게 만들어져 있다. 사면의 석곽과 함께 남쪽부분(前面)이 넓게 되어 있어 전체가 조화를 이루게 조영되어 있다. 다만 동쪽 묘역담이 약간 비뚤어져 있다. 따라서 전체의 묘역상태가 정확히 말하면 장방형꼴에서 말각된 마름모꼴을 취하고 있다. 이 곳은 매립부가 아닌 원래 높은 후면을 平削하여 석곽을 중앙에 축조하였다.

⑦ 여장용돌담은 석곽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데 1호분이 2단석축부의 서편에 치우쳐 석축보다 한단 높은 曲牆이 시작되어 동편 석축부에서 끝을 맺는 것과는 달리 이 묘역은 제3단 석열에서 평균 높이 30cm 정도로 균일하게 둘러져 있다. 계단시설은 각 담마다 높이가 낮아 원래부터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⑧ 석곽 전면석열에서 7cm 간격을 두고 100×81×15cm 크기의 상석이 놓여 있다. 다른 석물도 배치되어 있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3. 墳墓間의 比較와 築造序列

① 분묘의 입지가 자연적인 능선상에 일직선상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능선 맨아래쪽의 묘를 2m 높이의 축대를 만들어, 밖에서 보면 상당히 거대한 묘역을 연상케하며 특히 3단구성의 축대와 곡장형태의 돌담을 만들어 성역화하였다. 이 묘는 전체적으로 보면 계단식 석곽분이다. 또한 분묘가 자리한 위치가 한눈에 보아도 풍수지리를 염두에 두었음을 알 수 있으며 맨 상당의 묘역이 가장 좋은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

② 3기의 분묘가 자리한 능선을 보면 3호분이 가장 중심 지형에 있다. 그리고 1호분의 지형이 가장 가파르다. 1호분의 조성은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곽의 구조와 각종 석물(비석과 등잔대, 문인석)과 계단시설, 축대등으로 미루어 3기의 분묘 중 가장 세력이 왕성했을 때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2호분의 남쪽 테두리 돌담이 1호분의 북쪽 테두리돌담(曲牆)에 상부로 지나가면서 1호분의 석렬을 다소 파괴하였다. 즉 1호분과 2호분이 서로 중복되어 있다. 1호와 2호분의 피장자는 서로 일정한 연관이 있다⁴⁾.

4) 1호분은 정교한 석곽형태와 석물 갖추세로 보아 분명 남자의 묘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이처럼 호석의 중첩되는 경우 부부관계로 추정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제주에 내려온 백백태자 일행의 예로 건주면 六十奴는 1391년(공양왕 3)에 사망하였고, 백백태자는 1404년(태종 4)에 사망하였으며, 백백태자의 처는 1444년(세종 26)까지 생존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백백태자의 처는 그후 얼마 없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모두 탐라에서 사망하였음을 감안할 때, 이들 또는 제주에 유배되었던 元室家族의 무덤들이 제주에 남아 있다면, 동 하원동 3기의 무덤이 백백태자, 그의 아들 육십노, 백백태자의 처와 관련된 무덤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④ 3호분은 능선의 균형적인 배치상태로 보아 가장 先行하는 묘제로 보아진다.⁵⁾ 3호분에서 소옥과 관정, 청동그릇편이 수습되었다. 그리고 석곽상부는 楯石列이 있다. 이러한 미석렬은 진주평거동고분 고려 중기묘역에서 확인된다.

⑤ 따라서 동분묘군의 서열은 3호분이 먼저 축조되고 다음으로 1호분이, 마지막으로 2호분이 축조되었다. 3호분은 유물로 보아 고려말기에서 조선초기에 해당하고 1호분과 2호분은 조선초기로 판단된다. 국박유리원판 140100번 ‘가래천변 장군충 출토유물’이 확실하다면 15세기 중엽에서 16세기초기에 2호분을 축조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⑥ 또한 이 묘제는 제주시 화북동 거로마을에 위치한 耽羅星主高鳳禮推定 夫婦墓域과 비교된다. 특히 화북동 1호묘는 하원동 2호묘와 축조방법이 같으며 화북동 2호묘와 하원동1, 3호묘의 축조방법과 장법, 묘제의 형태가 동일하다.⁶⁾ 화북동 거로마을 묘역 1호분에서 출토된 초기백자편은 국박유리원판에 소개된 1914년 수습 하원동분묘 도자기 유물세트와 같은 시기유물이다.⁷⁾

⑦ 하원동 분묘는 분묘 위치와 곡장의 중복관계를 통해 확인 된 축조서열은 다음과 같다.

名稱	墓槨 構造			墓域 規模(cm)			石槨 規模(cm)			木棺 有無	出土 遺物	備考
	海拔(m)	石材	枕向	長	短	高	長	短	高			
1號墳	224.3	판석	N26°E	2100	1500	30~180	432	304	95~100	有	·	中
2號墳	228.2	합석	N18°E	2200	1450	80~110	510	370	90~110	有	·	後
3號墳	234.5	판석	N29°E	1800	1300	10~50	450	310	60~70	有	청동제사발, 소형 구슬, 철계관정등	先

4. 하원동분묘군 소위 ‘王子墓’의 解析

본래 성주·왕자란 칭호는 탐라국 군장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던 칭호를 宗主國(신라 혹은 고려)으로부터 승인 冊封받는 형식으로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⁸⁾

『星主高氏家傳』에 의하면 고려 태조대에 梁且美가 왕자를 역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로써 왕자직을 양씨가 계승한 것인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왕자직이 양씨에 의해 계승되었다는 사료를 『高麗史』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오히려 『高麗史』에 의하면 왕자직은 문씨에 의해 계승되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더구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문씨는 본래 복성현인이었는데 탐라에 들어와 고씨의 사위가 되었으며, 그 자손들은 고씨의 왕자직을 세습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문씨는 바로 남평문씨이며, 그 이후 제주에 세거한 문씨를 남평문씨 남제공파라 부르고 있다.

5) 이와 유사한 분묘의 발견 예는 경북 구미시 인의동 산 48번지에 위치한 방형석곽묘가 발굴되었다. 이 분묘군 중 8호분과 10호분에서 청동합, 숟가락, 옥 등이 출토되어 고려시대 말기묘로 추정하였다(대구대학교박물관, 1995, 「구미 인의·진평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문화유적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6) 濟州大學校博物館, 1997, 「耽羅星主高鳳禮墓推定址」.

7) 濟州大學校博物館, 1997, 「耽羅星主高鳳禮墓推定址」p.67 圖面15의 ②.

8) 文暉鉉, 「耽羅國 星主·王子考」, 『龍巖車文變教授 華甲紀念 史學論叢』, 신서원, 1989, p.261.

史書에서 확인되는 남평문씨 남제공파의 왕자직 역임자는 文昌祐,⁹⁾ 文昌裕,¹⁰⁾ 文公濟,¹¹⁾ 文臣輔,¹²⁾ 文忠傑,¹³⁾ 文忠甫,¹⁴⁾ 文忠世¹⁵⁾ 등이다. 이 외에 文承瑞가 왕자를 역임한 것으로 『南平文氏世譜』에 나타나 있으나 그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볼 때 탐라국 지배세력이었던 성주·왕자에서 왕자는 적어도 고려후기에서 조선초까지는 文氏 氏族이 계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속칭 ‘왕자묘’가 탐라국 지배세력을 의미하는 성주·왕자의 ‘왕자묘’를 의미한다면, 이는 文氏 氏族과 관련된 분묘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반하여 梁王의 王子 伯伯太子墓일 가능성에 대해 일찍이 김태능은 하원리 소재 왕자묘에 대하여 원 순제의 피난궁전지를 언급하면서 원 황실의 후손, 즉 梁王의 왕자¹⁶⁾ 백백태자의墓일 가능성을 제기한 바가 있다.¹⁷⁾ 그가 지적한 바의 중요한 근거는 문인석이다.¹⁸⁾ 이 문인석

9) 金錫翼, 『心齋集』(影印, 도서출판제주문화, 1990).

10) 『高麗史』충렬왕 20년, 11월 경술.

11) 李元鎮, 『耽羅誌』, 건치연혁.

12) 李元鎮, 『耽羅誌』, 건치연혁.

13) 『東文選』, 「星主高氏家傳」.

14) 『太祖實錄』권8, 태조 4년 7월 갑진.

15) 金錫翼, 『耽羅紀年』, 권2, 태종 2년.

16) 元을 멸망시킨 明이 제주도를 원 황실 가족의 거주지로 이용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즉, 명의 태조는 1381년 원의 세력으로 끝까지 남아 항거하고 있던 雲南을 정벌하고, 1382년 4월에 운남왕 把L 刺瓦爾密的 威順王子 伯伯(일명 伯伯太子, 拍拍太子)과 백백의 아들 六十奴 등 그의 가족을 모두 탐라에 유배시켰다. 그리고 명은 1388년 北元을 정벌할 때 귀순해 온 達達親王 등 80여 호를 탐라에 유배시키기 위해 고려로 하여금 거처할 곳을 마련해 달라고 하니, 고려에서는 85棟의 집을 마련하였다. 또 명은 1389년에 梁王의 子孫 愛顔帖木兒 등 4명을 제주에 보내어 백백태자 등과 함께 거주하게 하였다(高昌錫, 「元室家屬의 流配」, 『濟州道誌』 1권 역사편(제주도청, 1993), p.791~794).

이와 같이 고려말에 원의 황실 가족이 많이 제주에 유배되었으며, 그보다 앞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원에서 탐라에 목수를 파견하여 원의 피난궁전을 건축하려 했던 점들을 고려할 때 원의 황실 가족이 많이 거주했던 것은 분명하다.

17) 金泰能, 「元順帝의 避難宮殿址와 伯伯太자의 墓」, 『제주도』 31, 제주도청, 1967, p.191. 이 글에 의하면 하원리 소재 동 분묘군에 대하여 원 순제의 피난궁전지를 언급하면서 원 황실의 후손, 즉 梁王의 왕자 백백태자의墓일 가능성을 제기한 바가 있다. 그는 “法華寺 東北方 2키로 地點에 王子墓라는 獨特한 墓型의 古墳이 있는데 이 墓가 濟州土官職이었던 「星主·王子」의 王子墓가 아니고 太宗 4년에 濟州에서 謫死한 梁王의 王子 伯伯太子的 墓所를 地方人들이 오랫동안 내려오는 동안에 잘못 口傳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한 바와 같이, 하원동 소재의 왕자묘는 백백태자의墓로 지방민들에 의해 성주·왕자의 왕자묘로 불리워지고 있는 것은 구전되는 동안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근거로 “분묘 兩側에 粗面岩으로 彫刻된 文官石像이 冠服, 冠帶, 손가락과 冠服소매 주름 조갯상태 官帽의 조각이 제주도에서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文官石像의 冠과는 그 모양이 다른 듯이 보인다”는 점을 들었다.

18) 김인호, 1991, 「제주에 고분이 왜 없나?(5)」, 『동통시문화』(53), 『월간관광제주』, pp.33-34에 의하면 이 문인석상이 비 한국적인 요소가 물론 풍긴다고 하였다. 그 근거로 笏의 길이를 들었다. 한국인의 소지한 홀들은 양팔을 가슴팍까지 쑥 올려 잡았고, 잡은 홀의 그트머리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밑부분을 잡고 있다는 것, 윗부분이 대체로 아래턱 밑에 살짝대고 있으나 王子墓域에 세웠던 석상을 보면 첫눈에 보이는 것이 笏의길이가 한국의 것에 비하여 엄청나게 길다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홀의 윗 부분을 아랫턱에 갖다 대지 않았다. 곧 把持(파지)양식이 판이하다는 사실이다. 또또한 한국의 것에는 수염이 있는데 이것에는 수염이 달렸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가장 특징적인 것은 한국식 관을 썼던 것으로는

은 당시의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 그리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문관석 2기 중 1기는 현재 제주도 민속자연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墓廷에 남아 있는 문관석 1기는 목이 찢려 나간 채 지금도 남아 있다.

여기서 몇가지 김태능과 김인호의 설에 대하여, 발굴조사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있다.

첫째는 김인호가 주장한 유목민의 갖고 있는 일종의 무덤형식인 ‘上不起墳’·‘深藏無標’ 설이다. 발굴한 하원동 분묘의 석곽 앞에는 상석과 비석이 놓여있어 분명 ‘無標’가 아니다.

둘째는 그가 주장했던 소위 ‘말무덤(馬塚)’은 무덤 주위에는 없다. 봉토 주위에 흩어져 있던 원형 흙무더기는 모두 1914년 도굴시 쌓아 놓은 흙으로 조사되었다.

셋째는 김태능의 지적한 바 하원동 분묘는 원의 백백태자의 묘라고 주장한 가장 큰 근거인 文官石 혹은 文人石의 異國風, 즉 적어도 한국풍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문관석은 지역에 따라 그리고 매장자의 신분에 따라 다르게 제작되었다. 이러한 점은 제주도의 석상이 육지와는 크게 다른 점에서도 읽을 수 있으며 笏, 官服, 脚線의 수려함이 마치 이국적인 것은 석상을 만든 장인의 기술이 우수함을 지적한 것과 같다. 따라서 이 문인석은 이국풍이 아니다.

넷째 탐라국 지배세력이었던 왕자의 묘인지, 아니면 元의 梁王子와 관련된 분묘인지 정확히 알 길은 없지만, 제주도 내에는 소위 ‘왕자묘’라 불리어 오는 분묘가 여러 곳에 위치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¹⁹⁾ 한라산 남쪽만 하더라도 서귀포시 상예동에 1기, 강정동에 2기, 하원동에 3기 등 모두 6기의 왕자묘가 그것이다.²⁰⁾

보이지 아니하며 석인상을 만든 돌이 제주도 돌이 아니라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제작수법이 제주에서 제주인 石工이 만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는 이곳 하원동 분묘가 백백태자의 묘일 가능성을 제시한 또하나의 근거로 북방유목민 갖는 ‘深藏無標’를 들었다. 즉, 외몽고 알타이산맥의 흉노족의 묘제는 모두 지하 깊이 매장되어 있고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의 설에 반하여 1호 앞에 놓인 神位石의 물적 증거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김인호, 1996, 『濟州島 古墳에 대한 一考察』, 『濟州島史研究』4 에서는 제주도 최초의 매장 풍습은 《太宗實錄》에 나타난 ‘高得宗의 墓’에서 매장 풍습이 등장하며 이 이전에는 유목인의 매장 풍습인 ‘上不起墳’ 이하 하여 시체를 땅소 깊숙히 매장하고 지상에 봉토를 조성하지 않는 고분이 있다고 했다.

19) 이에 대해서는 일찍이 ‘南平文氏南濟公派宗門會’에서 여러 차례 현장답사를 실시해 확인한 바가 있다(南平文氏南濟公派宗門會, 『耽羅王子』, 제3호, 1997, pp. 15~19 참조). 필자도 同宗門會의 안내로 현장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외에 弓山 근처에 대왕묘와 軍山에 장군묘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소재를 확인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20) 상예동에 소재한 왕자묘는 軍山峰 중턱 속칭 ‘왕자고을’이라는 田에 위치하고 있다. 문헌 자료에 의하면, 「王子墓：弓山西有三方墓 階砌尙存 兩隅有白芍藥 加來村裡 有宮闕遺址 又軍山內有一圓墓 其石築甚固焉 按茲兩處荒墳久矣 蓋爲梁高夫文四姓而 居是邦者 宜不若惹然矣(李膺鎬, 『毛羅圖書』)」이라 하여 군산 내에 왕자묘라 불리는 하나의 원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 원묘가 현재의 왕자묘라 불리는 무덤인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현재 이 圓墓 영역내에는 「鄉大夫李公之墓」라는 비석과 함께 묘 1기가 투장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 원묘는 그동안 방치되어 왔기 때문에 이 투장묘 주인이 관리해 오고 있다. 다음 강정동의 왕자묘 2기 중 1기는 속칭 ‘월산동’에 위치했던 方墓로 추정되는 분묘이며, 다른 1기는 속칭 ‘중백이왓’에 위치했던 분묘로 묘의 형태는 추정할 수가 없다. 古老들의 증언에 의하면 여러 차례 도굴된 채로 해방 후까지도 분묘의 형태가 남아 있었으나, 감귤원이 조성되면서 그 형태가 사라지고 분묘에 사용되었던 석축만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 만으로도 김태능과 김인호의 하원동 분묘군은 곧 백백태자의 묘라고 하는 주장은 그 근거가 미약하다.

그렇다면 이 묘에 묻힌 주인공은 누구일까? 1호분 앞에 비석이 있었고 3호분에는 상석이 있다. 이것은 분명 분묘 축조 당시에 만들어 졌거나 후손에 의해 후에 세워졌을 것이다.²¹⁾ 발굴과정에서 석곽내부에서 나온 유물은 아니나 봉토 주위에서 상평통보(숙종4년, 1678년 이후 발행)와 도기병, 분청사기가 확인되었다. 이는 이 분묘군의 후손들에 의해 계속 관리되어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이다.

실제로 이 분묘군은 최근까지 고씨 집안에서 관리해 왔다.²²⁾ 그래서 이 분묘와 高氏 집안과 일정한 연관이 있지 않았나 싶다. 즉, 文忠傑의 사위가 高鳳禮²³⁾임을 감안하면 이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왜 이 분묘가 外孫인 고씨 집안에서 관리되어져 왔을까?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1601년의 소덕유·길운절 역모사건인 소위 ‘文忠基亂’²⁴⁾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으로 折衝將軍 文忠基(당시 42세) 등 총 23명이 서울로 압송되어 심문을 받고, 문충기를 비롯한 11명이 사형당하였다.²⁵⁾ 그리고 이항복이 제주의 특수성을 들어 그 부당성을 지적함으로써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조정에서는 濟州 降號를 논의하기도 하였다.²⁶⁾ 소위 ‘文忠基亂’은 관련자 후손들에 대한 연좌제가 강하게 적용되는 등 제주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가져왔다. 따라서 그후 제주사회에서 남평문씨들이 몰락됨으로 인하여 외손에 의해 이 분묘가 관리되어져 온 것은 아닐까?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면 이 분묘와 남평문씨와의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원동 3기의 분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문헌에서 확인되는 남평문씨 남제공파의 왕자직 역임자인 文昌祐, 文昌裕, 文公濟, 文臣輔, 文忠傑, 文忠甫, 文忠世, 文承瑞 중 어느 누구일 가능성이 있으며, 2代에 걸친 묘역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²⁷⁾ 그 중 세력이 가장 강했던 시기에 1호분의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강창화)

21) 金元龍監修, 1994, 『한국미술문화의 이해』, 도서출판예경, p. 497. 일반적으로 王家에서도 고려 공민왕 이후 3단구성의 魂遊石(床石)·香爐石·望柱石-明燈石·文人石-正中石·武人石, 各種 石獸가 본격적으로 배치되었고, 士大夫家人 경우 朝鮮時代 中期 이후에야 상석, 향로석, 櫛石, 동자석, 望柱石, 그리고 曲牆을 묘 앞과 주위에 두었다. 그렇다면 동 분묘의 석물배치와 비석은 분명 묘역 造成時期가 아닌 後代에 後孫들에 의해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적어도 1호분의 경우 고려시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적다.

22) 高正弼氏(제주시 용담 1동 159번지)의 증언. 그에 의하면 선친 때까지 하원리 소재 왕자묘에 대한 벌초 등을 행해왔다고 한다.

23) 탐라의 마지막 성주로 그가 죽자 태종은 종이 150권과 燭 10자루, 쌀과 콩 40석, 棺槨을 하사하였다.

24) 제주도민에게는 소덕유·길운절 역모사건이라는 것 보다는 탐라국 왕자의 후예였던 文忠基 등이 깊이 개입되고 있어서 소위 ‘文忠基亂’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25) 『宣祖實錄』, 선조 34년, 8월 정묘, 무진.

26) 『宣祖實錄』, 선조 34년 8월 임오.

27) 제주대학교박물관, 1997, 『耽羅星主高鳳禮墓推定址』. 전술한 바와 같이 이 묘역의 구성과 석곽의 축조 상태, 그리고 출토유물이 고봉례 추정분묘와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이 참조된다.

맺 음 말

동 하원리 소재 분묘군은 해발 225m의 능선상에 3단구성으로 이루어진 묘역안에 판석형 혹은 할석형 석곽을 둔 階段式方臺形石槨墳이다. 직경 84m안에 동일한 형태의 석곽묘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분명 累代에 걸쳐 造營된 분묘군이다. 더불어 석곽주변으로 돌린 돌담형태의 曲牆은 지금까지는 확인된 묘역 중 분명 濟州島 最古의 墓域이다.

이러한 割石形·板石形 方形石槨墓는 고려후기에서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무덤 양식으로 쓰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바, 圓墓 이전의 제주도 분묘 양식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제주도 내에 있는 方形石槨墓는 동 하원동분묘군 외에 화북동 거로마을의 탐라의 마지막 성주 고봉례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분묘, 청주한씨 입도조 분묘, 김해김씨 선흘리 소재 분묘 등 그렇게 많지는 않은 실정이다. 특히 화북동 분묘는 부부묘역으로 雙墳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축조방법과 장법이 하원동분묘군과 동일하였으며 유물도 조선초기의 白磁가 출토된 바 있다. 이러한 조사 자료는 하원동분묘군과 상호 비교연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들 墳墓는 고려말-조선초의 方墓의 築造樣式, 墓制形態, 埋葬方法 등의 해명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자료라 할 것이다. 결국 이들 분묘는 제주도의 墓制變遷史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할 것이다. 어쩌면 이들 분묘들은 얼마 없어 모두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들 분묘를 일괄적으로 ‘濟州島의 方形墳’이라는 명칭으로라도 제주도 문화재로 지정하여, 한 가문만의 무덤이 아니라, 제주도 문화유산의 하나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더구나 제주도 문화유산의 하나인 무덤은 매우 독특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미래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매장 방법 및 풍속은 급속도로 변화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주 내에 산재해 있는 방묘를 제주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제의한다. (고창석·김동전·강창화)